금주 법구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자비경-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무료복지관이 있는 불교 천축사 041)734-2680
대전 논산시 한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2월 27일 수요일(주간) 제 300 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免



행정의 목표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통해 설정한 가치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이 말을 종무행정에 대입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펼치는 것이 종무행정의 궁극의 목표이며,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교구본사나 종무원 등의 각 단위를 거쳐 불자 개개인들이 목표를 향한 삶을 살도록 이끌고, 지원하고, 지도하는 과정이다.

각 종단의 총무원(또는 통리원)은 행정의 최고 단위이다. 각 총무원은 그 종단이 지향하고 유지하려는 종지종풍과 종도들의 요구에 바탕을 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을 안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종무행정의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와 올해 치러진 조계종과 태고종의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공통적으로 종도들을 받드는 종단 운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서비스의 실현은 최소한의 것이다. 많은 불자들은 "어느 종단을 막론하고 정체성이 없다"고 말한다. 소의경전에 따른 종도들의 교육과 수행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결국 지향점이 없는 행정인 셈이다.

각 종단마다 종단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장, 단기 프로그램에 따라 종책을 생산하는 기획 기능을 하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신도들에 이르기까지 종단의 소의경전에 대해 이해하고, 사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관리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종책을 생산하고 지향점을 제시하되, 실현 방법론을 사찰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만들어내는 종무행정의 확립이 시급하다.

정성문 기자(swjung@buddhapia.com)

종무행정

종도 받드는 종단 운영
대사회 역할 연구 강화

"종교 자정운동 나서자"

재가연대, 공직검증제 입법 촉구…교단 모니터링 추진

지난 15일 한국종교협의회가 '새천년 종교인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각 교단의 재가 신도를 중심으로 종교자정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본격적인 교단자정운동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가연대는 20일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최근 스님들의 잇단 비리사건과 관련, "재가 지도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별(법률 환경 문화재 등) 전문가로 '교단 자정 감시·지원센터'를 내년 4월중에 설립해 종단 청정성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산내암자 살인사건, 대마초 및 히로뽕 복용사건 등 종단을 어지럽히고 불자와 국민들에게 실망과 혐오감을 주는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종단은 선처를 요청하거나 '승적 없음'을 주장하면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종단 내적인 자정과 개혁을 지원하며 최소한의 감시활동을 펼치기 위해 교단자정운동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재가연대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될 교단자정감시지원센터를 통해 종단 공직자의 청규(淸規) 및 공직자 검증절차 제정 등 입법촉구 활동, 종단 모니터링 및 모범사찰 선정사업, 자정감시전화 개설, 각 교단 개혁을 위한 종교 NGO 협동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종교 NGO 연대사업과 관련, 재가연대는 지난 11일 천주교 우리신학연구소와 개신교의 기독시민사회연대와 모임을 갖고 3대 종교 네트워크 구성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교단 자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종단의 민간단체들간에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 초에 간담회를 다시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승가의 청정성 회복을 위한 재정운영 투명화 및 교단혁신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감시와 지원기능을 병행, 종단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가연대는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박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성해스님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에 임명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jjkim@buddhapia.com)



2000년을 보내며 한 해의 끝에 섰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송구스럽게 달려왔다. 두 손 모으니 저절로 고개 숙여진다. 자기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으로 밝혀내는 촛불의 숭고함을 비라보며, 새해에는 사람들 가슴마다에 촛불 한자루씩 밝히기를 기원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일반사면 검토

성혜 기획실장 "내년 3월이후 가능"

94년 이후 징계자에 대한 일반 사면 실시가 검토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성혜스님은 19일 교계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결빈자를 제외한 징계자에 대한 사면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징계자를 대상으로 하되 결빈자는 종헌을 개정해야 하므로 불가능하고, 또 종단 사태와 관련되어 징계를 받은 스님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단의 화합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성혜스님은 "1월 초 혜암 종정예하와 원로의장 법전스님의 뜻을 확인한 후 사면 실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되면 공고와 사면 신청 접수, 심사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 시기는 1월초 총무원 집행부의 종정예하에 대한 신년하례 이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면 실시는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결산종회가 열리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에 대해 호법부장 종지스님은 "호법부에서는 사면 실시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 사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종지스님은 "아직 원장 스님의 재가 결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초 사면이 실시되면 90년 이후 네 번째이다. 최근에는 지난 해 7월 고산스님이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98년 12월까지 징계집행중인 68명(결빈자 제외)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16명에 대해 사면·복권 조치했다.

정성문 기자

"불교-기독교 합심 신명나는 세상을"

종단협 회장 정대스님 예수탄생 축하메시지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21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정대스님은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가 진리를 외면할 때 오직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구원과 해탈을 위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밝히고 "전세계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일치와 화합, 자비와 사랑, 정의와 공화가 구현되는 신명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총무원이 기독교 측에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또 이날 오전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정성문 기자

'선도책자' 수거 안했다

국방부 차일피일
"조계종 대책 시급"

종교편향적 내용을 담고있는 군장병 선도책자를 전량 수거 하기하겠다고 지난 6일 밝힌 국방부가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종교편향 방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조교원에 소환된 김규대 국방부 군종실 선임법사는 "군종실장이 4일부터 19일까지 해외성지순례중이며 국방부장관도 동남아 순방 중이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불거진 시점이 11월 말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 책임자들의 이같은 정보는 국방부가 문제의 책자를 전량 수거 하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조계종 조교원과 종권위는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조계종 조교원이 김규대 법사를 소환하면서 담당실무자가 업무가 바쁘다며 일정공개를 하지 않는 등 이번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 일각에서는 군내에서 종교편향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통해 음란마술의 정신으로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조교원이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번 사건이 군법사들의 태만과 보신주의에서 발생한 만큼 조교원이 앞으로 군법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불교계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737-0695 Fax:02)737-0696

불교계 올 10대뉴스 5면 현대불교 300호 특집 9면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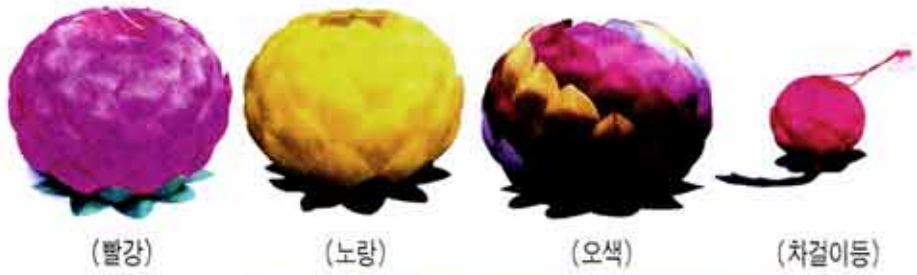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립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육각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 설

한해를 돌아보고 참회하자

하루가 지나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거듭하여 한 해가 지나간다. 시작할 때는 희망을 가졌는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아쉬움이 적지 않다. 후회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새 천년을 맞으며 큰 꿈에 부풀었던 순간이 어제 같건만 덧없이 흘러간 1년을 돌아보며 뉘우쳐 보는 시간을 갖자. 100미터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상에서 웅크리고 있듯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과연 불자로서의 신앙심이 얼마나 돈독했으며, 신앙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기도는 얼마나 했으며 불서는 몇 권이나 읽었는가. 보살행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남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었으며, 내 노릇은 얼마나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인내하여 긍지있는 자신을 지켰으며, 과연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으며, 마음의 선정으로 부처님의 지혜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점검해 보자.

출가승려로서의 본분을, 재가신도로서의 의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했는지 되돌아보자. 각 종단에서는 교육, 포교, 역경의 3대 사업에 얼마나 정진했는지 반성해야 할 때이다. 화합의 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던 사면은 진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새해의 과제로 넘기고 말았다.

신도로서의 의무와 포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못한다면 교세확장은 기대할 수도 없고, 불교의 교리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불교교양대학이 늘어나 신도교육과 포교사 양성에 약간의 고무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으나 연중 논란이 되어 왔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발전방향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청년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포교에 있어서는 군승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가르침에 비추어 보니 우리 모습이 참으로 왜소하다.

가장 괄목할 만한 사업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우리 민족의 보배인 고려대장경을 전산화하여 색인을 갖춘 CD로 제작하여 최첨단 법보를 완성했음이다. 한 출가 수행승의 발원으로 이처럼 거룩한 불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동참자의 인연도 찬탄해야겠지만, 지성껏 발원하면 불사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출가종단과 재가 신행단체가 모두 자기를 비판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스스로 채점을 해보고 새해를 맞을 수 있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시급한 승가의 도덕성 회복

조계종 총무원의 주요 소임자가 드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으며, 만해스님의 얼이 깃든 백담사의 주지가 대마초를 피워 구속됐다. 주지 자리를 놓고 싸우다 살인교사까지 했다는 소식이 엊그제였는데, 이제 맥주에 히로뽕을 타 마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승가를 들먹이며 도박이니, 살인교사니 하는 불경한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 민망할 따름이다.

2년 전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했던 '한국인의 종교실태와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를 보면 종교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종교단체가 참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교세확장에 더 관심이 있고(불교인 75.5%, 개신교인 64.8%, 천주교인 79.9%, 무종교인 86.5%),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도 주지 못한다(불교 60.0%, 개신교 51.4%, 천주교 57.8%, 무종교 68.7%)고 답했다. 이 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불교인들과 무종교인들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라면 포교는 물론 불교인들의 행위를 '입바른 소리'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든다.

물론 누구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인천(人天)의 스승인 부처님이 아니고서야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종단과 사찰의 주요한 소임자라면, 과거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욱이 도덕성에 흠결을 지닌 스님에게 총무원의 소임을 맡기고, 주요 사찰의 주지를 하는 것을 보며, 종단이 도덕성에 있어서 매우 둔감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재가연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승가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혹, 재가자들의 발언이라 해서 무시한다거나 불쾌해한다면 더더욱 큰 문제다. 승가의 도덕성 회복은 재가자들의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승재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 불교라는 빛나는 이름에 먹칠하는 스님들은 극히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계율을 목숨으로 여겨 수행에 정진하고, 포교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스님들이 더 많다. 그래서 여전히 승가는 불자들의 귀의처이다. "죄가 있으면 곧 참회하고,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서산대사의 말씀이다.

종비생 의무봉직제 도입

조계종 내년부터 군승·본말사 포교당서 3년 근무

조계종 종비장학생의 의무봉직제도가 실시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2일 교육원회의를 개최하고, 2001년 동국대 종비 입학생부터 졸업 후 군승요원이나 중앙종무기관, 본·말사, 포교당에서 3년간 의무봉직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단 종비장학생 관리개선안을 의결했다. 의무봉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1년부터 동국대에 입학하는 예비승들은 전원 종단의 수혜에 따른 의무이행각서를 교육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비장학생 지원 및 기본교육체계 확립을 위해 동국대 재학 예비승이 종비장학생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나, 종비장학생이 향후 수행관(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불교학부를 졸업한다 할지라도 기본교육을 이수치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동국대에 입학하는 종단소속 예비승의 종비장학생 편입을 의무화하여 종단관리를 받지 않는 채 독자적으로 학부를 졸업한 후 종단기본교육 이수 혜택을 받는 것도 차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앙승가대 입학 학인들도 3년 의무복직을 할 수 있도록 종비생제도의 보완 및 시행방안 검토를 교육원에 요청했다.

종비생 3년 의무복무제도가 실시될 경우 중앙종무기관, 본·말사, 일선포교당의 인력난 해결 및 현재 종단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군법사 충원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군불교포교의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

현재 동국대 종비생은 200여명이 재학중이며, 한 해 50여명이 배출되고 있다. 매년 종단과 동국대는 종비생 교육 및 생활지원비로 14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천주교 원불교 등의 경우 종립학교 재학 중 일정정도 학비 및 기숙사비 감면의 혜택을 받고 3~4년간 의무봉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종단 기본교육기관의 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동국대 종비생 관리제도 개선내용 중 3년 의무복무제도는 중앙종무기관 및 본·말사, 군법사 파견 등의 실효가 예상된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중앙승가대 학인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계에서 처음으로 계율관련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과계사 승가대학을 인가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교TV 위성방송 참여

내년 10월…산사·동남아로 시청권 확대

영상포교 새전기…광고·수신료 수익 기대

불교TV가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돼 내년 10월부터 상용화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는 19일 위성방송사업자로 한국통신이 주도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결정돼 이미 10월에 한국통신과 프로그램공급합의서를 체결한 불교TV도 자동적으로 함께 채널권을 얻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그동안 케이블이 들어갈 수 없었던 국내 산중 사찰은 물론 일본과 중국 일부지역에서도 불교TV의 시청이 가능해져 영상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교TV가 위성방송을 실시하게 되면 수신료 및 광고 수입도 자연히 따라 붙게 돼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영상 포교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위성방송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 방송전파를 이용해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접시 안테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불교TV와 같은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가구라면 접시안테나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지역방송국(SO)에 위성시청료만 별도로 내면 된다.

위성방송이 내년에 본방송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에서 위성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채널수는 100여개가 된다. 종교·음악·레저·스포츠·게임 등 세분화된 채널을 가족 취향에 맞게 마음대로 선택해 골라볼 수 있다. 또 데이터 채널을 통해 인터넷 검색, 홈뱅킹, e메일 등도 서비스 돼 시청자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TV는 자율 경쟁을 예고하는 수많은 위성채널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승대덕의 법문, 한국의 명찰 소개, 불교교리강좌 등 포교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다양한 컨텐츠의 확보가 최대 관건이라는게 방송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수덕 불교TV 사장은 "현재의 시설에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위성방송 송출 장비와 송출업무를 담당할 기술 인력만 약간 보강하고 6년간 축적해온 컨텐츠를 활용하면 중복투자 없이도 위성방송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현 대 만 평 박구원



올해 마지막 소원은…

사형폐지 청원서 유엔 제출

145개국 320만명 서명

국내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을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모임 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주도아래 시행되고 있는 사형 집행을 전세계적으로 유예(moratorium)해야 한다는 국제청원이 18일 전세계 145개국에서 320만명의 사형폐지 옹호론자들의 서명을 받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됐다.

아난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인권운동가, 국제사면위원회 대표등이 공동 제출한 사형집행 중지를 촉구하는 청원을 접수하고 유엔을 대표해 이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서명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전세계 종교계 지도자및 노벨상 수상자 등 각계 각층 저명인사들이 다수 참가됐다.

이와 관련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스님은 "한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제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 문제(사형)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라면서, "인권 선진국을 염원하는 현 정부에서 하루빨리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경주 세계문화유산등록 축하행사

홍보탑 설치·세미나도



경주시(시장 이원식)는 15일 경주시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축하행사〈사진〉를 개최했다.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한 학술세미나도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의근 경북도지사, 이원식 경주시장, 최규철 동국대 경주캠퍼스부총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경주시민들은 1995년에 등록된 석굴암에 이어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록을 축하하는 현수막과 홍보탑을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등 경축 분위기를 돋구고 있다.

최기범 경주지사장

포교사 고시 1차 378명 합격

윤성윤씨 수석…3월 품수식

제 6회 포교사고시에 총 응시자 541명중 378명이 1차 합격했다.

이번 포교사 고시에서는 윤성윤(동산불교대)씨가 수석으로 합격했으며, 부산불교교육대학이 58명으로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정택순(68·동산불교대)씨, 최연소 합격자는 추명숙(23·불교보건복지대학)씨이며, 남자 247명, 여자 130명이다.〈합격자 명단은 buddhanews.com〉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는 내년 2월 10일부터 11일에 열리는 1차 합격자 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포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포교사 품수식은 내년 3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 최종합격자 연수 후 열린다.

김원우 기자

불교정보센터 IT사업

사이트 구축·온라인 상담등

불교단체와 사찰의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불교 정보화(IT)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NGO 간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불교정보센터(대표 신희권, www.budgate.net)는 20일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불교정보센터 사이트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불교정보센터를 허브포탈 사이트로 개편, 내년부터 불교정보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계 비영리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 지원사업은 웹 사이트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단체들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컨설팅, 온라인 상담을 통한 기술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IT 지원사업은 홈페이지 제작 및 리노베이션 지원, 웹호스팅 지원, 온라인 상담교육 등 네 가지로 축적된 IT 전문인력과 종단 차원의 인프라가 부족한 불교계 현실에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 정보통신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 등을 추구하는 '노동정보화 지원사업단(info.nodong.org)'과 상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불교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연말 연시,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끝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영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유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당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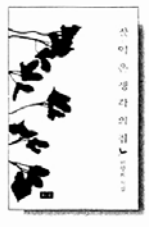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잘·익·은·생·각·의·집

이양희 시집



B6변형 / 값 7,000원

분에 넘치는 욕심 부리지 않고
너무 걸멋 내지 않고
늘 진실 편에 서려고 애쓰며
힘들 때마다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며
그렇게 시에게 말을 걸다보면
시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넬까.
시가 건네오는 첫마디에
부끄럽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일 없으리라.

- 저자의 후기 -

불교·사찰·자연을 소재로 한 주옥같은 시, 봉사활동을 하며 지은 시 등 우리의 마음을 맑이고 밝이는 좋은 시들로 가득합니다.

◈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권해봅니다

효림의 자회사 도서출판 여음에서 발간한 시집입니다. 주문은 효림으로 하세요.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목어

정의가 문제다

이재정신부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할 때였다. 당시 공동대표였던 장영신씨와 함께 시내의 한 음식점으로 종교계지도자를 초청해 좋은 정치 구현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며 한마디씩의 충고를 요청했다. 각 종교계에서 온 분들이 점잖게 한마디씩 한 후에 내 차례가 돌아왔다. 다음 이야기는 그때 내가 한 말이다.

"옛날 어떤 사람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깊은 산 속 바위 밑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감응이 와서 소원을 성취했다. 그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 늘 바위 밑에서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렸고 그 결과 특별한 능력(?)까지 얻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앞날에 대한 예언도 해주면서 큰돈을 벌게 되자 슬그머니 건방진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의 지극한 노력과 뛰어난 머리로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해 맞춘 것인데 보이지도 않는 그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보답을 한단 말인가? 이제는 그냥 집에서 내 하고 싶은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산을 찾는 일이 없어졌고, 그에 따라 그의 예언능력도 점점 사라져 실패를 맛본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었다.

우리 사회의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인 종교인들을 불러준 것은 고맙지만 이번 한번에 그칠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이런 기회를 가져야 그 사람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 정권출범 초기에 좀 심하다 싶었지만 늘상 오는 기회도 아니고 해서 쓴 소리를 했는데, 그 후에 다른 뛰어난 종교지도자들을 모셨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연락이 없었다.

국민의 정부가 각종 개혁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민심이 흉흉하다. 개선책으로 민주당의 대표 등 진용을 바꾸고 정면돌파할 모양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은 사회전반에 걸쳐 권력, 재물에 관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정부, 여당 지도자의 도덕성 회복을 통한 정의구현이 급선무다. 어느 국왕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백성들의 겉모양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법현(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안으로 '안정-화해' … 밖으로 '대북 교류'

2000 결산 – 주요 종단

조계종 총무원: 취임 1년차를 맞는 정대 총무원장 체제의 올해 최대 과제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으나, 화합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98, 99년 조계종을 뒤흔든 분규의 앙금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으로 사면 실시를 설정하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으나, 내년의 과제로 넘기고 말았다. 사면에 대해 총무원은 "정대스님은 할만큼 했다. 종회에서 종헌 개정을 미루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종회의원들 사이에서 "종회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집행부 전체의 역할은 매우 미흡했다"는 상반된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통사찰의 수행환경과 성보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농지법 등 국가법령의 개정,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구성은 큰 성과로 기록된다. 특히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6.15 정상회담 이후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응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이후 활동이 기대된다. 그러나 성보문화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성보도난 사건이 빈발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중앙종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중앙종회 역대 회의록〉과 〈종헌의 이해〉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간해 통해 종단사를 정리했고, 7개 상임위원회는 올해 1차례 이상의 세미나를 열어 종책을 생산하는 종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종단 전체의 이익보다는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유회를 거듭하는 구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또 147회 종회를 개회하지도 못한 채 유회시키는 오점을 남겼다.

교육원: 올해를 '교육진흥의 해'로 정하고 1년 동안 교육체계화 사업을 진행한 교육원(원장 일면)은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사업추진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교과과정 통일, 사미의제 정착, 고시위원회 발족, 4급 승가고시 시행, 기본교육체계 확립,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선원총람〉 발간 등의 사업을 펼쳤다.

반면 상설행자교육도량 설립과 관련해 '상설행자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전문·특수·교육분야의 사업전개와 재교육이 미약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 분야에 대한 내년도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포교원: 올해 포교원의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직장직능법회 활성화였다. 지난 10월에는 전국직장직능불자 연합대법회를 이끌어 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올 한해만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철도청불교협의회, 전국전력인불자연합회 등 동일직장 불자연합회가 창립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포교단체 제도정비 및 포교사단, 불교상담개발원, 여성개발원, 신도교육위원회 발족, 포교소책자 해외포교자료 직장직능법회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포교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군불교 포교 및 군불자들의 신행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군불교총신도회를 창립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군포교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 및 내용성에 있어 군승단과 의견 합의를 못해 과제로 남게 됐다.

태고종 △북한불교도지원 및 교류 확대 △선암사 성역화 사업 회향 △인터넷 포교활성화를 종단 3대 지표로 한 해를 시작한 태고종(총무원장 종연)은 지난 9월 홈페이지 '태고넷'을 오픈해 인터넷 포교시대에 동참했다. 이와 더불어 태고보우스님, 동자승, 영산재 등 종단홍보 및 포교용 캐릭터 70여점까지 개발해 신세대를 겨냥한 포교에 적극 나서는 등 종단 정체성 확립과 홍보에 그 어느 때보다 역점을 둔 한해였다.

6.15 남북정상회담직후인 6월 23일에는 북한에 통일기원 남북합동영산재 봉행과 북한사찰의 단청불사 지원 등을 제안하며 북한과의 교류 물꼬를 트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기울였다.

지난 해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선교육 후득도' 제도도 정착단계에 들었다. 23기 득도수계산림 수계자부터 종립학교 입학을 적극 권유했으며 2005년부터는 종립학교를 나와야 승적을 발급하기로 종단방침을 정했고 승려 및 교임, 종무직원, 승려권속들의 연수교육을 의무화했다.

11월 23일 열린 총무원장 선거에서 사상최초로 '50대의 젊은' 총무원장 선출이라는 이변도 낳았다. 그러나 일부에서 총무원장의 자격시비와 공약이행 여부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내홍의 불씨를 안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또 종단의 해묵은 과제인 말사들의 분담금·의무금·납부가 여전히 저조해, 분담금·의무금 미납 사찰에 대한 종단에 대한 강력한 조처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천태종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올 한해 조사신앙의 고양과 더불어 종지종풍을 확립하기 위한 종단의 노력과 복지사업, 국제종교교류 확대 등이 돋보인 한 해였다. 특히 지난 11월 5일 2만여 종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낙성식을 가진 '상월원각 대조사전'은 '현대의 국보급 문화재'란 찬사를 들으며 조사신앙 선양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복지법인 인가를 시작으로 주력한 복지사업은 올해 춘천노인복지관, 구미 장애인복지관, 새싹어린이집 등을 위탁받았으며 '수족침봉사회 발족' 등 신도들을 통한 자발적인 자비행 실천에도 역점을 두는 교육을 실시했다.

11월 말 총무부장을 대표로 하는 종단대표단이 종조인 대각국사의 출가 열반지인 북한 개성 영통사지를 방문, 영통사 복원문제를 논의하며 북한불교와의 교류에도 첫 발을 떼어 놓았다.

올해에도 천태종은 부산 삼광사 지장전 낙성, 수도권 포교의 중심지가 될 분당 대광사 요사채 상량식, 대전 삼문사 종합불교회관 상량식, 양평 양산사 기공식 등 20여 말사의 낙성 및 불상 점안식, 기공식을 가져 지역 포교의 기반을 다졌다.

진각종 올초 포교국을 포교부로 확대개편해 역량강화에 주력한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포교영역 확대, 대북교류 심화, 밀교교리 대중화 등에 주력해 그 어느 해보다 성과를 드높인 한해였다.

복지분야에서 발군의 실적을 보여온 진각종은 7월에는 스리랑카에 JGO직업훈련센터를 개소, 본격적인 국제구호활동과 해외포교에 나서 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청소년기구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가 7월 문광부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청소년문화 창출과 포교활동에 들어갔다. 신세대포교를 강화시켜 미래불교를 이끌겠다는 진각종의 의지가 엿보이는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 가장 부각되는 점은 지난해에 이어 성조통리원장 등 종단대표단의 2차 방북이다. 지난 9월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통일토론회 개최, 북한불교 대표단의 방한 추진, 금강산 장안사 복원 참여, 컴퓨터 지원 등을 합의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 남북불교의 폭넓은 교류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을 얻었다.

이경숙·정성운·김원우 기자 (gslee@buddhapia.com)

조계종
민족공동체 본부 구성
강원교과 통일 '성과'
'사면' 내년 과제로

태고종
'태고넷' 인터넷 포교
남북합동 영산재 제안
총무원장 자격 '시비'

천태종
사회복지 활동 열심
구인사 대조사전 낙성
영통사 복원 논의

진각종
해외구호사업 '주목'
신세대 포교 활발
대표단 두번째 방북

'교류 협력→연합→통합' 법타스님 '남북불교 통합론' 제안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평불협) 공동회장 법타스님이 '남북불교 3단계 통합론'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타스님은 20일 '고려불교통합 조계종 통일안을 제안한다'는 제안서를 통해 교류·협력 단계→남북불교 연합 단계→남북불교 통합 단계 등 3단계의 불교통합안을 내놓았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법타스님은 A4용지 7장 분량의 제안서에서 "10여년 동안의 북한불교 연구, 조선불교도연맹 간부들과 관계기관과의 대화를 기초로 했다"고 밝히고 "타종교의 막강한 도전과 파괴로부터 한국불교를 지키고 중흥시키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통문화를 발전 계승시키는 것"이라며 불교통합에 대한 연구와 활발한 논의를 기대했다. 법타스님은 내년 2월 평불협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구체적인 통합 방안과 단계별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남북연합→연합→완전통일)과 맥락을 같이 하는 법타스님의 3단계 불교통합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류·협력 단계

신뢰 회복, 상부상조, 동질성을 확인하는 단계. 식량과 의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조불련을 통해 최대한 도와주어야 한다. 주체사상과 불교와의 관계도 연구되어야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남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며, 조불련은 북한불교의 현황을 남측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남북불교 연합 단계

남북 정부가 연합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통일조계종단의 전단계로서 1종단, 2체제, 2종무행정기구의 형태이다. 남과 북의 불교는 독자적 종무행정을 보장하면서 남북불교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되, 연합종회와 연합종무원을 구성한다.

연합기구에서는 △분단 이전의 북한불교 실태 조사(재정, 토지, 건축물, 파괴 원인) △대외 활동의 조정 △불공, 제사, 두발, 복식 등 의식 및 외형의 통일 △북한지역 사찰 복원 계획 수립 및 자금 축적 △북한지역 신흥도시 사찰 창건 계획 수립 등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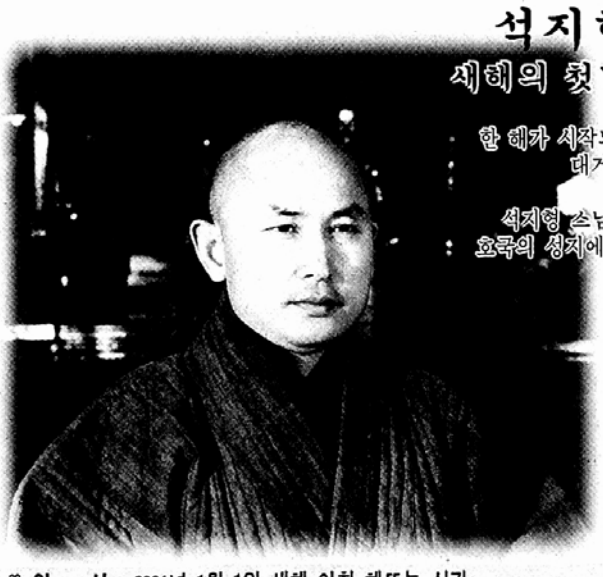
▩남북불교 통합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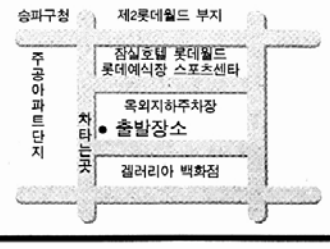
1종단, 1종무행정기구를 갖는 형태이며, 김 대통령의 통일 단계 중 연방단계(1국가, 1체제, 2자치정부)에서도 실현 가능하다. 하나의 명칭(고려불교통합조계종)과 종헌, 의결기구를 갖는다. 통합종회는 남북 동수로 100명으로 하며, 해외동포와 신도도 포함한다.

승려는 독신, 삭발, 염의해야 하며, 북측의 기혼승은 당대만 인정한다. 북측의 교구는 광법사, 성불사, 표훈사를 본사로 3개 교구를 둔다. 북한 정권에 의해 국유화된 불교 토지를 정부로부터 환수토록 노력한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신사년 새해아침
경제번영 민족평화통일 불교중흥기원
신년 해오름기도 호국 용왕도량 감포대왕암 방생대법회(제13회)
석지형 스님과 함께하는 나라와 불교위한 큰기원
새해의 첫날을부처님을 향한 정진으로 시작하면 크나큰 공덕성취의 문이 열려옵니다
신사년 새해 이땅과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첫해 뜨는 시간에 불자님의 정성과 새해의 소원이 담긴 등을 달고 신년 기원 대법회를 전국의 여러 인연불자님이 대거 동참하시는 가운데 장엄하고 성대하게 봉행 올리며 부처님의 공덕이 충만한 나날이 되기를 축원 올립니다.
10여년 전부터 해마다 전국적 규모의 연례대법회로 봉행되어 금년 제13회에 이르는 뜻깊은 법회입니다.
석지형 스님과 여러 의전스님단 수많은 불자님이 함께하는 철야 용맹정진 법회는 새해에 큰 공덕을 성취케 하리라 확신합니다.
호국의 성지에서 봉행되는 대법회에 전국인연불자님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대길상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南無 관세음보살 마하살


❁ 일 시 : 2001년 1월 1일 새해 아침 해뜨는 시간
❁ 장 소 : 동해바다 감포 대왕암 신년대법회장(한국제일 방생도량)
❁ 출발일시 : 2000년 12월 31일(일) 오전 11시
❁ 출발장소 : 잠실역에서 롯데월드 방면으로 나오셔서 롯데쇼핑센타 끝나는 지점까지 곧바로 걸어 오시면 됩니다.(200m)
❁ 신년법회 호국용왕대제 동참금 : 5만원(1인)
❁ 접수마감 : 2000년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소림정사에 오셔서 접수하시고 동참권을 받으시어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착 : 2001년 1월 1일 오후 9시 예정
❁ 공 양 은 소림정사에서 준비합니다.
※ 준비사항 : 방한복·장갑·방한양말·세면도구·손전등 등 겨울철 기도에 필요한 물품


전통의식·방생·법문·불자연예인 공연·신년기원 염주 증정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번지(압구정동 현대고·신사중 정문 맞은편)
TEL : 511-6210~5, 3443-9871~7. 3446-2158/2185
FAX : 511-6216

열주문



도굴꾼 검거 경관 감사패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은 28일 오전 11시30분 고창 선운사에서 성보 도난범을 검거한 이경필 임실경찰서장 외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27일 설법전서 취임식

증연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은 27일 오후 2시 총무원 청사가 있는 서울 성북동 중앙불교회관 설법전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02)745-2030



호국비룡사에 위문품 전달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은 20일 경기도 파주 군법당 호국 비룡사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제2건국 추진위원에 위촉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은 21일 서울특별시 제2 건국범국민 추진위원으로 위촉돼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실천승가회 송년회

청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은 22일 서울 북악파크호텔에서 송년회 및 실천승가회 홈페이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천일기도 만등불사

법지 부산 대원사 주지는 1월 9일 오전 10시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을 초청해 '천일기도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한다.



무불선원 카오스론 강의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는 28일 저녁 7시 강남 무불선원에서 '불교와 카오스이론'을 주제로 강의한다. 김 교수는 매월 1회씩 강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시대 출판 포럼

윤청광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은 27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디지털 시대 변해야 산다'라는 주제로 출판 포럼을 개최한다.



겨울방학 청소년 참선교실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장은 1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와 함께 하는 겨울방학 청소년 참선교실을 연다. (051)466-4080

부음

리선행(횡성 대승사 회주)법사의 빙부 서명성옹이 22일 새벽 5시 자택에서 지병으로 입적했다. 향년 76세. 발인은 24일 오전 9시. (017)420-2200

"한국불교-현대철학 접목 기대"

한·인 불교교류 물꼬 튼 조용길 교수



"다종교 사회인 인도에서 불교학자들이 대승불교의 화엄철학을 토대로 종교의 본질을 해석함으로써 종교간 이해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4~5일 '한·인 불교문화교류사'를 주제로 인도 델리대에서 열린 국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온 조용길 교수(동국대 BK 연구단 단장)는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조 교수는 "세미나를 처음 기획할 때만 해도 한·인 불교학계의 첫 교류라는 데 비중을 두었지만, 개최한 후 양국의 불교학계가 서로 주고받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인도의 불교학자들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도불교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적잖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사라오(데리대 불교대학장) 교수 등 인도의 불교학계를 이끌고 있는 중견 불교학자들이 일본, 대만, 스리랑카, 한국 등 불교의 맥을 계속 이어온 나라와의 교류에서 인도불교 부흥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한·인 불교학계의 교류는 한국에는 현대 철학과의 비교 연구 성과를, 인도에는 끊임없이 이어져온 한국 불교문화의 본질을 수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우선 인도에서 공부하고 있는 40여 명의 한인 유학생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들에게서 인도 불교학계의 연구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생각이다. 조 교수는 "인도 불교학계와의 물꼬를 트고, 또 현지 한인 유학생과의 정보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양국의 불교학계가 참여하는 '국제학술지'도 발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성낙구·박필상씨 실상문학상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채낙현) 주최로 19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 3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에서 성낙구씨(사진 오른쪽)와 박필상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포교에 앞장서온 문학가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실상문학상 본상에는 현대문학으로 등단, '두렁콩 시절' 등 수필로 심성을 일깨워온 성낙구씨(수필가)가 수상했다. 또 우수상에는 '손을 씻으며' 등의 시조집을 내며 활동해 온 박필상 부산불교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 12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허 조계종 종회의장을 비롯해 원택 총무부장, 장곡 종회포교분과위원장 등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은 "오늘이 있기까지 성심 성의껏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신도들에게 상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촌포교 활성화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교인권상 시상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는 19일 부산 문수불교문화원에서 제5회 불교인권상 시상식 및 창립 10주년 기념 축제를 개최했다. 공동대표 진관스님 지원스님을 비롯 부산불교인권위 대표 정각스님과 민족민주열사 유가족 등 2백여명이 동참한 자리에서 라창순씨와 이성우씨가 각각 제 5회 불교인권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 앞서 인권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서울지하철 삼존불 봉안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회장 민병훈)는 19일 종합운동장역 법당에서 삼존불 접안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 스님을 비롯해 서울지하철공사 김정국 사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정련스님은 "지하철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그안에는 차별과 분별심이 없는 곳"이라며 "이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웃과 함께하는 지하철법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0년을 빛낸 불자들

사회를 따뜻하게…불교위상 높게…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디지털 대장경 완성 등 불교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가운데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과 업적, 아름다운 보살행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불교의 위상을 드높인 불자들도 적지 않았다.

박광서 서강대 교수는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상임공동대표,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올해 불교 NGO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끈 장본인이다. 총선불교연대와 아셈 2000 민간단체포럼 종교분과위 활동을 주도했으며, 조계사 신협사태 등에 따른 사찰재정 공개화 및 종단 자정운동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선방수좌인 수경 스님은 지난 6월29일 '지리산살리기 댐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를 발족시킨데 이어 8월30일 189개 종교·환경·사회단체가 연대한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을 창립, 우리나라 환경운동에서는 드물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가 적극 참여하는 환경운동을 이끌었다. 특히 10월23일부터 11월19일까지 낙동강 1300리 도보순례를 직접 실시하면서 국토청정을 몸으로 발원하는 생명운동을 펼쳐 환경운동에 불교바람을 일으켰다.

불교장기수후원회 상임대표이자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공동상임대표인 성관 스님(수원포교당 주지)도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하면서 불교계의 국제적인 인권·평화 운동에 불씨를 지폈다.

일본군 위안부 출신의 김군자 할머니는 지난 8월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평생 모은 재산 5천만원을 내놓아 사회를 감동시켰다.

조선초부터 근현대까지 6백년동안 국내 고승대덕들의 비문 3백32기를 수집 정리해 '(한국고승비문총집)을 펴낸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은 불교사의 중심에서 활동한 고승들의 행장을 압축해 사료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사찰에 소장된 불화를 모아 1차 총 20권의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한 범하 스님(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은 10년동안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직지사 등 11개 본·말사를 비롯해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의 불화 총 1,700여 점을 정리해 불교미술사와 학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위덕대 박물관 박홍국 학예연구실장은 박물관 '불적조사단'을 이끌며 경주시 안계리 폐사지에서 '안계사'란 명문기와와 포항 최대 규모의 절터인 '옥명사지(玉明寺址)'를 발견하는 등 문헌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지를 찾고, 그 가치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최순용 검사(전주지방검찰청)는 올해도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3월 28일 최 검사는 국보로 지정된 〈감지은니 묘법연화경〉을 은닉·밀매하려한 사찰 신도회장과 도굴 문화재를 일본으로 빼돌리려한 교수 등 6명을 적발했다. 문화재와는 상관없는 특별수사팀을 맡고 있으면서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은 결과다.

안홍부 감사관은 10월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을 일일이 파악, 강원도 월정사에서 전국공무원불자회 성지순례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공무원불자회 창립을 이끌어냈다.

"시주의 은혜를 입거나 신도와 상좌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죽었을 때 사방에 알려 번거롭게 하지 말라. 산중에서 조촐하게 화장하여 흘어버려라." 평생 청빈한 수행자의 삶을 살다가 11월 14일 원적에 든 조계종 원로 응담 스님이 남긴 이 말씀은 물량주의에 찌든 불교와 세상에 대한 신선한 사자후였다. 49재도 지내지 말게 하고 평생모은 7천만원을 생명나눔실천회 등에 기증한 응담스님은 세속에 살면서도 속진에 물들지 않았던 한송이 연꽃으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다. 김주일 기자



◇응담 스님



◇지관 스님



◇수경 스님



◇범하 스님



◇성관 스님



◇김군자 씨

지관스님	고승비문 332기 정리
수경스님	지리산 살리기 앞장
성관스님	인권·평화 불씨 지펴
범하스님	한국의 불화 집대성
박광서씨	총선·아셈활동 이끌어
박홍국씨	안계사·옥명사지 발굴



◇박광서 씨



◇박홍국 씨



◇안홍부 씨



◇최순용 씨

봉행

대원사 천일기도 만등불사 대법회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기금 마련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에서는 불우이웃과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천일기도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수희 동참하시어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는 인연을 지어 그 공덕으로 각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 하시길 합장 발원하옵니다.

초청법사 : 법산 큰스님
동국대학교 정각원 원장·동대학 교수
입재일시 : 양력 2001년 1월 9일 (오전 10시)
음력 2000년 12월 15일
회향일시 : 양력 2003년 10월 5일 (오전 10시)
음력 2003년 9월 10일



법산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기도도량 대원사 법지 (운몽) 합장

신도회장 문위윤
정토회장 김동영 신도일동

TEL . 051-891-7255 / 891-1051 FAX . 051-893-783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 3동 산 40번지 가야공원 내 대원사

2001학년도 무불선학대학원 2기 신입생 모집

선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학대학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2월 1일~ 2월 24일

모집 내용
· 주간반 00명, 야간반 00명,
· 통신반 00명(비디오TAPE수강)
· 인터넷 수강가능
(Homepage : http://www.moobool.com)

전형 및 구비서류
· 서류전형(전형료 2만원)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1통
·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자 격
·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및 동등한 불교 교리 숙지자
· 선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희망하는 자

합격자 발표
2001년 2월 26일~ 28일(개별통지)

개강 및 강의시간
· 3월 5일(총 15주) · 매주 월·화요일

등록금(학기당)
· 주·야간반 : 47만원, 통신반: 55만원(분납가능)
· 과목별 수강: 과목당 20만원(통신 23만원)

개설 강좌

과목명	강사	요일 및 시간
선어록 강독	홍선스님(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주간 / 14:40~16:10 (화)
		야간 / 18:50~20:20 (화)
선과 서양철학	심재룡(서울대 철학과)	주간 / 14:40~16:10 (월)
		야간 / 20:30~22:00 (화)
한국선사상사	최병헌(서울대 사학과)	주간 / 13:00~14:30 (화)
		야간 / 18:50~20:20 (월)

※ 학과목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학식
· 2001년 3월 3일 토요일
· 오후 2시 본원 법당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135-010)
전화: 541-0002~3
팩스: 541-0004
Homepage : http://www.moobool.com
E-mail : moobool@netsgo.com

덕숭총림 수덕사 부설
무불선원·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 불 선 학 대 학 원

자비 평화의 '목탁소리' 21세기 열고…

불교계 올 10대 뉴스

업경대(業鏡臺) 앞에 섰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렸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본다. 불교의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지리산 살리기, 여성개발원 창립, 통일을 향한 남북불교교류를 주요 뉴스로 꼽았다. 디지털 팔만대장경 완성, 경주 남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불교문화유산을 현재화한 성과로 기록된다. 달라이 라마 방한은 1년 내내 지면을 달구었다. 인권과 평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교육과 수행에 철저한 티베트 불교를 통해 한국불교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조계사신협의 공금횡령 사건은 아직도 한국불교가 전근대성을 떨쳐치지 못했음을 반영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가르침으로 삼지 않는 역사는 무의미하다.

본지 선정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6월 14일 인도 다람살라 소재 티베트망명정부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 초청 대표단의 달라이 라마 친견, 9월 19일 600여명의 종교·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 발족, 11월 16일 달라이라마의 연내 방한 무산 등의 과정을 통해 달라이 라마 방한에 대한 이웃 종교인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낸 것은 종교를 떠난 인권·평화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운동을 계기로 촉발된 티베트 불교에 대한 호기심은 각종 서적과 영화, 미술 등 티베트 불교문화에 대한 붐을 일으켜 간접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지리산 살리기 국민운동

6월 29일 실상사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56개 불교단체가 창립한 '지리산살리기 댐 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는 지리산댐 백지화 추진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 지리산의 생태·문화·생활·종교환경에 대한 조사연구활동, 물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한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종교·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지리산댐 백지화 국민행동'을 주도적으로 창설(8월30일), 종교계의 환경운동을 촉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경주 남산 '세계문화유산'

불교문화유적의 보고로 '노천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 남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11월 29일 경주 남산을 포함한 경주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주 남산은 그 가치와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동시에 훼손 방지와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주 일대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불교여성개발원이 11월 27일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여성불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운동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불자 조직화를 통해 여성불교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불교여성개발원은 연구·교육, 가정, 대외협력, 복지, 인권 등 5개 위원회, 특별자문위원회를 두고 △여성불교학 연구조사 △여성 리더십 개발교육 △조계사내 아동보육 시설 설치 △여성불교 관련 자료집 발간 △홈페이지 구축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95년 한국의 '나란다 대학'을 짓겠다는 원력으로 시작한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 건립불사가 12월 말 마무리됐다. 내년 3월부터 김포학사에서 새 출발하는 중앙승가대학은 5만 3000평 부지에 건평 9200평, 지하1층 지상 4층의 대학본관과 48개의 연구실을 갖춘 교수회관, 3층 규모의 강의동, 470명 수용규모의 비구·비구니 수행관 등 5동 최신식 건물을 갖추고 승가교육 진흥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중앙승가대학은 앞으로 안암학사에 대학원설립등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고려대장경 완성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이 12월 6일 결실을 맺었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고려대장경 전체를 목판 인경본 12장, 유니코드 전환용 3장 등 모두 15장의 CD에 담아내는 '고려대장경 2000'을 발간했다. 입력·교정·교감하고 이체자(異體字)를 찾고 해제를 만들고 새로운 폰트(컴퓨터용 글자)를 만드는 8년 동안의 대작불사였다. '고려대장경 2000'은 신수대장경이나 불광대장경을 제치고 '최초의 한역대장경 전산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 시대의 가장 완벽한 전자 결집이자 한역대장경의 전산화 표준안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 불교교류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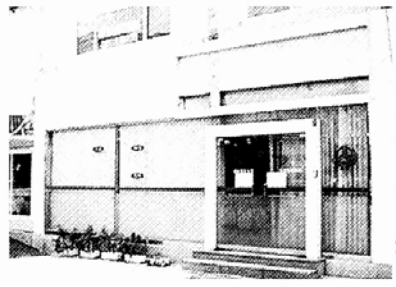
조계종은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구성해 이후 대북교류의 큰 틀을 짰다. 천태종은 영통사 복원을 위해 개성 영통사터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진각종은 지난해에 이은 또 한차례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과 파트너십을 다졌다.

평불협도 노동당 창건 행사에 참관하는 등 교계 대북교류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 한국 JTS와 좋은벗도 북한 농업 및 어린이 시설 지원, 사찰 복원 지원 등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쳤다. 기대를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는 또다시 내년의 과제로 넘어갔다.



조계사신협 공금횡령

7월말 조계사 신용협동조합에서 직원이 70억원대의 고객예치금을 횡령한 사고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1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횡령이 저질러졌음에도 신협의 운영주체인 조계사와 관계 임원진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계사신협은 11월 초 서울지방법원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문을 닫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관리 소홀과 전문경영 부재로 야기된 신협사건은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비지정문화재 보호 강화

문화재청이 비지정문화재 보호책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비지정문화재 도난사범은 일반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공소시효만 경과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된 상태로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교계에서는 동의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입법예고 후 유가사와 대전사의 후불탱화를 비롯해 비지정 불교문화재의 도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일간 '붓다뉴스' 오픈

교계 최초의 일간 인터넷 신문인 '붓다뉴스'(http://www.buddhanews.com)가 6월 1일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일간뉴스 사이트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붓다뉴스는 연중무휴 실시간으로 가동되는 불교전문 뉴스 사이트로 매일 매일 서비스되는 그날의 불교계 종합뉴스와 불교강좌 학술문화 신행 불교도서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불교계 최대 규모로 구축된 불교DB '부다피아'와의 연계 검색기능도 갖추고 있어 방대한 불교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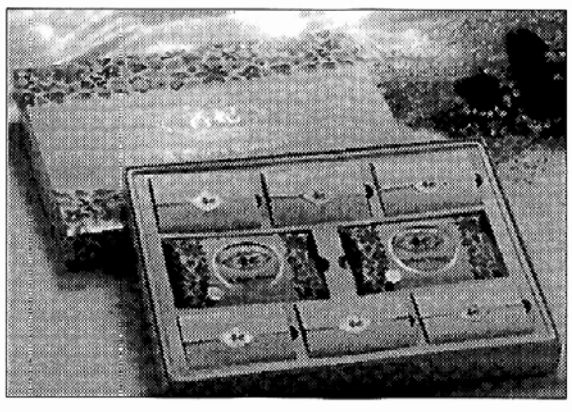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 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200-4545 (02)755-9821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날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있다
8. 생리 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2. 가슴이답답하고 얼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6. 변비가 있다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불서 5천여권 관리-대출 '척척'

신행현장

불광사 도서관 봉사보살 14명

'책이 없다면 지금 내 삶은….'

불광사에서 책벌레로 통하는 14명의 보살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도돌아보면 불법을 만난 인연도 소중하지만 그 인연을 다듬고 깊이를 더하게 해 준 불서(佛書)야말로 가장 가까운 선지식이자 도반이었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불광사 2층에 자리잡은 불광도서관에 모처럼 '책벌레들'이 함께 모였다. 관음재일 법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 번 정기모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잊고 살기에는 너무나 보고 싶은 얼굴들.

개그우먼이자 왕언니로 통하는 정묘행 보살(55)이 분위기를 띄운다. "책좀 읽었노? 요즘 우리 도서관에 벌레들이 자취를 감췄다는데 어찌된 일인고."

"아따, 그러는 왕언니는 책에는 신경안쓰고 딴데 한눈 팔면서… 그러면 안되지~잉." 도서실장 지운행 보살(53)이 바로 맞받아치자 책벌레들이 박장대소한다.

이들 열네 보살은 이곳 불광사 도서관의 주인들이다. 오전 오후로 나눠 한 사람씩 두 사람이 교대로 하루의 도서관 업무를 진행한다. 대출이 주요업무지만 신간구입에서부터 도서분류, 컴퓨터 입력, 도서카드 작성, 라벨작업, 신문정리, 군법당이나 교아원 도서기증 등 모든 일을 분담해 처리한다.

경전류와 사전류를 비롯해 5천여 권이 넘는 불서와 일반도서를 관리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이곳 도서관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책을 좋아해야 한다. 이들 열네 보살은 예외없이 책냄새가 그 무엇보다도 향기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다. 도서입력이나 대출을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정도 자격은 갖춰야 불광사 책벌레 대열에 낄 수 있다. 물론 자원봉사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빛바랜 책들만 도서관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잔잔한 미소가 어울리는 총무 진여행 보살(42)은 컴퓨터 입력에 열중하다 "책은 많이 읽을 수 있겠다"는 질문에 "사실 많이 읽지 못해요. 여기에 오면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하지만 틈틈이 보고 싶은 책을 꺼내 읽는 재미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걸요"라고 답한다.

왕언니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판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도가 곧 생활인 왕언니



◇컴퓨터 전산입력과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불광도서관 자원봉사자들.

은 1년 전부터 도서관 자원봉사를 한, 경력으로는 막내지만 독서열은 어느 누구 못지않다. 지혜안 보살(43)은 남편과 아이들을 사찰에 오게 했을 정도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신심을 자랑하며, 정법월 보살(43)은 불교공부에 푹 빠져 불법의 바다를 항해중이다. 보리안 보살(42)과 보리윤 보살(42)은 기도와 불서 읽기에 매진하고 있다.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자체도 즐겁지만 책을 권해받은 불교 초심자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심깊은 불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행복해요."

도서실장 지운행 보살의 말에서 열네명 책벌레들의 '헌신'이 생생히 느껴진다. 마치 코끝을 스치는 진한 녹차향기처럼.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서읽기 '경쟁적'
신행상담 역할도
컴퓨터 다루기 능숙

정묘행 보살은 집에서든 사찰에서든 하루 1000배는 기본이다. 또한 교리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도서관에 책을 대출받으러 온 초심자들에게 신행상담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

"정말 보람이 커요. 책도 권하고, 기도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도서관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왕언니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나머지 보살들도 신행생활에 열심이기는 마찬가지다. 무애성(44)보살은 기도는 기본이고 참선을 한지도 벌써 8년째다. 자인성 보살(51)

생활속의 불교

물 같이 살자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시간을 매듭 짓는다는 게 부질없긴 해도, 시공에 매여 사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시간이 어제 혹은 지난해와 다르기를 희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 우리네 살림살이야말로 흐르는 물과 같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안달복달할 일도, 다가올 시간에 허황한 기대를 걸 일도 아니라는 말이다. 오직 도도한 흐름만 있을 뿐이니, 버릴 것도 담아 둘 것도 없는 것이다.

걸음걸이를 보라. 한 발짝 내딛으면 뒷발짝 없어지고 또 한 발 내딛으면 또 한 발 없어진다. 떼어놓은 발자국을 아쉬워하면서 걷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놓고 간다.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일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겪으면서 흘러간다. 보는 것 듣는 것도 다 그러하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가. 물 같은 삶은 바보같고 덧없는 삶으로 여긴다. 가능하면 내 곁에 잡아두려는 생각에 흐름을 거스른다. 재물을 쌓고 자리를 다투며, 모든 흐름이 나의 바람을 따라 좌지우지되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매순간 남을 미워하고 탓한다.

우리들이 공인하는 능력이란 대개 '내 논에 물 대기(我田引水)' 식의 능력을 말한다. 자연스런 흐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물꼬를 넓혀서 내 논에 많은 물을 대고 그것을 가두어 두는 것을 유능하다고 한다. 나아가서는 그런 일들을 자못 인간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폭력·술수·증오·전쟁에 대해서조차 명분을 붙여준다.

계속해서 먹기만 할 수는 없다. 무한정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먹었으면 배설해야 하고 먹을 만큼 먹었으면 멈춰야 한다. 계속해서 숨을 들이 쉴 수 만은 없다. 들이 쉬었으면 내 쉬어야 한다. 흘러드는 물도 무한정 잡아 가둘 수는 없다. 흘러들었으면 그만큼 흘려 보내야 한다. 잡아 가두면 썩거나 터지게 된다. 그것은 순리이다. 조금도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진리이다. 고로 우리의 노력이란 그런 흐름을 타는 것. 그런 흐름에 순응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물 같은 삶을 으뜸으로 여겼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깨달음에 이르는 길 출발은 보시행입니다"



정우스님
무량사 주지

"세존이시여! 같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무슨 까닭으로 누구는 얼굴도 추하고 재물도 없으며 남에게 천대를 받고 또 누구는 얼굴이 못나서 남에게 천대를 받으면서도 재물만은 풍부한 사람이 있는 등 각각 다르나이까?"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말리 부인이여! 가슴에 성내는 마음이 있는 자는 추하고, 보시하지 않고 재물을 얻지 못해 마음에 질투를 일으키는 여자는 남으로부터 천대를 받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내는 마음으로 질투를 불러일으키더라도 보시를 행하는 여인은 비록 얼굴이 추해서 천대를 받더라도 재물만은 풍족하며, 성내는 마음도 없고 보시도 행하면서 질투도 일으키지 않는 여인은 얼굴도 아름답고 재물도 풍족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것이다"

물질·몸·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자

라고 법문 했습니다.

원래 말리 부인은 사위성의 한 바라문부호의 집 하녀의 신분이었습니다. 주인소유의 말리 동산을 지키면서 일하던 어느 날 그녀는 사위성 근처에서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든 단정한 사문이 걸식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집에서 얻은 자신의 마른밥을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였습니다. 그 보시행은 그녀가 사위국 바사익왕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왕비가 된 말리 부인은 그 사문이 부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원정사를 찾아뵌 후 자신의 복락이 보시공덕하는 마음과 실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살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큰 행원(行願)을 닦아 마침내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하는 여섯 가지 방법, 즉 육바라밀 중 제일 첫번째가 보시바라밀임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출발은 보시행 입니다. 베푸는 행위는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스런 마음으로 보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할 지라도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비스러움은 모두를 따뜻하게 하는 힘이고 만물을 낳아서 기르고 자라나게 하는 힘입니다. 자비와 보시는 동격(同格)이기 때문에 보시에 의해서 생명은 태어나는 것이고 따뜻하게 양육된다 할 것입니다.

태양이 비추는 것은 우주의 보시행이요, 물이 대지를 적셔주는 것도 우주의 보시행 입니다. 천지만물이 다 끝없이 자비로운 보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리 부인처럼 보시행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살지우고 복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없이 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 곧 무재칠시(無財七施) 가운데 화안열색시(和顔悅色施)와 자안시(慈眼施)가 있습니다. 평화스럽고 편안한 얼굴이며 기쁨에 넘치는 표정 그 자체가 훌륭한 보시이고, 자비스러운 눈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도 큰 보시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아도 훌륭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평화스럽고 기쁨에 넘치는 얼굴이요,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자비심어린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돌아보아야 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현상계를 살아가는 육신이 있으니 당연히 섭생을 위한 재물보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한편, 몸으로(身施) 마음으로(心施) 하는 보시가 더욱 그리울 수 있습니다. 같은 절에 다니는 법우 불자들이 연대하여 양로원·고아원·재활원에 가고, 봉사를 위해 팔을 걷어부칩시다.

자비 보시행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또한 그 샘물은 언젠가는 내 갈증을 채워줄 것입니다.

신행캘린더

12월 27일 (수)

■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전 조계종 교육부장 향적스님을 모시고 다보법회를 봉행한다.(02)703-0108

■ 강남구청불심회 송년법회=강남구청불심회는 오후 6시 봉은사 등법당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한다.(02)3463-0037

■ 백양사 참사람수행결사=고불총림 백양사는 31일까지 참사람수행결사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수련회는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의 법문, 화두간택, 좌선의, 선종사 등의 불교교리강좌와 참선 및 겨울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061)393-7502

■ 서불청 기초교육원 수료식=서울불교청년회 기초교육원은 오후 7시 30분 서울불교청년회관에서 제 100기 수료식을 봉행한다. (02)730-9108

12월 28일 (목)

■ 부산불교실업인회 송년의 밤=부산불교실업인회는 오후 6시30분 롯데호텔 2층 사파이어룸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051)818-9914

■ 이애주 승무공연=중요무형문화재 승무기능보유자인 이애주씨는 29일까지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승무공연을 펼친다.(02)396-0514

12월30일 (토)

■ 불광학생회 불광바라밀 한마당=불광학생회는 오후 2시 불광사 보광당에서 제 21회 불광 바라밀 한마당을 개최한다.(02)3431-7585

12월31 일 (일)

■ 대불어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1월 1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 30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051)808-4569

■ 신흥사 겨울수련법회=신흥사는 1월 2일까지 대학생, 청년, 성인을 대상으로 겨울수련법회를 봉행한다.(031)357-2695

■ 보림사 철아 용맹정진법회=서울 정릉 보림사는 1월6일까지 선방에서 일주일 철아 용맹정진법회를 봉행한다.(02)914-6187

1월1일 (월)

■ 강남포교원 신정기도=강남포교원은 3일까지 대웅전에서 신정기도를 봉행한다.(02)539-2631~4

■ 조계사 성도재일 철야정진법회=조계사는 오후 9시부터 2일 오전 5시까지 대웅전에서 성도재일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한다.(02)720-1390

1월2일 (화)

■ 이병윤 사진전=불교사진작가 이병윤씨는 6일까지 서울 충무로 후지포토살롱에서 '불의 세계-이뭐꼬'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02)2273-5480

제1회 독서감상문 공모작 발표

최우수 작

명상에 관한 보고서

- 마크 엡스타인의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자는 없다'를 읽고

김경연

제목이 관념적인데 반해 에필로그의 마지막 잣귀까지 읽고 책을 덮으며 '불교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며 재미있는 발상에 무릎을 쳤다. 물론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불교와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불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매우 현실적이며 實證(실증)적인 서양인의 사고에서 나올법한 〈불교에 대한 새 옷〉을 한 벌 입힌 격이다. 글쓴이는 동양적인 불교의 은유보다는 서양인의 잣대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 중의 하나를 증명하고 있다.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자는 없다'는 불교에 접근하는 방법중의 하나인 '명상'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서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책이다. 역설적이게도 서양인의 눈을 통해서 본 '나'와 '내가 가진 종교'에 나 자신은 한번도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다. 살아오면서 불교는 남의 행동을 가늠하는 잣대였고 내 사고를 지배하는 철학이었으며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지배하는 나침반이었다. 그러나 한번도 불교의 근본 원리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절에 가서 빌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에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닐까? 서양인 의사가 쓴 불교의 정신분석학은 내가 가진 종교에 대해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다가가기를 권하고 있었다.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자는 없다'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뇌의 다양성이 첫 번 째이고 그것을 불교의 〈명상〉과 어떻게 접목해서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 두 번째이다. 여기서 명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선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된다. 그럼으로 이 글은 〈한국적 불교〉에 대한 총체적 이론서라기 보다는 현재 서구의 지식인 계층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에 대한 애정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서양인이 생각하고 있는 동양적인 정신세계에 대한 간단 명료한 글쓰기는 주제가 무겁고 어려움에도 문장 자체는 선명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임상경험이 많이 소개되어 다가갈 수 있었다.

글은 윤회로부터 시작한다. 재미있었던 건 축생계에 관한 글을 쓰면서 프로이트의 심리학 중 성(性)에 관한 부분을 많이 인용하고 있었다. 성(性)의 쾌락에 대한 결론은 물론 같다. 性(성)의 쾌락이란 일시적 만족과 그 뒤에 오는 그 큰 만족을 위해 현재의 만족이 빈곤이 되고마는 만족과 빈곤의 되풀이로 결국 영원한 만족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쾌락을 좇는 사람은 축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왜 하필 축생계에서 성(性)이 등장하는지 의문이었고 혹시 이것이 성(性)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의 하나가 아니라 경계해야할 저속한 행위라고 생각하거나 글쓴이가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미루어 짐작했다. 재미있는 행간 읽기였다.

이 글을 읽기 얼마 전에 나는 〈생각과 생각하는 사람〉과 〈행동과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스 선박을 타고 일주일간의 지중해 여행기간이었다. 지중해의 순결한 태양아래서 읽는 불경(佛經)은 진지했다. 온통 알몸을 드러내고 누운 여인네들은 해바라기를 하고 나 또한 그들 사이에 물혀 이방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호사한 유람선 안에는 각국에서 온 다양한 인종들과 그 인종들이 엮어내는 문화의 차이로 흥미진지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만찬에서 내 앞에 앉았던 프랑스인이 매우 불쾌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살기조차 느껴졌다. 그것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만찬시간 내내 그랬다. 이후, 6일간을 불쾌한 시선 속에서 보내야 했다. 마지막 식사시간이었다. 그 프랑스 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내 목에 걸린 만(卍)자 목걸이에 대해 물었다. 무슨 뜻이냐고? 나는 〈불교의 심볼〉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얼굴엔 당황함이 물어났다. 자신은 유태계라며 나의 만(卍)자 목걸이는 악몽이라고 했다. 바로 2차 대전의 나찌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맞다. 히틀러는 동양의 위대한 힘을 빌려 세계를 지배하려 했고, 그래서 나찌의 심볼이 만(卍)자를 거꾸로 써서 만들었다는 일설이 있다'고 답해 주었다. 본의 아니게 며칠 동안 그에게 지옥계를 경험하게 한 미안함으로 내가 읽던 불경(佛經)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는 〈불교〉에 대해서 표피적이나마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 프랑스인은 만(卍)자와 나찌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생각했다. 그럼으로 해서 나에게 〈폭력〉이라는 행동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했다. 이후, 2차 대전의 잔해가 아직도 생생한 이태리에서는 일전에 경험했던 불쾌한 시선을 더 자주 받아야 했고 나는 만(卍)자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묻고 답하는 시간을 덤으로 얻을 수 있었다.

나의 경험을 마크 엡스타인은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까? 그 프랑스인은 억압된 잠재의식이 현실의 어떤 물체와 만났을 때, 괴로움을 느끼고 그 괴로움이 폭발을 하면 행동으로 나타난다. 괴로움을 잊는 방법은 불교의 〈명상〉이다. 그리고 명상의 방법은 .... 책을 읽고 내가 대신 내려준 답이다. 여기서 '나'는 그 프랑스인이 느끼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 스스로 자신이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찾아가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그가 공포를 느낀 건 만(卍)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연상되는 참혹한 전쟁의 피해다. 이미 그 방법은 불교의 여러 경전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음으로 나는 그와 전생에 짧지 않은 인연을 맺지 않았나 상상해 보았다. 역시 책읽기의 재미있는 선물이다.

작가 마크 엡스타인은 동양철학(여기서는 불교로 대표되는)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일찍 눈을 떴고, 그 자신도 직접 명상을 함으로써 가능성을 확인했다.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명상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은 현재 우리가 할 수있는 최고의 치료이자 또한 자신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결국 '불교가 제시하는 가장 근본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마크 엡스타인의 글은 불교의 근본을 심리치료와 연관하여 스스로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글은 스스로 찾아가기를 원하는 중생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내가 만(卍)자 목걸이를 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 이는 불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로, 내 앞에 광활한 대지의 풍요로움이 펼쳐져 있음에도 한발 내디뎌 걸어보지 않는다. 불교는 바로 여기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껴안으려는 사람은 다들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발 비껴서 사람들에게 마크 엡스타인의 글은 한번쯤 되새김질하는 여유를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우리 불교 전반에 모두 필요불가분한 요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근본으로 다가가려는 마크 엡스타인의 수고에 불자로서의 예를 표한다.

성불(成佛)하소서.

■ 최우수상 (상품 : 춘천옥산가 옥 다기세트)
김경연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우수상 (상품 : 사이버 음향 에밀레종)
송소현 - 전북 군산시 나운1동

■ 가작 (상품 : 연꽃전통 다기세트)
박철홍 - 전남 목포시 연산동 · 송영만 - 전북 군산시 금광동

■ 장려상 (상품 : 성철큰스님 기념메달)
이경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 김갑숙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조경숙 - 서울시 양천구 목3동 · 곽두례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이번행사에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상품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문의 : 02)732-1522 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 교수의 18

불교로 보는 신생

통일 신라의 붕괴와 해체, 그리고 새로운 국가 고려의 성립 과정을 다룬 '왕건'이 모처럼 역사 드라마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흡인력 있는 구성과 역사적 상상력이 돋보인다. 나말여초(羅末麗初)에 선종의 인연이 뿌리내려 가는 사상적 사연을 함께 다루어 준다면 더욱 성공적인 작품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드라마를 통해 다시금 확인되는 민족적 테마가 있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대립과 갈등이 한민족의 역사에서 지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기묘하게도 영남과 호남, 북한의 분열 지형도는 삼국 대립의 그것과 닮아 있다. 혹 오늘의 한반도 분열 구조가 삼국 분립의 역사적 인과를 계승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면, 이 끈질긴 삼국 대립형 분열 문화를 한민족은 어떤 의미로 소화해야 할까? 고대에 삼국이라는 이질적 정체성이 뿌리내리게 되는 저간의 사연도 궁금하거니와, 이후 한반도의 역사적·정치적 공업(共業: 집단이 공유하는 업)으로 아직까지도 맹위를 떨치는 이 분립 양상은 깊은 사색과 해법을 요구한다.

어느 나라에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 감정과 갈등은 있게 마련. 자연스럽게 형성된 다양한 집간 아이덴티티를 인위적으로 통합해 버린 것이 국가 형성의 역사일진대, 한 국가에 지역 대립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한반도의 삼국 대립형 갈등은 광광한 균형의 지형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양상이다.

차이는 성숙과 풍요의 계기인 동시에, 상호 파괴, 소모적 대립의 토대이기도 하다. 통일성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적 획일화는 야만의 폭력이며 문화적 질식이지만, 어울리지 못하는 차이들 또한 타자 부정과 싸움으로 삶을 아프게 할퀸다. 우리는 지역 차이를 어떤 형태로 소화하고 있는가.

차이가 부정과 배타로 이어지는 것은 '다름'을 강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이들이 풍요의 다양성으로 어울릴 수 있으려면 차이들을 통합시켜 주는 '하나됨'의 도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저런 차이들이 해소되거나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편 지혜가 없을 때 차이는 영락없이 소모적 부정과 배제, 다툼과 공격으로 이어져 생명을 왜곡하고 해치게 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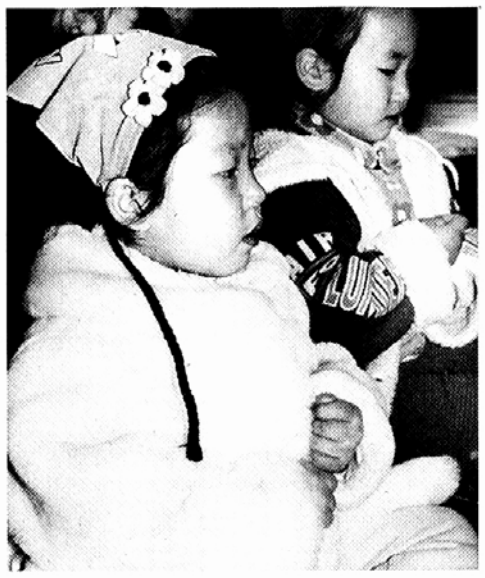
차이들을 상생적(相生的)으로 어울리게 하는 보편 도리는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한민족의 탁월한 영성들은 일찍부터 그 해답을 부처님 법에서 확보하고 있다. 그 해법을 원효는 '한마음(一心)'이라 하고, 동시대 도반인 의상은 '화엄일승(華嚴一乘)'이라 천명한다. '다름'을 고착시키는 분별의 벽이 해체된 경지, 모든 생명과 사물이 서로 서로 지탱해 주는 장엄한 상생(相生)의 관계와 그 평화, 무지가 지어낸 허구와 분리와 고착된 분별을 걷어버려 밝고 따뜻하게 된 생명의 주인됨과 그 걸림 없는 자유. 이 새로운 세계가 인간 내면의 깊이와 성숙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그들은 온 몸으로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중생 탐욕이 구축한 불합리한 이권 독점 체제인 신분제(골품제도)의 질곡과, 증오의 살기(殺氣)로 생명을 배반하던 분열의 아수라장(삼국 전쟁)을 근원에서부터 수습하고자 하였다.

지혜는 이미 빛나건만, 중생의 그 질긴 무지의 습벽은 애써 그 빛을 외면한다. 20세기 한반도를 뻐저린 신음으로 가득하게 한 분열과 배제의 행보들은 그 외면의 애처로운 몸짓이다. 겪을 만큼 겪었다. 이제는 '다름의 격리'를 소통시키는 '하나됨의 만남'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호남을 팔아 '다름'이 제공하는 배타적 기득권을 누리며 국민들을 농락한다면, 그들을 누구보다도 호남인들이 호되게 나무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남이가'하며 영남 지역정서를 왜곡시켜 붕당적 야심을 채우려 한다면, 우선 영남인들이 매섭게 회초리 들 수 있어야 한다. '다름'을 부추겨 사심을 채우려는 소인배의 발호를 '하나됨'의 보편 지혜로 제압하게 될 때, 한민족은 비로소 문화적 단계로 올라서게 된다. 그렇다면 저 질긴 삼국 분립의 지형도는 한민족에게 그 문화적 도약을 위한 긴장과 자각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선우(善友)란 말인가.

※ 울산대 철학과 교수

지역 갈등 풀자

'다름의 격리' 소통
'하나됨의 만남'으로



◇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며 금강권 결인을 한 천진동자들.

삼세 알고 참회 자연히 업장 소멸

참물자의 길 주력③-진언의 공덕

기억력도 좋아져

주력 수행을 하면 어떤 공덕을 얻을 수 있을까.

〈현우경〉에는 '진언의 총지력(總持力: 모두 기억하는 힘)을 얻으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도 잊지 않게 된다'고 설해져 있어 진언 수행의 효과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 진언을 늘 간직하고 외우면 기억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항상 보리심(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 온갖 집착을 없앨 수 있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진언을 외우면 업장 소멸을 할 수도 있다. 진언 속에는 불보살들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항상 진언을 외우면 염불이나 예불 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게 돼 자연히 업장(業障)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언을 외우기 전에 먼저 부처님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이 이제까지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것이 좋다.

20년 이상 진언 수행을 해오고 있는 진각종 종학연구실장 혜정 대정사는 "진언을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등 삼세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긴다"며 "삼세를 알고나면 자연히 참회를 할 수 있어 업장소멸이 되기 때문에 발원도 저절로 이루어 지게 된다"고 공덕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또 혜정 대정사는 "일상 생활속에서 불자들이 '옴마니반메훔' 등 여러 가지 진언들을 수시로 외우며 수행한다면 탐진치를 없애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 큰 공덕과 영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짧은 진언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온 마음을 집중해서 외운다면 반드시 공덕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고 진언 수행을 불자들에게 권한다.

이외에도 불자들이 진언 수행을 하면 나쁜일이 피해 간다고 한다. 즉 화재, 수재, 관재, 도적, 질병, 횡사, 흉작, 외침 등 여덟 가지 재난을 비롯한 온갖 악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덕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언도 깨달음을 얻어 성불에 이르기 위한 수행방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구복과 재난방지를 위해서만 진언을 하게되면 공덕의 효과를 제대로 체험하기 힘들다고 오랫동안 진언수행을 지도해온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실제로 아침마다 진언 수행을 한다는 장호숙 보살(68)은 "3년전까지만 해도 나이가 들어 정신 집중도 잘 안되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도 안좋았었다"며 "진언집을 가지고 다니며 진언 수행을 하니 정신도 맑아져 삶에 활력을 느끼게 된다"고 자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생활속의 진언

▲옴 바아라 도비야 훔 : 향을 사를 때
▲옴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 참회할 때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 큰 소원 성취를 발원할 때
▲옴 아아나 사바하 : 부모님의 깊고 큰 은혜를 보답하고자 할때
▲옴 아리야 승하 사바하 :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옴 발다나야 사바하 : 공양하기전
▲옴 하로다야 사바하 : 회장실에 들어갈 때
▲옴 사만다 바리숫제 훔 : 손과 얼굴을 씻을 때
▲옴 처림 : 몸을 보호하고 싶을 때
▲다냐타 미마려미마려 바나구지려 사리말저 군나려 수노비 인나라 의녕 모예 사바하 : 모든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 거짓말 또는 남을 비방하거나 욕을 했을 때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언어로써 언어에서 해탈하는 길

40 선과 언어 (4)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법을 설할 때에 어떤 법을 세우든지 그 법은 반드시 다른 법과의 상대적 의존 관계에 의하여 성립됨을 보임으로써, 그 법의 자성은 그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대법들을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혜능이 가르친 설법 방식이다. 이러한 설법 방식은 나가르주나의 중관철학의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자성의 발견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모순율'의 발생 근거를 발견함으로써 '모순율'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순율'은 서양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앎의 기본 원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는 세계를 모순율에 따라 분별적으로 알며, 분별적으로 아는 세계를 역시 분별적 언어를 통하여 나타낸다. '가'라는 사물(A, 불교에서는 諸法)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가' 아닌 사물(非A)과의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여기 책상 위에 있는 '컵'은 '컵' 아닌 것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의 '컵'일 뿐이다. 만일 다른 어떤 사물도 인식되지 않고 다만 '컵'만이 인식되고 있다면, '이것은 컵이다'라고 인식할 이유가 없다. 즉 '컵'은 '컵' 아닌 것에 의해서만 '컵'일 수 있을 뿐, 홀로 '컵'일 수 있는 독립자존성[自性]이 없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물은 이처럼 모순적—불교적으로 말하면 연기적(緣起的)—상황 속에 있다. 분별의식의 기본 속성은 이러한 모순율이다. 즉 분별의식은 연기적으로 발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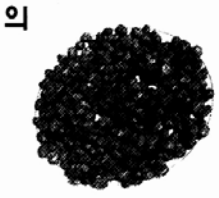
그런데 문제는 모순적 상황이 곧 상호 갈등의 상황이란 점이다. '컵'과 '컵' 아닌 것은 상호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대립적이다. 즉 모순적 상황이란 곧 취사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이며, 취사선택은 욕망과 집착을 불러오는 갈등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의식 속에서 늘 취사선택하고 욕망하고 집착하는 번뇌에 마주하고 있다. 불교를 배우고 선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러한 번뇌를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모순적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모순율에 따르고 있는 한은 결코 모순율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분별의식에 따라가는 길을 통해서는 결코 분별의식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극복의 길은 모순적 취사선택의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거나 양쪽 모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놓아버리고 분별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조주가 "놓아버려라!(放下着)"하고 답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가르주나가 말하는 희론적멸이나 혜능이 두 법을 상대시켜 두 법을 모두 놓아버리게 하는 것도 역시 이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놓아버린다'는 길에도 약점이 있으니, '놓아버린다'는 것이 분별의식을 벗어나라는 뜻이지만, 도리어 분별의식 속에서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즉 무분별이라는 방종 내지 아무 생각이 없는 멍청함[昏沈] 속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것은 취사선택을 통하여 다른 극단으로 빠져드는 것일 뿐, 분별의식을 극복하는 해탈의 길은 아니다. 즉 무분별 역시 분별이며 멍청함에서 빠져나오면 여전히 분별의식 속에 있을 뿐이다.

선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개발한 길이 바로 직지인심(直指人心)을 통한 견성(見性)의 길이다. 이것은 분별의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분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길이며, 언어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언어로부터 해탈하는 길이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단순하며 평범한 길로서, 취사선택의 분별의식 속에서 그 분별의식이 발생하는 지금 이 순간, 그 분별의식의 발생 작용을 지적해서 파악케 하는 방법이다. 분별의식은 마치 끓는 주전자의 주둥이에 붙어 있는 하얀 수증기와 같다. 수증기는 주전자의 주둥이에 늘 그 모양 그대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는 분출작용이 있을 뿐 하얀 수증기는 허깨비이다. 이처럼 분별의식을 작용해 내는 마음을 파악하면, 분별의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분별의식은 허깨비이므로 버리려고 해도 버릴 것이 없다—분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말 아래에서 즉각 깨닫는다[言下便悟]'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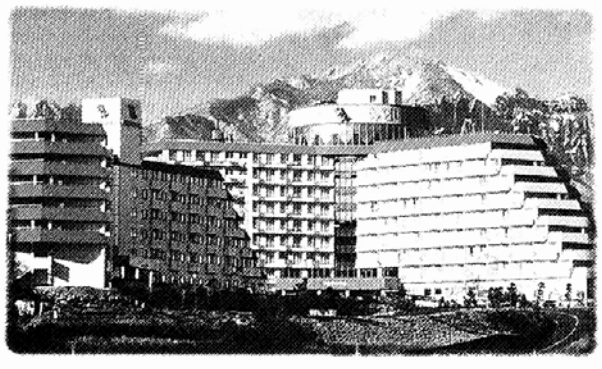
정금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

현대 휘미리 설악콘도 특별 혜택
가고싶은 설악 품고싶은 동해
설악 콘도 23평 ~~1,584~~만원을 350만원에



특별가입 내역			특별가입 혜택
평 형	총분양가	특 별 가	① 계약과 동시에 전국 23곳 이용 가능
23평형	~~1,584~~	350	② 10년 만기후 전액환불 및 연장가능
사용일수	객실형태	객 실 수	③ 연회비, 입회비 평생면제
30박	방2/거실1	477	④ 초정약수 스파텔 VIP 초대권 증정
			⑤ 초정약수 (탄산수) 무료 한정 공급
			⑥ 양도, 양수, 매매 상속 가능
			⑦ 신용카드 장기분할 가능 (12-18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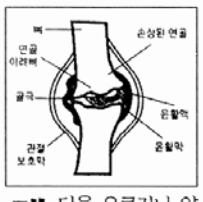
■ 온라인 카드결재 안내
국민은행 : 805 - 25 - 0012 - 481
예 금 주 : 주) 현대휘미리리조트

문의 안내 02) 545-4955

주) 현대 휘미리 리조트
HYUNDAI FAMILY RESORT CO., LTD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사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관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많이 베푸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많은 사람이 베푸는 것이 더 좋다.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부자들이 많은 세상보다 더 아름답다.

세밑이 되면 '불우이웃을 돕자'는 말이 구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들을 돕는 것이 연말연시의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이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다. 어떤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하는지 경전말씀을 들어본다.

이렇게 들었다

보살행

"어머니가 외아들 아끼듯"

▨온갖 중생의 생명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도움을 주려는 자애의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화엄경〉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시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엾이 여기되 갓난애 같이 보아 다 해탈케 해야 한다. 〈태자쇄호경〉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응당 중생을 해치지 않으며, 중생을 애호(愛護)하되 제 몸과 같이해야 한다. 〈보살행변화경〉

▨현재(現在)라는 나라가 있었다. 한 장로 비구가 위중한 병을 얻고 현재국의 한 절에 누워 있었는데, 역한 냄새 때문에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손수 그의 몸을 씻어 주며 말씀하셨다. "여래가 세상에 온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에게 공양하면 그 복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될 것이다." 〈법구비유경〉

▨모든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 역시 병들었으며, 모든 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미혹의 세계)에 들기 때문이다. 미혹의 세계가 있다면 병도 있게 마련이다. 만약 중생들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보살도 병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의 병은 대비심(大悲心)에서 일어난다. 〈유마경〉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한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숫타니파타〉

▨우주는 한집 중생은 한가족. 이래서 우리 중생은 아득한 옛적부터 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 〈대승본생심지관경〉

▨중생을 위한 길이라면 무엇인들 아까우리. 그라도 모자라면 이 몸도 바치리라. 〈보살본원경〉

▨이보오 길손이여, 대비심 일으켜 가여운 중생들을 힘따라 구제하세. 끝없는 육도윤회 영원히 벗으려면 이러한 구호중생 최상의 길이라네. 〈대방광불화엄경〉

▨불심(佛心)이란 큰 자비심이다.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으로써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다. 〈관무량수경〉

▨보살은 보리를 수행할 때 모든 병자에게 의약을 베풀고 마땅히 이런 원을 세워야 한다.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병을 끊어버리고 여래의 금강신(金剛身)을 완성케 해야한다. 〈열반경〉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지혜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므로 보리(菩提)는 중생에게 딸린 것이다. 〈화엄경〉

물자 세상보기

자살사이트와 촉탁살인 '충격'



이근후
이화의대 교수

"아름답게 죽으려고 하는데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사이트의 게시판에 자주 오르내리는 질문이다. 이번에 실제로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가 파악한 바로는 36개 정도의 자살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문제의 사건이란 다름이 아니라 한 10대 청년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20대의 자살 희망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이뤄진 자살이자 촉탁살인이란 점에서 충격적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자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살은 개인의 유전적인 요인, 학습된 요인, 뇌의 생화학적 물질에 의한 것 등 정신과적 질병과 유관하다. 개인의 정신병리를 이해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요인을 이해해야 한다. 자살은 개인의 요인에 의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아노미 현상과도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이 있기 이전에도 자살은 있었고 청부 살인은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현상과는 달리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이 더한 것은 인터넷으로 인한 확산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살과 기존의 청부살인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이런 점은 비단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 정보사회의 발전은 우리가 새로운 윤리성을 정립하기도 전에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 과거의 사건과는 다르다. 생명에 대한 경시, 상업적 가치관, 일차 사고과정적인 행동양태를 부추기는 개인이나 사회적 자극에 대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방책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마련되고 있는 수습책으로 자살사이트 폐쇄가 논의되고 사법처리까지 강구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대응방법은 구태의연한 것이다. 사이트의 폐쇄만을 주장하는 것은 가장 손쉽고 안이한 방법일 뿐 이번 사건의 진정한 핵심을 피해 가는 것이다. 충격적인 사건이 생길 때 마다 진정한 핵심을 피한 채 지엽적인 원인에만 집착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우선 충격적인 사건에 대처하는 우리의 속성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한다.

인터넷 윤리 마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우선 자살충동의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어떤 치료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를 사회전체가 고민해야 한다. 다음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회적 아노미 현상에 의해 자살이 아니면 돌파구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는 사회병리적 상황을 건강하게 바꾸어 놓는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이 갖는 피할 수 없는 속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런 속성 가운데 역기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서둘러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오늘날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을 굉장히 게삼는 폐쇄 일변도의 대책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런 제한적 조치보다는 정보사회를 살아갈 인터넷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할 법률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 대책없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만 내세운다면 인터넷의 역기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며, 역기능의 확산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인터넷 윤리와 법률의 합의를 위해 개설자나 운영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노력을 촉구해 본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자기안에 있는 부처 만나길

우리는 사람으로 와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기를 반복한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같이 왔으면서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 이런 우리네 삶 속에서 사람 안에 깨달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만약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은 머지 않아 부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만나기만 하면 부처와 함께 살며 영원히 헤어짐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으로 생기는 고통은 없을 것이다.

또 한해가 저문다. 더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 삶이 이어질 것이다. 그들과의 인연도 소중하지만 새해에는 우리 모두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만나기를 발원한다.

〈현웅스님 · 미국 버클리 육조사〉

스님사칭 사기 예방하려면

얼마전 TV 뉴스에서 스님을 사칭해 사기를 일삼은 사람이 붙잡힌 것을 보았다.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둘이 아니고 무려 1백여명이나 됐다는 사실이다.

그 범인은 집안의 우환을 막아주겠다며 부적을 팔고 심지어는 부녀자까지 농락했다고 한다. 아직도 이런 사기행각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정작 문제는 사기행각을 벌인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에 속는 사람들이다. 그 사기꾼을 스님으로 알고 집안에 들인 사람이라면 적어도 불교에 관심이 있거나 불자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얄팍한 사기에 넘어갔다는 것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무슨 액땜을 하고 건강을 보살펴주는 종교가 아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다. 세상에 어떤 스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점을 봐주고 부적을 파는가. 적어도 이정도 생각만 했더라면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참다운 신행생활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창민 · 서울 신림동〉

사찰마다 이웃돕기 동참을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구세군 자선냄비도 거리에 나오고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부녀회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 어르신 돕기에 나선다.

불교계에서도 사찰과 복지관들을 중심으로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적지 않게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찰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전 모 복지관에서 열린 송년잔치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받고 선물까지 받았다며 어린 아이처럼 기뻐했던 이웃집 할머니를 보며 '사찰마다 저런 행사를 벌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사찰들도 여력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작은 마음이라도 내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핀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이제는 구세군 자선냄비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길에서 자비함을 들고 모금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

〈박현숙 · 부산 해운대구〉

산타복장 동자승보며 흐뭇

며칠전 우연히 조계사 앞을 지나다가 '아기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보았다. '크리스마스니까 그렇겠지'라고 무심코 지나치다 플래카드 양옆에 산타복장을 한 동자승이 그려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조계사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건 것이었다. 이 플래카드를 보는 순간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 본연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것일수도 있다.

그동안 종교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광적인 개신교 신자에 의해 불상과 단군상이 훼손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었다. 그래서인지 이 플래카드는 이웃 종교와 화합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부처님 오신날에도 성당이나 교회에서 축하해주었던 것을 알고 있다. 서로간의 이해와 사랑이 깃든 작은 실천을 통해 보는 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종교는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 플래카드 덕분에 기분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임종진 · 서울 강북구〉

기고

"전쟁 미화·왜곡 日 우익 인사들 참회 또 참회를"



혜진 스님
(나눔의 집 원장)

지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동경 구단회관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 열렸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의 성노예 전범을 민간의 힘으로 판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였다.

3일간에 걸쳐 남북한과 중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등 여러나라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제출이 이어졌으며 마지막날인 12일에는 판결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회장 밖의 분위기는 너무나 달랐다. 양심있는 일본시민단체의 주도 아래 대회가 치러졌으나 대회장 밖에서는 연일 우익인사들의 집회와 항의가 계속되었다.

마침내 12일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히로히토는 인간의 노예화, 고문, 살인, 인종차별을 비롯한 인륜에 반한 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히로이토 일왕과 일본정부에 유죄를 선언한 것이었다. 순간 대회장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으며 일부 위안부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회장 밖에서는 이날도 역시 "일본군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성기를 통해 외쳐대며 난리를 피웠다. 당시 대회장에는 200여명이 넘는 해외취재진이 취재에 열을 올렸으며 일본 언론에서도 100여명에 가까운 취재진이 눈과 귀를 집중했다. 그러나 그 기사는 이튿날 이 일은 아사히신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문에서 기사화되지 않았다.

대회기간 중 필자는 일본사회의 실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날로 우익화돼가는 일본은, 자신들의 범죄를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헤아리기 보다는 전쟁을 미화하고 왜곡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법정이 민간에 의한 법정이라 사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재판부가 판결한 인도주의적 선언이었다. 일본은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류의 양심이 이끄는 대로 참회하기를 바란다.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2000년 11·12월호 제17호

불교특강 - 21세기의 화두를 불교에 묻는다
업과 윤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최봉수(동국대 사회교육원) 선생의 정확하고도 확실한 설명. 불교교리 중에서 업과 윤회에 대해 적절한 예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한다

2000년 특별기획
디지털 시대의 육바라밀(六波羅蜜) - ⑤ 선정(禪定) · ⑥ 반야(般若)
육바라밀 중에서 선정과 반야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화두선에서의 선정 · 반야(혜거 스님/금강선원 원장)
- 비파사나를 통해 본 선정 · 반야(원담 스님/송광사 선원)
■ 연재를 마치며/이 시대 진정한 육바라밀행은 무엇인가 (김호성/동국대 교수)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 ⑤
-위당(威堂) 신헌(申櫶, 1810 ~ 1884)이 쓴 서울 화계사 '보화루(寶華樓)'의 역사적 의미와 서체의 가치를 살펴본다.

컬러화보 ① . 이호신 화백의 생태그림기행 - 그림 속에서 찾는 山水와 가람의 숨결 - 김천 황악산 직지사

컬러화보 ② . 사진으로 보는 가람의 어제와 오늘 - 선운사와 쌍봉사의 주요 전각들의 신구 사진을 통해 살펴본다

포커스/200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오싱젠과 불교
- 국내 미발표된 그의 불교적 작품, 『영산(靈山)』을 소개한다



좋은 책 읽기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페마 쵸드론 스님의 책 읽기(진우기/KBS, 불교문화센터 강사) - 『하늘이 무너질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불교가 주는 마음의 조언』을 통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결법을 말하고 있다.

최초 발굴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 탐방 ⑤
- 신라 진평왕과 왜의 백제인 스이코 여왕(하)
신라 진평왕대에 동양에서 최초로 여왕에 오른 일본의 백제사람 스이코 여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신라불교와 문화를 만난다

중국 속의 한국불적 / 구산선문의 원류를 찾아서 (마지막회)
- 강서성의 선종관련 한국사찰 답사 ②

인물포커스 근 · 현대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문학편)
① 譯經과 불교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원하 김달진 선생
② 禪을 노래한 청록파 시인, 조지훈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kbpf@chollian.net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1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8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성철(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 최봉수(동국대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 (100명) 주간반 (50명) 통신반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영함판사진 3매	2000년 12월 15일~ 2001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2001년 2월 3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현대불교 1호에서 300호까지

1994년 10월 15일 부처님의 법향을 전하기 시작한 '현대불교'가 2000년 12월 27일자로 지령 300호를 맞았다.

불교언론의 기존 관념과 양식을 깨뜨린 신선한 신문, 불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신행 지침서, 파사현정의 정론지, 시대를 앞서가는 신문, 창간이래 6년 2개월의 길지 않은 세월동안 현대불교신문은 이러한 평가를 받으며 어느덧 21세기 포교주역으로 우뚝 섰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라는 사시(社是)는 이제 한국불교의 당면과제가 됐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계속해온 '현대불교'는 앞으로도 전국 천만 불자들의 대변지 역할과 함께 새로운 시대 비전을 제시하는 제작으로 앞서 갈 것을 다짐한다.

"생활 속에서 法香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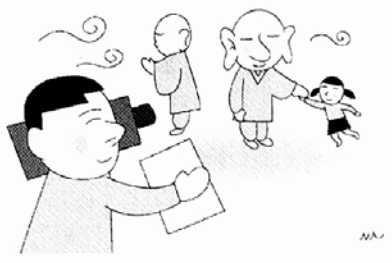
정법 구현



창간부터 현재까지 덕 높으신 스님의 법문과 신심깊은 불자들의 실천행을 통해 부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97년부터는 인권·환경·도덕·윤리 등 각종 사회현상에 돋보기를 들이댔다. 갈수록 혼탁해지고 피폐해져 가는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이렇게 들었다'와 '불자 세상보기'에서 가감없이 드러내고 이 시대에 필요한 부처님 가르침을 제시했다. 새천년을 앞둔 99년에는 지구촌이 겪고 있는 식량·종교·질병·환경·문명전환 등 인류가 당면한 현안들을 부처님 정법으로 풀어본 '불교지상포럼'을 매월 한차례씩 연재하기도 했다. 사회현상을 불교적 시각으로 바라본 '현대불교'의 눈은 독자의 시야를 넓혀놓기에 충분했다.

지난 10월 발생한 '우담바라 파문'은 '현대불교'의 정법구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 사례였다. 이때 '현대불교'는 일부의 그릇된 시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불교계의 '자화상'을 지적하며 정법신행을 촉구함으로써 교계 내외에서 갈채를 받았다.



신행 가이드

불자들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어디든 달려갔다. 300여 직장직능 단체가 소개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고, 보살행이 이어지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현대불교'가 함께 했다. 또 불자들의 진솔한 신행체험담이나 수기를 꾸준히 게재, 귀감이 되게 했다.

특히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직장직능 단체들에 고정지면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현장감 넘치는 소식을 전했으며, 바른 신행생활을 유도하기도 했다.

각 신행단체들의 의식조사, 신행단체의 방향에 대한 좌담 등을 통해 신행의 지표를 모색했는가 하면 때로는 그릇된 신행에 대한 고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계층과 연령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신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켰다.

이같은 생생하고도 폭넓은 보도로 인해 현대불교신문이 '한 번 읽고 마는 신문'에 머물지 않고 '한 주 내내 돌려가며 보는 신문'이 되고 있으며, 이제 올바른 신행생활의 키워드는 '현대불교신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문화 창달



창간부터 전면으로 연재를 시작한 고은 장편소설 '수미산'은 현대불교신문의 불교문화와 예술에 대한 마인드를 짐작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당시 불교소설을 전면으로 연재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현대불교'는 이와 함께 문화·학술·출판에 각 1면씩 고정지면을 배치하고 불교계 뿐만 아니라 일반 문화계 현상을 자세하게 다루는 등 '문화 섹션' 신문으로서의 이미지도 굳혔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산문밖의 선'에서는 서예가, 사진작가, 궁중음식연구가, 만화가, 무용가, 관소리명창, 건축가, 연극배우 등 내노라 하는 불교문화계 명사 150여명이 등장했으며, 121호(97.4.2)부터 시작한 '시방세계'는 영화, 연극, 무용, 전시회, 미술, 도예, 조각, 서예, 연예 등 다루지 않은 분야가 없다.

또한 불화(佛畵)와 기독교의 성화(聖畵)를 비교한 '불화와 성화', 나무·동물·다리 등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와 '가람의 장면들' '백두대간' 같은 연재물은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깊이와 다양성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정론·속보



98, 99년 두 차례의 조계종 사태에서 충실한 사실보도와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론을 고수했다. 또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잇따라 발생한 훼불과 방화사건, 문화재 훼손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빠르고 심층적인 보도로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했다. 사찰수행환경문제를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 문화재관련법, 종교편향, 달라이라마 방한, 장묘제도 등에 대해서도 불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불교의 권익옹호에 앞장섰다.

'현대불교'의 빠르고 생생한 보도는 계속해 이어진 름직한 사회사건에서 빛을 더했다. 95년 6월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던 한국통신 노조가 공권력에 의해 연행돼 가는 장면을 일간지·주간지 통틀어 단독으로 특종보도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 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98년 수해 때는 불교계 단체와 불자들의 활발한 구조 및 구호활동을 생생하면서도 빠르게 전했고, 97년 겨울 IMF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자들의 노력과 각급 단체들의 극복의지를 신속하게 알렸다.

이와 함께 올해 6월1일 교계 최초로 일간 인터넷 신문 붓다 뉴스 닷컴(www.buddhanews.com)을 오픈해 명실상부한 속보체제를 갖췄다.

여론주도



경주고속철·하인골프장·인각사댐·지리산댐 건립 등 정부측과 교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들에서 현대불교신문의 진가는 유감없이 발휘됐다.

4년여를 끌었던 경주고속철 문제는 경주도심 통과 반대여론을 조성하면서 고속철 백지화운동 서명자 명단을 전격을 할애 게재하는 등의 노력으로 정부가 다른 노선으로 결정토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해인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도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기사와 교계 및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을 상세히 전하는 등 골프장 건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을 주도했다. 97년 댐건설 계획으로 수몰위기에 빠졌던 인각사 보존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여론의 승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지리산댐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도로 반대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99년 생명나눔실천회와 공동으로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장묘문화에 새바람을 불어넣었으며, 95년 '신행캠페인'과 99년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캠페인을 통해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신행생활을 제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대중 속에서 숨쉬면서 긴 호흡 가다듬는 언론의 중심 '현대불교'



이창경
신구대 교수
출판 미디어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라는 절실한 문제를 사시로 내걸고 '현대불교'가 창간된 것이 1994년이었다. 300호 간행에 이르는 동안 불교의 홍법과 수행 풍토조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 교계의 활동을 생생하게 보도하는가 하면, 대내외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가운데 전법을 위한 사회활동도 추진해 왔다. 또한 진리에 목마른 현대인에게 산사의 그윽한 향기를 전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현대불교'는 정도를 걷는 불교언론의 대표적 매체로 그 자리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디지털시대, 다매체 경쟁시대로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 '현대불교'는 어떠한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현대사회를 지식정보화사회로 규정하는 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다. 초를 다투어 쏟아지는 뉴스,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한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공해다. 이 경우 수용자는 정보를 기피하거나 불감증에 걸리기도 한다.

오늘의 조직화된 사회현상은 개인의 정신적 압박감과 긴장을 조성하여 비인간화로 치닫게 하고 있다. 인간이 갖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사회 병리적 현상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의 홍수와 인간성의 부재라는 사회구조 속에 종교신문으로서 '현대불교'는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적 위치는 정보 전달이나 여론 형성의 한 차원 높은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병리를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처방과 개인적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신선함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왜 '현대불교'여야 하나

이제는 '왜 현대불교여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오늘의 미디어 산업은 다양화되어 있다. '현대불교'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정보로 지면이 채워질 때 '현대불교'의 정체성도 있게 된다. 일반적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차별화된 전문적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헤럴드 라스웰은 매스 미디어의 기능을 환경 감시의 기능, 사회의 여러 부분을 조정하여 조화 있는 관계를 맺도록 하는 통합의 기능, 사회적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문화전승의 기능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환경 감시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 감시 기능은 여론을 선도하는 기능이다. 불교적 선의식(善意識)과 배치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불교도의 의식을 집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매체를 기다리고 있다. 정의를 위한 침묵과 말없는 동조를 구분할 수 있는 용기있는 매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재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편협한 지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때 홍법을 위한 진정한 구도자로서의 길이 열릴 것이다.

불교가 갖고 있는 정신주의적 성격, 자연과의 친화성 등을 21세기의 유력한 대안사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여타 종교와는 달리 불교의 핵심교의에 어긋나는 것까지 관용과 방편이라는 미명아래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여 명쾌하게 보도하고 전달하는 책무를 가져야 한다.

불교는 사회 중심적 위치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문화관광부의 한 통계에 의하면 2000년 6월 현재 불교계에서 해외에 파송한 포교사는 241명인데, 개신교는 9049명, 천주교는 586명, 원불교는 307명이라고 한다. 우울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내 마음자리 하나 반듯이 닦아 선업 행하면 된다는 생각,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간다는 생각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다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거짓과 위선이 발붙이지 못하고 정의와 진리가 충만된 시방정토를 만들어가는 것, '현대불교'가 이끌어 가면 가능하다.

대중 속에 숨쉬면서 긴 호흡을 가다듬는 사천왕, '현대불교'가 바로 세간으로 뛰쳐나온 사천왕이기를 바란다. 거기에 왜 '현대불교'여야 하는가 하는 해답도 있다.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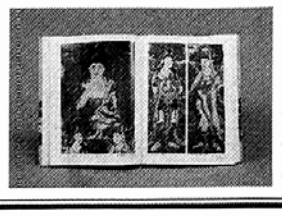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석정 큰스님 –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 조선일보 –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앙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
○ 가격 : 각권 90,000원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합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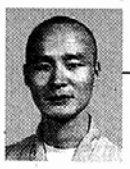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제3권 통도사 말사 편(하)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제8권 직지사 본말사 편(상)
제9권 직지사 본말사 편(하)
제10권 월정사 본말사 편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제12권 선암사 편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제14편 선운사 본말사 편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제17권 법주사 본말사 편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I)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II)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 특별가 200질 한정보급
기간 : 2000년 11월 2일 ~ 12월 31일
보급가 : 1백만원(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승만경 ②

미망 벗으면 누구나 부처

몸 · 생명 · 재산 던져 진리 수호

〈승만경〉의 주제는 일승(一乘) 사상과 여래장 사상이다. 올바른 진리는 곧 대승(大乘)을 말함이며, 대승은 곧 불승(佛乘)이니 여래에 귀의하는 것이 가장 진실하고 수승한 귀의라고 〈승만경〉에서는 천명하고 있다. 승만부인은, 아욕달이라는 커다란 연못으로부터 여덟 개의 큰 강이 흘러나오듯, 대지에 의지하여 일체의 온갖 씨앗이 자라나듯이 대승에서도 성문(聲聞)과 연각(緣覺),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착한 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여래 즉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하고 또 불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승만부인은 여래장에 대해 이렇게 논하고 있다.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죽어 간다. 삶도 죽음도 여래장을 의지처(依支處)로 삼고 있다." 삶은 여러 감각기관이 생겨나는 일이고 죽음은 여러 감각기관이 소멸되는 일이다. 따라서 삶이 되었건 죽음이 되었건 그것은 세상의 표현에 불과하다. 여래장은 생하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는 절대존재(無爲法)의 기반이다. 동시에 미망의 세계존재(有爲法)에 대하여서도 기반이 된다. 이런 여래장이 없으면 사람은 고를 싫어하는 일도 없고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여래장은 본성이며 청정한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역시 본성상 청정하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은 번뇌에 의하여 오염이 되어 있다. 이것은 오직 부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다. 인간의 마음은 번뇌에 의하여 오염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무한한 번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부처만이 있는 그대로를 지견(知見)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승만부인의 설명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승만부인은 또 "여래의 법신이 번뇌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한다"고 설하고 있다. 구름 낀 하늘에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어둠의 먹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다시 그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여래장이란 구름에 가리기도 하고, 구름을 헤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는 해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다.

부처님은 미망을 몰아내고 진리에 눈을 떠서 부처가 되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열기 전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미망에 빠져있는 중생이었다. 그렇다면 미망에 빠져 있는 중생이라고 해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처, 즉 여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것이라면 우리의 미망은 소멸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깨달음을 추구하여 수행을 하는 일도 결국은 열매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승만경〉에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이 승만부인의 "오늘부터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깨뜨리지 않겠다"는 위대한 서원이다. 곧 진리의 수호가 그것이다. 승만부인은 "몸과 생명과 재산을 던져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을 강조한다. 재산은 물론 몸과 목숨까지도 다 버려 진리를 지키겠다는 승만부인의 염원은 경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 강조되고 있다. 부처님과 승만부인의 마지막 대화가, "올바른 진리는 수호하고 나쁜 법에 빠진 사람들은 항복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수호, 올바른 도리의 천명, 그것을 위한 삿된 견해를 쳐부수는 일, 그것은 곧 우리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은 곧 진리의 구현자이고, 또한 대승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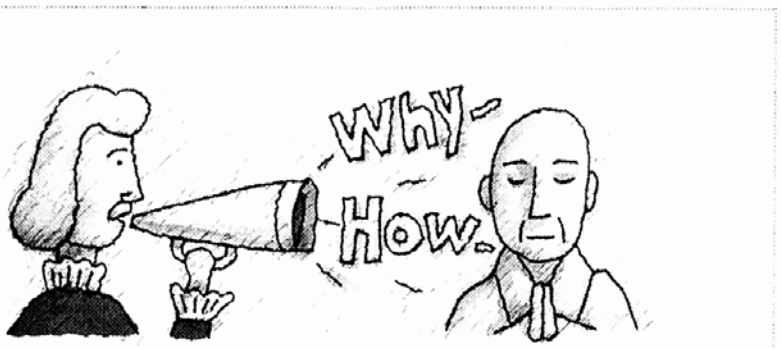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지행합일로 진여실상 보라

불교와 과학 〈12〉

과학 현상만을 '어떻게' 밝혀낼까 고민
불교 '왜' '어떻게' 동시접근해 사물 파악

지동설을 주창한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지구표면의 운동학과 천체의 운동학을 종합한 뉴턴에 이르는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을 일러 근대과학의 혁명이라고 말한다. 이들 과학혁명의 선구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은 당시의 정신적 배경인 기독교와 어떻게 조화를 맞추는가 하는 문제였다. 갈릴레오와 교회의 갈등을 이미 알고 있었던 뉴턴 역시 기독교의 세계관과 천체의 운동구조를 모순 없이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신의 의지가 천체운동에 잠재적인 힘으로 밑에 깔려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기독교적 신의 의지는 천체운동의 원인이 되어야 했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한 것이 뉴턴의 과제였다.

쉽게 이야기해서 행성들이 '왜(why)' 그렇게, 그리고 반드시 꼭 그렇게만 운동하는가를 묻는 질문을 던진 것이 바로 뉴턴이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원초적으로 답변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인간이 신의 의지를 안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뉴턴은 이 질문의 원초적 불가능성을 눈치채었다. 그는 '왜'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how)' 천체가 그렇게 운동하는 가를 결국 밝혔다. 그것은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이었다. 여기서 과학자와 형이상학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형이상학자는 대상 혹은 운동을 가져오게 한 그 무엇에 대한 근원적인 존재와 그로부터 파생된 이유를 묻는다. 반면에 과학자는 근원적인 존재이유가 아니라 대상의 운동에 대한 현상적인 구조를 묻고 그 현상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가 하는 인식의 문제를 다룬다.

지혜 인식론

결국 서구 근대 과학혁명은 인식론의 문제에서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학적 인식론은 당시의 철학적 인식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당시 인식론은 보통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론적 인식론과 로크와 같은 경험론적 인식론으로 나누어 말해지고 있다. 이들 모두 "어떻게 아느냐"가 문제였다. 데카르트 같은 합리론적 인식론자들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힘을 이미 생득적으로 인간이 갖고 태어난다는 생각이었고, 반면에 로크 같은 경험론적 인식론자들은 태어날 때 사람의 마음이 빈 칠판과 같아 그 위에 쓰여지는 대로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졌다.

서구에서 합리론자들은 수학과 같은 형식과학을 잉태시켰으며, 경험론자들은 물리학과 같은 경험과학의 기초를 다졌다. 당연히 이 두 진영 모두는 현상계에 대한 인식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영역을 아뢰야식이라 하여, 진정한 실상(實相)의 지혜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파악하는 자아의 유심(唯心)과 대상의 외부적 자극이 어떻게 감각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성유식론(成唯識論)의 오편행(五遍行)을 통한 유식의 과정은 중요하다. 유식의 과정은 서구 근대 인식론으로 말한다면 주관적 관념론과 비슷하다는 일본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구 인식론과 중요한 차이가 내재되어 있다. 유식론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은 지식을 구하려는 인식의 경험론적 배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찾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지(智)는 대상을 인식할 때, 사물의 실상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최종적 인식을 말한다. 그리고 혜(慧)는 사(邪)된 것과 정(正)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뜻한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의 인식론은 서구의 지식 인식론과 달리 지혜 인식론이라고 말해도 좋다.

앞서 서구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을 구분하는 과학적 인식론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구분은 존재가 무엇이냐는 형이상학적 존재론과 대상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지식 인식론의 차이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교의 인식론은 존재와 인식을 구분하는 서구과학과 달리 기본적으로 지식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연기가 연기에 머물지 않는 존재 혹은 실상에 기대어 있는 인식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의 인식은 서구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왜'와 '어떻게'가 함께 대답되어야 할 난제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난제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구분하는 서구 인식론에서는 난제일 수 있으나, 주체와 대상이 하나로 연결되는 실상의 눈에서는 아주 자연스런 인식의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불교의 인식은 이성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인식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은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 요지는 간단하다. 첫째 양명학에서도 자주 말하는 지행합일의 자세가 인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진여 실상의 세계가 따로 저 먼 하늘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 속에 있다는 점이다.

▣ 최종덕 / 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연기법 · 무소유 정신 지구 살리는 열쇠"

지구촌 불교 / 네팔 환경대회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세계 종교계가 나섰다. 33개국 11개 종교의 지도자들이 지난달 27일 네팔 카투만두의 인근 마을인 박타푸르에서 '살아있는 지구를 위한 성스러운 선물'을 주제로 환경대회를 열고 성전을 선언했다.

박타푸르 마을 사람들이 공연한 불교 의식과 초키 닝마 린포체(Chokyi Nyima Rinpoche, 네팔 불교지도자)의 기조 강연에 이어 3일간 계속된 이 대회에서, 각국의 종교지도자들은 무분별한 벌목, 해양 생태계 파괴, 기온 변화 등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지구를 보호하는 일에 종교의 차이를 넘어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불교 의식으로 진행된 환경대회 개막행사 모습.

초키 닝마 린포체는 기조 강연에서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에 충실한다면 이웃에 대한 무관심, 환경 파괴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욕망을 줄이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증득함으로써 서로를 괴롭히는 무지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의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국의 종교지도자들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벌목을 막고, 사냥꾼의 표적이 되고 있는 몽골의 흰색 표범을 보호하는 것에서, 티베트의 라다크와 같이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과 식량 및 물의 부족에 따른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26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지구상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환경과 천연 자원 기반이 놀라운 속도로 악화일로에 있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원절약 · 생태계 보호 나서자"
11개 종교 지도자 '성전' 선언

종교지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며 채택한 공동 선언에 따르면, 지구 환경을 특히 압박하는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로 팽배해진 이기심과 무관심. 이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의 수행에서 삶의 모델을 가져온다면 해결이 가능하다"며 "세계 종교계는 공동 관심과 동반자 정신 및 연대감에 입각해 종교간 협력을 긴급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언은 이밖에도 지속적인 개발과 생물자원의 고갈, 가뭄과 사막화, 무분별한 삼림훼손 및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유독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세계야생기금재단의 클라우드 마틴 이사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와 기술에만 매달려 왔지만, 결국 인간의 생각과 삶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종교지도자들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입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101 - 교리 · 입문편	102 - 교리 · 입문편	201 - 생활불교편	202 - 생활불교편	301 - 선(禪)편	302 - 선(禪)편	303 - 선(禪)편	401 - 문학편	501 - 문화 · 학술편	502 - 문화 · 학술편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계율'을 통해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허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법수로 배우는 불교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제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참선요지 (參禪要旨)	방편개시 (方便開示)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허공의 딸꾹질	불성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 값 5,500원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초펠 스님 편역,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혜능 스님 엮음, B6 변형 330쪽,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6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 값 5,500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6쪽, 값 6,000원	이중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 5,000원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김중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모과차



◇대추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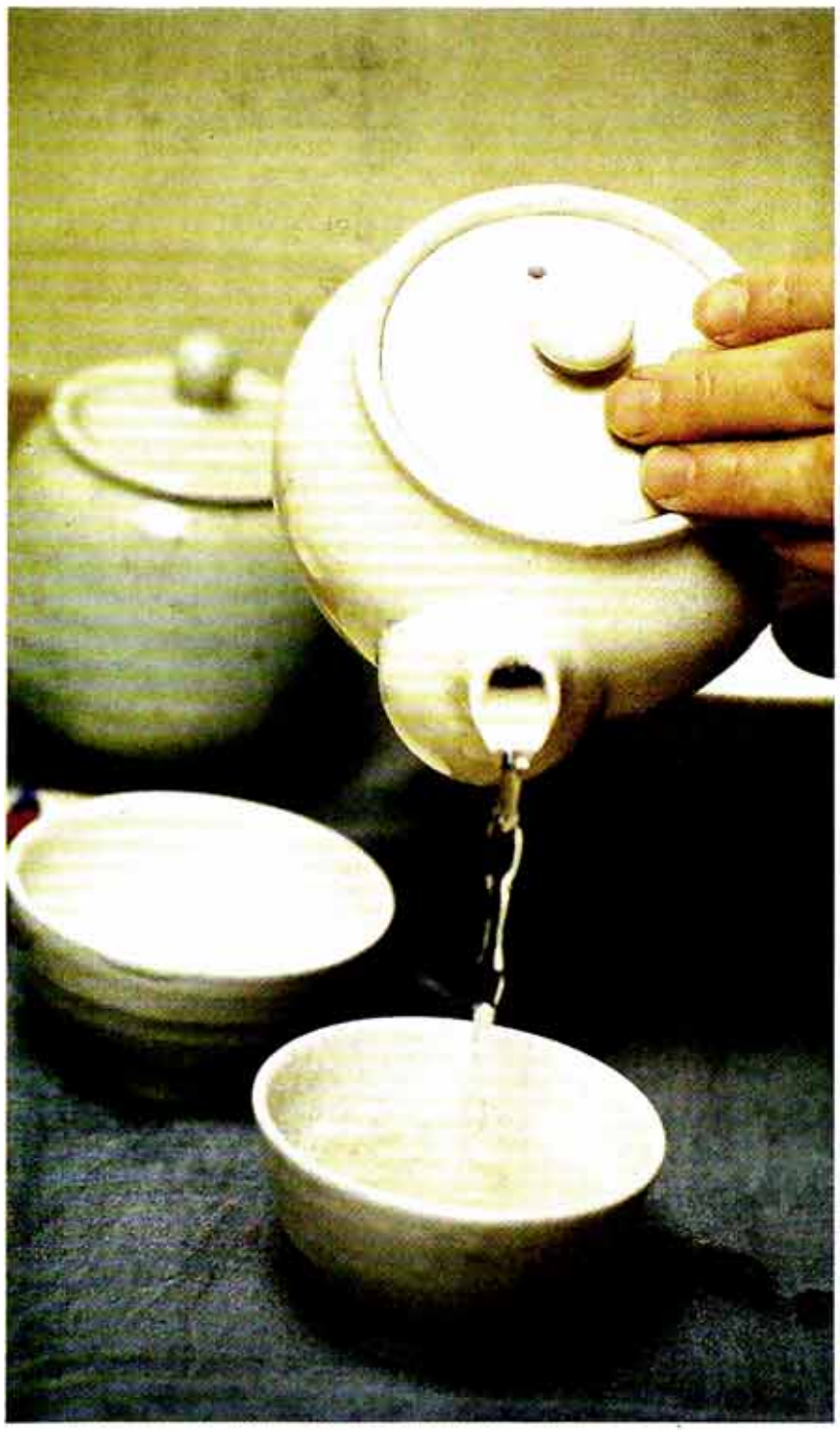


◇유자차



◇구기자차

한방차 한 잔 원기 돋우고 속까지 따뜻 '추위야 물럿거라'



녹차-속 편안하게 머리맑게
구기자차-해열과 피로회복
오미자차-혈당 내려주는 효과
모과차-신경통·요통에 좋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녹차는 양생의 선약"이라고 했으며 "부작용이 없고 혈압을 내리고 소화를 도우며, 이뇨작용과 가래를 삭이는 작용이 뛰어나고, 갈증을 없애며 뱃속을 편안하게 하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기운이 상쾌해지고, 술을 깨게 하며 식중독을 풀어주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며 기생충을 없애준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 차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이 같은 연구에 따르면 차를 마시면 유방암이나 결장암, 췌장암 등에 걸릴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차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인체 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을 죽이는 살균효과가 탁월하고 술 담배의 해독,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는 특히 겨울철 감기예방에 좋다. 차에는 레몬에 비해 5~8배나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는데, 비타민 C는 피로 회복 효과가 뛰어나다. 차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두통을 줄여 주며 이뇨작용을 원활히 하여 감기를 예방하거나 물리치는 작용을 한다. 카테킨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어서 감기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카테킨 성분은 또 지방 분해 효소의 작용을 강화하므로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는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다. 혈압 및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차는 원래 '차나무의 잎을 따서 만든 마실거리'를 일컫는 말이다. 차나무의 잎이 아닌 것을 재료로 해서 마실거리를 만들었을 때는 대용차라 부르는데, 지금은 이들 모두를 차라 부르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다산 정약용은 이를 두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약물 등을 달여 마시는 따위를 차라고 하나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커피를 일러 '커피차'라 하지 않듯이 생강차, 모과차, 뽕차, 오미자차 등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명명이라는 것이다. 대용차는 차문화가 쇠퇴하기 시작한 조선 중엽 이후에 널리 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한방차라 부른다.

한방차는 질병 예방 및 치료의 주된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건강에 이점이 많다. 추운 날씨로 혈관까지 수축되기 쉽고, 바깥 활동이 적어 실내에서 주로 지내기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무릎 등 관절이 시리거나 근육경련이 일어나는 신체 이상을 전통 한방차가 어느 정도 바로잡아 줄 수 있다.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몸에 좋은 한방차의 효능과 만드는 법을 간단히 알아보자.

녹차=물에 따라 색깔, 향기, 맛에 차이가 있는데 차를 우려내는 데 쓰이는 물은 돌 틈에서 솟아나는 석간수를 으뜸으로 친다. 가정에서 일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하룻밤 정도 재워서 쓰면 좋다. 뜨거운 물로 차를 끓이면 떫은 맛 성분이 빨리 우러나 차 맛이 떫어지므로 낮은 온도(70°C 정도)의 물로 천천히 우려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구기자차=옛부터 불로장수약으로 알려졌으며 해열, 기침 방지는 물론 피로회복에도 좋다.

〈재료〉구기자, 〈만드는 법〉열매는 찬물에 씻은 다음 물을 넣어 30분 정도 끓여 진한 자주빛깔이 우러나면 취향에 따라 설탕이나 꿀을 타서 마신다. 생강이나 대추, 영지를 함께 넣어 끓여도 독특한 맛이 있다.

오미자차=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쓴맛을 모두 가지고 있어 오미자라 한다. 그중 신맛과 단맛이 가장 두드러진다. 인체내 혈액 중의 혈당치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으로 늘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장기복용하는 것이 좋다.

〈재료〉오미자, 〈만드는 법〉오미자를 씻은 다음 주전자에 물과 함께 넣고 끓이는데 끓자마자 바로 불을 끈다. 지나치게 끓이면 떫은맛이 나므로 주의한다.

모과차=신경통, 요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좋다. 무릎이 차거나 근육에 경련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 해소 천식 및 감기,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겨울철 목감기에 좋다.

〈재료〉모과, 설탕, 〈만드는 법〉깨끗이 씻은 후 십자로 갈라 씨를 발라낸 다음 2~3mm두께로 얇게 썰어 설탕이나 꿀에 재어둔다. 2~3일 지나 노란즙이 우러나면 컵에 모과 1~2조각과 즙을 조금 담은 후 펄펄 끓인 물을 부어 5분 정도 우려낸 후 마신다. 잣을 두어 개 띄워도 운치가 있다.

칡차=감기 치료와 예방에 좋으며 중년기 이후에 오는 견비통(어깨와 팔의 통증)에도 효과적이다. 이뇨작용이 탁월하고 숙취를 풀어주기 때문에 음주 후에 특히 좋다.

〈재료〉갈근(말린것), 설탕, 〈만드는 법〉준비한 갈근을 깨끗하게 씻는다. 갈근과 물을 붓고 끓인다. 갈근이 우러나면 찻잔에 따르고 설탕이나 꿀을 타서 마신다.

대추차=신경과민이나 저혈압, 우울증에 좋다.

〈재료〉대추, 은행, 잣, 꿀, 〈만드는 법〉잘 익은 대추를 햇빛에 말려 깨끗이 씻은 뒤 찬물을 붓고 끓인다. 1시간 정도 약한 불로 우려내고 대추, 잣을 띄운다. 대추씨에는 수면 효과가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 사람은 미리 씨를 제거하고 차를 끓이면 된다. 대추를 삶아서 으깨어 보관했다가 물에 풀어서 마셔도 된다.

유자차=소화불량, 감기에 좋다.

〈재료〉유자, 설탕, 〈만드는 법〉신선한 유자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얇게 썬다. 유자에 설탕을 켜켜이 뿌려 3주 정도 재워두면 유자청이 된다. 시원한 곳에 보관하며 차를 마실 때마다 1숟갈씩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전통 한방차는 인스턴트식으로 상품화된 것도 많지만 한약재상 등에서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구할 수 있다.

전통 한방차는 끓이는 방법도 인스턴트 차와는 다르다. 대부분 한방차는 처음부터 물과 재료를 함께 넣고 충분히 끓여야 고유의 향과 맛을 잘 우려내고 효능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단, 한번 끓인 것을 두세 번 끓이거나 이틀 이상 두고 마시면 맛과 향은 물론 효능이 떨어지므로 조금씩 자주 계속 끓여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아주 흔한 일을 일러 다반사(茶飯事)라 하듯이 우리 조상들은 늘 차를 가까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찰을 중심으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며 새로운 차문화를 일구어가고 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검은약콩죽

"스님! 스님!" 마음이 급한 큰 절의 주지는 방문을 덜컹 열고 말았다. 방안은 언제 불을 넣었는지 냉골이었다. 그제야 그 방에 있던 스님은 실낱같은 눈을 뜨면서 고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스님, 걱정이 돼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적심 스님, 이 사람이 단재 신채호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위임통치 시건을 비롯, 임정 요인들 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많은 실망과 상처를 안고 조국으로 향해야만 했다. 그 길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주머니에는 노자 한닢도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조선족을 찾아서 걸정콩 한 되를 얻어 마지막으로 작별의 죽을 함께 끓여먹은 뒤 아내와 아들은 조국으로 돌려보내야만 했다. 신채호 선생으로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로서 어찌 쌀밥 한 그릇을 먹이고 싶지 않았겠는가. 콩죽을 넘기는 선생의 목이 메었다. 선생은 흥안령 자락 관음사에서 벌써 16개월 째 〈조선상고사〉를 집필하고 첫째 권 조선통사, 둘째 권 문화편, 셋째 권 사상편, 넷째 권 감역고, 다섯째 권은 인물고를 끝냈다.

"적심 스님, 스님이 되었으면 경전을 읽어 부처님 법을 깨쳐야 되지 않소? 어찌 당신은 역사책만 쓴단 말이오." "조선 사람이 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데 나 혼자 아무리 고원한 명상에 이르면 무엇하겠소.

설사 내가 해탈을 한다 해도 나처럼 민족혼을 담을 역사책을 정리하는 것이라오." "자, 적심 스님, 콩죽이 식겠소. 콩죽이 조선사람 마음이라고 해서 콩죽을 끓여봤어요."

경제도 안 좋고 실직자도 많은 연말에 우리 모두 적심 스님이 되어 조국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은 콩죽이 어떨까요.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눈 맑게 하고 소갈병 치료도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검은콩 60g, 현미찹쌀 100g, 흑설탕 적당량

요리법 ① 검은콩을 깨끗이 씻어 하룻밤 불려놓는다.

② 검은콩에 적당량의 물을 붓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인다.

③ 검은콩이 다 익을 무렵 현미찹쌀을 넣고 콩이 퍼지도록 계속 끓인 뒤 흑설탕을 넣고 먹는다.

효능 ① 밤에 땀을 흘리거나 몸이 허약할 때, 요통과 이명 또는 소갈병을 치료한다.

② 간을 보양하고 간혈(肝血)이 허약해서 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세를 치료한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⑬

一宿覺云 寂寂謂不念外境善惡等事
일숙각운 적적위불념외경선악등사
惺惺謂不生昏住無記等相
성성위불생혼주무기등상
若寂寂不惺惺 此乃昏住 惺惺不寂寂
약적적불성성 차내혼주 성성불적적
此乃緣慮 不寂寂不惺惺
차내연려 불적적불성성
此乃非但緣慮 亦乃入昏而住
차내비단연려 역내입혼이주
亦寂寂亦惺惺 非唯歷歷 兼復寂寂
역적적역성성 비우역력 겸부적적
此乃還源之妙性也
차내환원지묘성야
차내환원지묘성야

일숙각이 '고요함이란 외부의 선악 등을 생각하지 않음이요, 깨어있음은 혼미한 마음을 막는 것이다. 만약 고요함만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도 혼미함이요, 깨어있되 고요하지 않으면 그것도 세속의 생각일 뿐이며, 고요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으면 그것은 세속 생각일뿐 아니라 혼미에 빠지는 것이다. 고요하고 깨어있으면 그것은 또렷이 밝을 뿐만 아니라 겸하여 고요함이니, 이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묘한 성품이다' 하였다.

十疑論註云 無念者 卽是眞如三昧
십의론주운 무념자 즉시진여삼매
直須惺惺寂寂 不起攀緣 實相相應
직수성성적적 불기반연 실상상응
先德云 凡夫有念有知
선덕운 범부유념유지
二乘無念無知 諸佛無念而知
이승무념무지 제불무념이지
如上言教 是修心人 定慧等持
여상언교 시수심인 정혜등지
明見佛性之妙門也 有智之人
명견불성지묘문야 유지지인
切須審詳
절수심상
豈可徒標大意 而便棄修行耶
기가도표대의 이편기수행야

〈십의론주〉에는 '무념(無念)이 바로 진여삼매이다. 고요하고 깨어있어야 반연을 일으키지 않아 실상과 서로 응한다' 하였고, 또 옛스님은 '범부는 생각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이승(二乘)은 생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며, 부처님은 생각이 없이 안다' 고 하였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마음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져서 불성을 밝게 보는 묘문(妙門)이 되는 것이다. 지혜있는 사람은 세밀히 살펴야 하는데 어찌서 대의만 표방하고 수행을 버려서야 되겠는가."

問曰諸佛妙道 深曠難思
문왈제불묘도 심광난사
今只令未世衆生 觀照自心 而希佛道
금지영말세중생 관조자심 이희불도
自非上根 未免疑謗 予笑曰前來問意
자비상근 미면의방 여소왈전래문의
何爲自高 此問何爲自卑 且莫草草
하위자고 차문하위자비 차막초초
吾語汝 馬鳴菩薩 撮要百本大乘經典
오어여 마명보살 촬요백본대승경전
造起信論 直標云 所言法者
조기신론 직표운 소연법자
謂衆生心 是心卽攝一切世間
위중생심 시심즉섭일체세간
出世間法 依於此心 顯示摩訶衍義
출세간법 의어차심 현시마하연의
蓋恐衆生 不知自心 靈妙自在
개공중생 부지자심 영묘자재
向外求道耳
향외구도이

물었다. "부처님의 심오한 도는 깊고 넓어 생각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세 중생들에게 자기 마음을 관조하여 불도를 이루게 하니, 그가 높은 근기가 아니고는 의심하고 비방할 것이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전에 물은 뜻은 그리도 높더니 지금 묻는 것은 왜 비속한가? 너무 경솔하지 말라. 그대에게 말하리라. 마명보살은 백 권의 대승경전을 추려서 〈기신론〉을 지었는데 그 벽두에 '법이란 것은 중생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세간과 세간을 벗어난 법을 포섭하였으므로 이 마음에 의해 마하의 큰 뜻을 나타낸다' 하였다. 이는 중생이 제 마음이 신령스럽고 자재함을 알지 못하고 밖에서 도를 찾을까봐 걱정해서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법이란 것은 중생의 마음인데 중생은 밖에서 도 찾으려 한다

큰 스님과의 대화

우룡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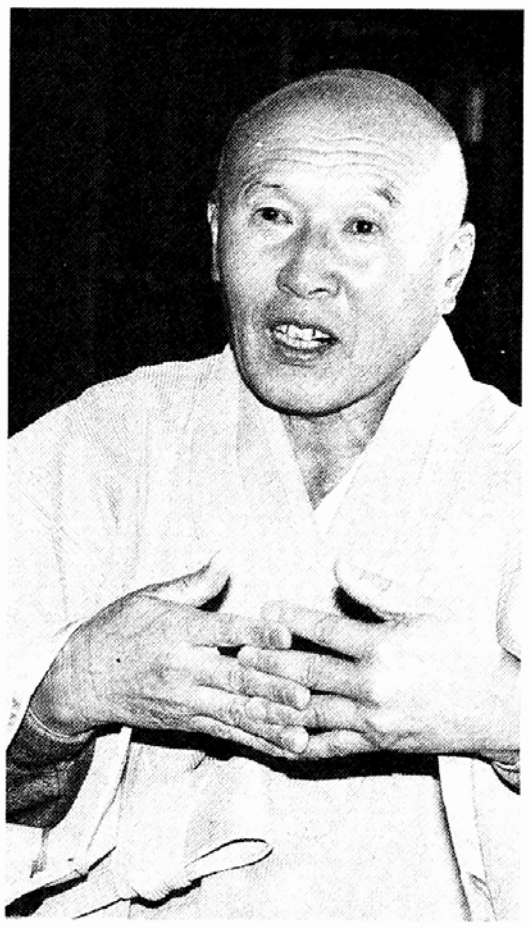
울산 학성선원 조실

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돌고 돌아 도착한 경주 함월사(含月寺). 나무들이 오밀조밀 숲을 이룬 삼릉숲을 지나니 숨어있다 자취를 드러낸 듯 함월사가 나타났다. 길을 찾아 헤매던, 조금은 짜증스런 마음은 어디 가고 반가운 마음에 금새 기분이 풀어져 아래채에 있는 진돗개를 어루만지며 여유도 부려보았다. 찾지 못했을 뿐 본래 있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겠지 하는 깨달음을 추스르며 우룡(雨龍)스님을 뵈었다.

한해를 마감하고 또 한해를 새로 맞게 되는 이 시점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나날들과 현재의 자신을 돌이켜 보게된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어선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보다는 아쉽고 참회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우룡스님께서는 불자들은 언제나 참회발원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발전이 있다고 강조하셨다.

달을 품었다는 뜻의 함월사. 달을 삼키면 너무 어둡고 달을 토하면 또 너무 밝으니 달을 삼키지도 토하지도 않고 머금고 있다는 뜻이다. 스님께서는 달을 머금은 듯 들이고 냄이 자유롭게 생활 속에서 알뜰하게 실천해 나갈 때 한해 살림살이 넉넉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셨다.

"참회하고 실천하면 복밭"



- 1932년 일본서 출생
- 47년 해인사 고봉스님을 은사로 출가
- 55년 동산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지
- 63년 김천 청암사 불교연구원 전강을 시작으로 화엄사 법주사 범어사 강원 강사 역임.
- 수덕사 능인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쌍계사 서방장, 통도사 극락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
- 현재 울산 학성선원에 주석
- 저서에 〈불교신행의 주춧돌〉〈영가천도〉 등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고 진실로 참회해야 할 일도 많은데요.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일러주십시오.

▲옛 어른들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 해가 바뀐 것 같지만 쳐다보아라, 하늘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하는 말로 시작과 끝을 나누는 어리석음을 경책했어요. 한해 마무리니 뭐니 하는 것을 모두 망념이라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히 두 조각이 난 것 같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일 매일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달이 넘어갔느니, 일년이 갔느니 하는 얘기가 부질없는 것이죠.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일도 미루고 넘어간 일은 자꾸 되새기며 망상속에서 허우적거려요. 불교인에게는 운명학이든지 숙명론이 해당이 안돼요. 불교는 언제나 현재뿐이고 현재에 충실하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잘못되어 30%의 결실밖에 못 얻을 것이었다고 해도 노력에 따라 70~80%까지 보충을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현재에 게으름을 피우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원인이 잘못되었더라도 현재의 노력으로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원인이 아무리 좋더라도 현재의 내 실수로 결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살아오는 동안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저지른 잘못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나온 시간들을 참회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요?

▲그것도 역시 현재를 잘 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다해도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지난 시간을 참회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내 앞에 오는 것을 여실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 수용하고 긍정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회는 단 한번에 뚝딱 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 한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듯이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내가 10년 잘못했으면 10년이 걸리든 11년이 걸리든 원점을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10년을 실수 해놓고 한 번에 풀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우주의 섭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씨앗을 가꾸어도 그 결실을 얻으려면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하는데 오랜 실수나 잘못을 젊 몇 번이나 기도 몇 번에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우주섭리에도 맞지않는, '욕심'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원인을 살펴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가려는 철저한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참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불 잘하셔야 합니다. 예불 잘해야 된다고 하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상이나 부처님 그림 앞에 와서 절을 해야 되거나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사이에서 하는 참회나 예불이 진실한 예불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돌아가신 대로 기도를 해드리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부모님 계신 곳을 보면서 '아버지, 잘못한 것 참회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 순탄하소서' 하고 항상 예불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향해, 아내는 남편을 향해, 부모는 자식을 향해 그렇게 간절하게 참회하고 예불드리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공덕이 됩니다. 나는 가끔 극단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법당에 와서는 무릎을 안 꿇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남편, 자식, 며느리에게 무릎을 구부리고 절을 해라. 그것 이상 간절한 예불은 없고 그 이상 간절한 참회는 없다고 말입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많은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어렵게만 여기고 실천하지 않는 누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스럽게도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가 유식하고 큰스님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요. 무언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스님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신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 실천이라야 되는데 한국불교도가 가장 모자라는 것이 실천이잖아요. 그러니 설 자리를 자꾸 잃어 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말로만 대승불교, 대승불교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불교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실천을 하려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이라는 놈부터 알아야 됩니다. 단적으로 빛깔도 없고 모양도 빛도 냄새도 없는 게 부처입니다. 눈꺼풀에 걸리지 않는 여기에 무서운 기운이 있거든요. 화산이 폭발하는 기운, 태풍이 모든 걸 쓸어버리는 기운, 불이 모든 걸 태워버리는 기운, 물이 모든 걸 자취도 쓸어버리는 기운이 빛깔도 모양도 냄새도 없는 속에 있어요.

2001년 1월 1일 개 원 (서울)

마음을 길들이는 집, 마음 다스리는 곳.
위빠싸나 (여래선) 신문 수행처.

근본불교 진흥원 여래선원
Buddhapia Meditation Center
서울 · 강남구 신사동 511-5 02)512-4422
대구 · 수성구 범어동 292-15 053)744-9009
미얀마 · Seikantha New Dagon Yangon Myanmar
95-01-70-3877

法山 붓다피아(Buddhapya)스님 직접지도

▷ 참고 저서 -
위빠싸나 33일 (우리출판사)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민족사)
빈손도 내려 놔라 (출판예정)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제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잠신만을 의지하여 쉼 없이 정진하라!
(붓다의 마지막 유훈)

서울	에비기초반	매주 화, 목 - 오전 11:00~12:20
	일반수행반	매주 월, 수, 금 - 오전 10:30~12:30, 오후 7:30~9:30
	주말정진반	매주 토, 일 - 오전 10:30~12:30
대구	일반수행반	매주 화, 목 - 오후 7:00~9:30
	철야정진반	매월 세 번째 토요일 - 오후 8:00~익일 03:30

■ 수행일정표
서울 (禪院)의 숲日은 금강경과 아함경(원시경전의 계승집)을 강설함
■ 선원 오는 길
서울 센터 : 신사역 6번 출구 전방 120M에서 우측 60M 귀
대구 센터 : 수성구청에서 남부 정류장 쪽으로 80M에서 우측 500M 귀
미얀마 센터 : 양곤의 신도시 닝양곤에 위치 (직접 문의)
■ 여래선원(대구)
선우회 회장(입승) 無我 한승세
부회장 飛散 · 이영태 부회장 功德華 한정숙
총 무 東安 정호엽 기 획 度綠草 이정헌
총 무 度綠華 조은수 재 무 甘露華 오인숙
포 교 菩提華 오인순

제1회 3천 3백 3십 3배 특별정진

"큰 업장 108 번뇌 즉시 녹이고
큰 소원 한가지는 필히 이뤄라"

소리산 출세봉, 해탈봉, 반야봉, 피안봉의 신령스런 길상지 수행전문도량에서 환희심으로 가슴벅찬 감동을 체험하시고 부처님 밝은 빛으로 방광하심의 가피를 입게됩니다.

■ 정진내용
1회 (3배+108배)+(3배+108배)+(3배+108배)
= 333배 (45분+5분 축원기도+10분 휴식)
~10회+3배 = 3333배
※ 절을 못하시는 분은 부처님 크신은히 고맙습니다. 를
·절 한번에 3회 염송하시게 됩니다.
■ 준 비 물 공양미, 기도포, 세면도구
■ 일 시 2000. 12. 30
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아침 7시
※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스님의 지도하에 일괄적으로 절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6736(팩스겸용)
▣ 오시는길
⊙ 서울 상봉터미널~모곡행 버스 종점 하차. 전화 요
⊙ 서울 대명관광 [02) 538-7300] 홍천 대명스키장 하차. 전화 요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류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튜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튜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료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 1-제 3단계, 3일정도 소요.
교 육 비 : 전수요금 70만원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물없이 씹어 먹을 수 있는 최고급 자연식 식사 / 生 - 선식

火食百食而不 Good · 生 - 禪食
(화식백번을 먹는것이 생선식 한번 먹는 것 보다 못하다)

'생' 선식 하나로
비만 피부 체질 피로 기운 면역력 혈액순환
쏙쏙 재생 싹싹 회복 쑥쑥 상승 원활
건강 O.K

특허상표 출원번호 2000-40253
특허상호 출원번호 2000-21890

옛비법의 전통선식 전문 상 기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전 화 080-737-0044
소비자상담실 02-723-4463-4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경흥스님



가을의 바람은 쓸쓸하기만 했을 뿐이었다. 한때 길가 보도블록 위에서 철모르고 나뒹구는 낙엽들을 치워버려야 겠다는 생각에 온몸으로 밀어붙여도 보았지만 급기야 힘에 겨워 더욱 흐뜨려 놓았을 뿐이다. 뭇 사람들의 발밑에 깔려 아우성하며 바스라져 가는 낙엽들을 볼 적마다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워 스치는 사람들의 외투깃을 실없이 세워주고, 흩날리는 머리칼의 향내만 좇다 이것이 낭만이라고 그저 자신을 위무해 버리곤 말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겨울의 바람은 매서웠다. 부딪치는 사람들의 지위고하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사정없이 귓볼을 후려쳐 움추려들게 하거나 양지쪽 한켠에 쪼르르 모여 숨어든 낙엽조각들과 생활의 파편들 마저 인정없이 휘몰아쳐 쓸어버리는 비정함을 가지고 있다. 만약 사람들의 마음에도 바람이라는 것이 있다면 전자는 일반 중생의 바람과 비슷할 것이요, 후자는 출가사문의 바람과 흡사할 것이리라.

마음은 항상 절에 있고 싶다고 해도 몸은 여전히 생활의 굴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저 신앙생활의 한 조각만을 움켜쥐고서도 만족해 하는 중생심의 마음이 가을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이 길이다 싶으면 우직하게 그대로 사정

누비옷 한 벌 사철 지내

불이익 감수하며 의지대로

없이 밀어붙이고 마는, 어쩌면 조그만 방일의 자비심조차 허용치 않는 출가사문의 마음이 겨울바람과 같으리라.

옛날 노스님들께서 가장 경계하며 가르치신 말씀중의 하나가 "출가의 인연이 지중하여 스님 몸 받기도 어렵지만 더욱 더 어려운 출가는 은사출가이니라"며 마음이 한곳에 놓여 버림을 경계하셨다. 모든 것을 떨치고 이미 출가하였지만 기실 승가에는 또 하나의 굴레가 씌워져 있는데 그것이 은사와 사형 사제 등으로 엮어진 문중의식이다. 작금의 교계가 안고 있는 큰 맹점중 하나가 문중이란 굴레속에 매여져 더 큰 출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두를 버리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당장 거처가 확실치 않아 여기저기 부대끼다 짐 하나 풀 곳 없이 운수행각을 해야만 한다. 물론 선방이나 기도스님처럼 일정기간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있겠지만 해제철 짐풀 곳 없이 헤매는 처지거나 그런 근기마저 없이 동가식서가숙 하는 경우에는 현실이 서글프게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문중의 출가가 그저 마음먹듯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내가 처음 봉은사에 방부 들였을 때 경흥스님은 전 소임자였었다. 사중의 분위기가 뒤숭숭하여 약간은 어색한 만남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산적같은 수염이 까칠하게 자라 텁수룩한 얼굴의 그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서울생활이 처음인 나를 이것저것 챙겨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흰 이빨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을 때적이 당황했었다. 곧고 무뚝뚝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언어 또한 매우 직설적이어서 여간해서 쉽게 어울릴 수 없을 것이란 선입견이 작용한 탓이리라. 어쩌다 한번씩 나누는 찻잔속에서 마치 오랜 도반처럼 신뢰가 쌓여갈 무렵, "왜 사시사철 흰 누비옷만 입고 다니냐?"는 나의 물음에 "중이 누비옷 한 벌이면 되지 뭘 더 바라겠냐"며 환히 웃어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았었다. 어느 밤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경흥스님 친구라는 신부님 한 분이 찾아왔다. 밤늦도록 차를 마시며 개구쟁이 마냥 장난을 치며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님과 신부님'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풍경속에서도 썩 잘 어울린다 라는 느낌을 가졌다.

원체 격이 없는 스님이었기에 인기가 좋았으며 누구와도 잘 어울렸다. 또 멋을 아는 스님이었기에 험한 그의 입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그러나 경흥스님에게는 진실로 맵고 날카로운



성품이 있다. 살없이 웃는 듯 하지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겨울 삭풍같은 매서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때 그 스님의 사형에게 일이 생겨 간곡한 부탁과 부름이 있었는데 결코 응하지 않고 겨울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던 날 짐 싸들고 바람처럼 떠나버렸던 적도 있다. 그 이후 사형스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철새처럼 떠들더니 지금은 어느 선방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에게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은사나 문중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일은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다.

모름지기 스님은 맺고 끊음이 분명한 자유로운 바람이어야 한다는 어느 선배스님의 말처럼 은사나 문중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감 또한 진정한 스님의 멋이 아니겠는가.

오늘처럼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면 경흥스님의 걸쭉한 입담과 차 한잔이 그리워 진다. 매서운 겨울 바람을 닮은 스님의 성품이 그리워서일까.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

해야 할 일 미루고

지난 일 되새기니

망상 속에서 허우적

지금 노력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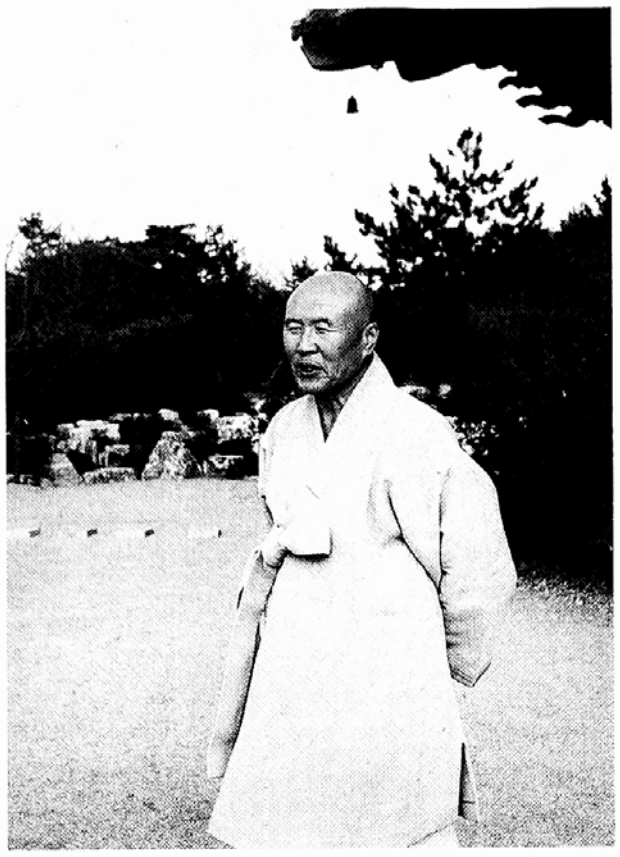
"

이 기운을 밝게 바르게 참되게 쓸 때에는 대 우주의 무한의 지혜와 복과 긍과 덕이 모두 나에게 오게 되어 있고 이것 잘못쓰면 이상한 결과가 내 발등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부처라고 하고 그 기운이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을 하려고 해요. 물질계와 정신계가 분열이 되고 조각이 난 것 같지만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정신계를 무시하고 부정하려고 하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면 내 마음도 부정을 해야 하는데 내 마음은 부정할 길이 없죠. 일상 생활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눈꺼풀에 안 걸리는 마음이라는 그게 먼저 꿈틀거리고 움직인 다음에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지. 마음이라는 것이 꿈틀거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루어진 다음, 뒷꼬리만 자꾸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러지 그 원점인 마음 꿈틀거리는 것을 단속하고 다스리는 것은 소홀히 해요.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을 잡고 가지말고 원점을 잘 단속하고 다스려 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눈의 눈꺼풀에 비치지 않는 마음이라는 세계의 꿈틀거림, 움직일 그것이 복을 짓고 재앙을 만들고 고든 게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이 움직인 다음에 따라가는 몸뚱이나 행동은 뒷전이라는 걸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점이 꿈틀거리는 것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든 단체든 내 개인부터 내 마음 꿈틀거리는 것 단속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사정도 어렵고 정치도 안정되지 못해서 사람들은 더욱 살기가 각박하다고들 합니다. 나라 안팎의 여러 난제들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나부터 고쳐 나가야지요. 개개인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누가 하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되고 남의 일 건너다보듯이 해서도 안됩니다. 건너다보지 말아라, 건너다보니까 속는다 이말입니다. 눈으로 저쪽을 건너다보니까 저쪽에 속고 귀로 들려오는 것에 속고 피부에 닿아 오는 것에 속는다 말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래요. 건너다보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모두 이러한 원인에서 출발합니다. 기업하는 이들도 그렇고 국가일 하는 이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게 건너다보면서 남탓만을 하면서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인식했다면 당장 고쳐야 합니다. 고통이 따르고 힘이 들어도 고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느냐 하면 그 대답은 당연히 나부터 입니다. 나부터 손을 대야 합니다. 괴롭고 아프더라도 나부터 손을 대어서 대수술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흔히 공(空)과 무(無)를 이야기합니다. 답답하거든 비워라, 놓아버려라 하고 많이 이야기 하지만 어떻게 하면 비워지고 놓아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비우거나 놓을려고 하면 내가 저지르지 않는 것은 내게 오지 않는다는 철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짜증을 부렸으니 짜증이 오는 것이고 내가 신경질을 내 보냈으니 신경질이 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은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 대우주의 법칙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우기 위해서나 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해요. 받아들인다는 말속에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거울이 물건 비추듯이 붉은 것이 오면 붉은 것대로 노란 것은 노란 것대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나갔으니 들어오게 되어 있고 들어온 것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살펴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가려는 철저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우룡스님.

"뿌리지 않으면 내게 오지 않아요 결과에 순응하고 긍정적 사고를"

불교에서 공이나 무를 아주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콩 심는데 콩 나는 것, 이것이 공입니다. 공의 도리를 바르게 알면 현실을 회피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에 겪고 있는 고통이 내가 언젠가 저질러 놓았던 것이 다시 내게 온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더욱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대우주가 구성된 시간이 내가 태어난 시간하고 다르죠. 우리는 한 토막만 쳐다보는데 대우주의 섭리를 봤을 때는 몇 백번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대우주는 몇 억만년 가는데 기껏 해봐야 백년밖에 살지 않는 우리가 앞의 일 못 쳐다 봤다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었다 라고 가정할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부모, 옆사람에게 잘한 게 많은가 잘못이 많은가를 냉정하게 돌이켜 보아서 내 몸뚱이가 떨어질 때 잘 한 것과 잘못한 것을 따져서 남는 쪽이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가져가는 업이 됩니다. 잘못한 게 많으면 그만큼 빚덩어리가 많은 것이죠. 지금 이 몸을 받아 가지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도 없고 아픔을 준 적이 없으면 내 앞에 좋은 일만 와야 하는데 자꾸 고통이 온다면 지금 이 몸뚱이 생기기 이전의 빚덩이가 대우주의 전기처럼 기운이 쌓여 가지고 언제가 했던 것을 갚아내라고 청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원인을 만들때에 물질로 된 몸뚱이를 주춧돌로 해서 진리에 발을 맞추기보다는 욕심에다 맞추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몸뚱이가 괴롭더라도 진리에 맞추어서 바르게 참되게 옳게만 살아가야 하는데 욕심이라는데 눈이 어두워 진리와 정의를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되었든 벌레가 되었든 인간이 되었든 물질을 붙들고 늘어지면 욕심에 어두워져서 지금도 스위치가 욕심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스위치를 딴 데로 돌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돌리면 끊어지든지 바꿔지든지 할텐데 계속 스위치를 욕심에 두고 있으니 안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돌리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철두철미하게 내 잘못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음을 깊이 인식하고 내가 뿌린 것은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수용과 긍정이 필요합니다.

-생활 가운데 복을 짓고 불법의 깨달음을 실현시키는 길은 무엇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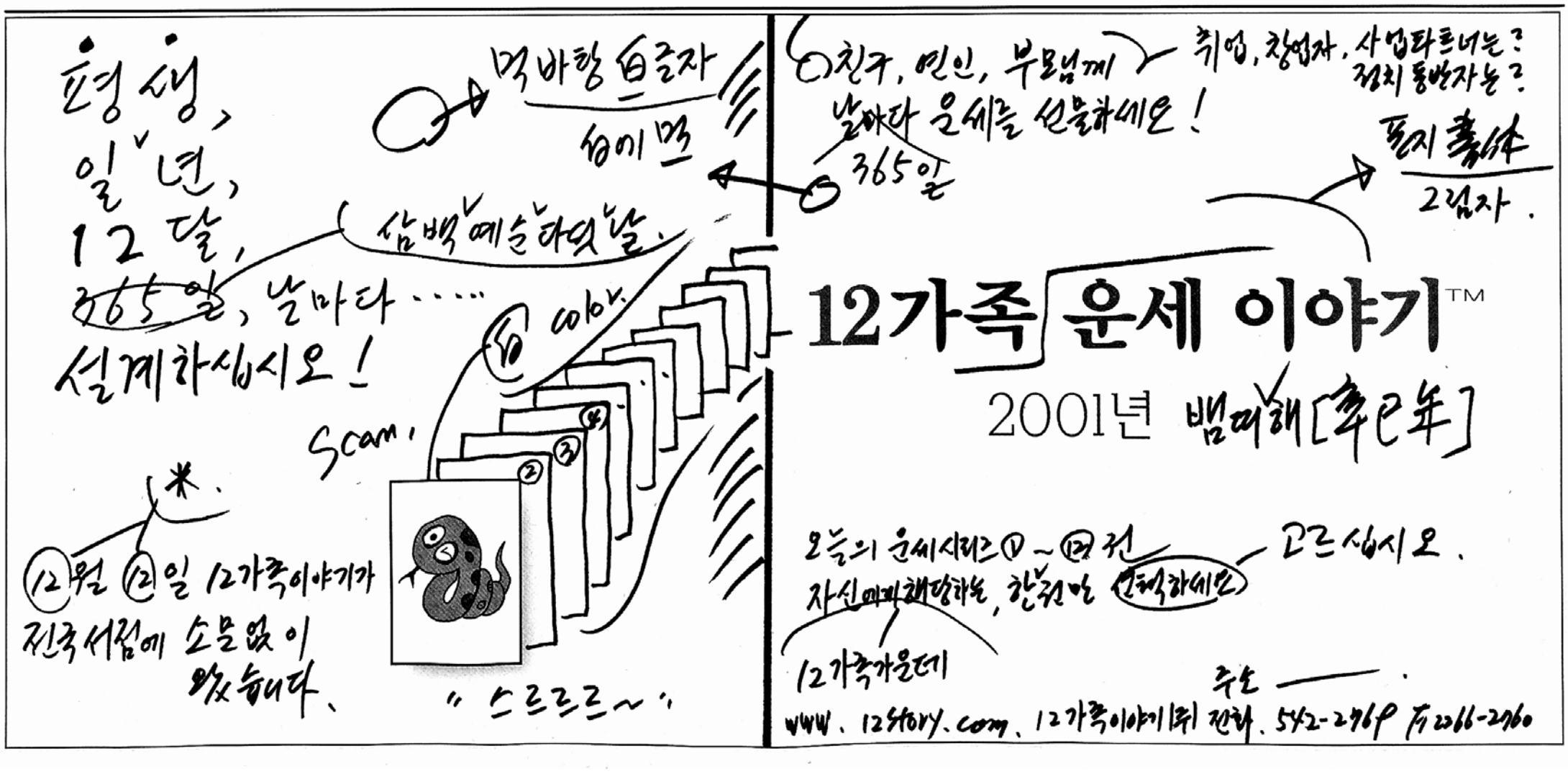
▲불교에서 말하는 눈뜸, 깨침은 여태까지는 착각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렸다 해도 바른 세계에 눈을 뜨면 그 바른 세계에서만 향상하므로 그 부수물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깨쳤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도인이 되도 안 닦은 일은 안 오고, 안 익힌 일은 안 오는 것이예요.

우리들은 무슨 일을 겪으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도 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부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도인은 내가 저질렀으니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받아들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예요. 그러니 도를 깨치면 안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 받는다는 것은 닥쳐오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이지 저질러 놓은 원인과 결과를 벗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새해에는 첫 대답을 "예"하는 마음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세요. "예"하는 대답 속에 안될 일도 되게 하는 대긍정의 작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긍정의 자세로 실천한다면 참다운 부처님제자로 한 해 밝고 바르게 잘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담=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달라이 라마의 방한 문제와 맞물려 관심을 끌었던 영화 '쿤둔'.

사찰 문화행사 '자리매김'

2000 결산 – 불교문화

'오! 부처님' '도솔가' 등 창작 뮤지컬 잇달아

불교보컬 '도리도리' 탄생 '쿤둔' 등 영화 흥행 저조

음악협회 2곳 창립 기대만큼 활동 못해

올해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2000, 새로운 예술의 해', 불교문화계 역시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만큼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를 펼쳐 보인 한 해였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찰 문화행사가 양적·질적 면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자리로 정착되어 간다는 점이다. 이들 문화행사는 음악회, 전시회 등 초창기의 실험 단계에서 벗어나 다도시연, 시낭송회, 체험행사 등 보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지역민들과 만나고 있다. 대형 사찰이나 도심 포교당뿐 아니라 작은 사찰에서도 이런 문화행사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봄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연극계에선 대형 창작작품들이 잇달아 무대에 올라 모처럼 불자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4월 선보인 대구불교문화예술원의 창작 뮤지컬 '오! 부처님'을 비롯해 '도솔가·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창작오페라 '무명탑', '직지', 음악극 '진감' 등이 올 한해 무대에 오른 대표적 작품들. 형식면에서도 현대극, 불교창작음악과 연극을 혼합한 음악극, 음악과 무용, 그리고 연극을 혼합한 종체극 등 다양한 시도는 한국 연극계에 기여할 만한 성과를 낳았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문화활동은 활발했다. 미술, 음악, 사진, 무용 등 분야별 관련 사이트가 하나둘 문을 열면서 인터넷에서도 불교문화를 접할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진작가 김연숙 씨와 변명환 교수의 사진전은 인터넷에서도 함께 열려 새로운 시도로 경가받았다.

전통을 현대적 코드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분야가 따로 없었다. '직지체험축제' '청주 고인쇄출판박람회' '일주 한지문화재 2000' 등은 전통문화를 현대에 맞게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불교보컬그룹 '도리도리'의 탄생은 불교와는 낯설게 느껴졌던 대중음악계에 부다팝스라는 새로운 불교 대중 음악 장르를 선보였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각 종단과 사찰에서 선보인 불교 캐릭터 상품도 정적으로 보이기 쉬운 불교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불교음악협회와 (사)불교음악협회의 창립은 새 천년 벽두부터 한국불교음악계를 일구었다. 불교음악계의 활성화를 기치로 출발한 두 단체는, 기대만큼의 활동을 보여주지는 못해 뜻 있는 불자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척박한 불교음악계에서 모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서로를 고무시키고 또 조화를 이루며 운영해 나가느냐는 상식의 중실임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

이밖에 우리 전통설화인 바리데기 설화의 애니메이션 제작과 'CUP', '쿤둔' 등 티베트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 두 편의 국내 개봉도 관심을 끌었다. 월드컵 축구경기를 둘러싸고 티베트 불교 사원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 'CUP'과 달라이 라마의 전기 영화 '쿤둔'은 볼보지나 다름없는 국내 영상 포교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한국 관객과의 정서적 차이나 마케팅 소홀로 많은 관객과 만나지는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전시·공연 부문에서의 활발함에 비해 여전히 사진·문학·영화 등은 이렇다 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공연 부문에서의 성과들도 순수하게 불교계 역량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오! 부처님' 외엔 찾기 힘들어 교계 여건 성숙과 내적 역량의 강화를 영원한 과제로 남겼다. 기존의 소재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불교의 세계관과 가치를 녹여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의 출현도 아쉬운 대목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전통춤 대중화 앞장서야죠"

승무 인간문화재 인정받은 정재만 교수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은 정재만 씨. 정 씨는 한성준-한영숙 선생의 춤맥을 잇고 있다.



"승무를 출 수 있으면 다른 춤도 출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승무에는 한국의 춤사위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한국 무용가 정재만(숙명여대 교수·53) 씨가 13일 고 한성준·한영숙 선생의 맥을 잇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48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정 씨는 열 여덟 살 때 본격적으로 무용을 시작해 68년부터 고 한영숙 선생에게 승무·학무 등을 배웠고, 76년 승무 전수조교(현 전수교육보조자)로 인정받았다. 94년부터는 벽사춤아카데미(벽사는 한성준 선생의 호)를 설립해 벽사 무용주간 공연, 벽사춤 수련회 등의 활동을 통해 한성준·한영숙 선생의 춤맥을 잇고 있다.

"한성준 선생이 전통춤을 집대성했다면 한영숙 선생은 아름답게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고 밝힌 정 씨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전국적인 무료 강습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 무용인 승무는 예술성이 풍부하고 춤사위의 다양성, 사용되는 음악과 장단의 변화성, 장삼소매의 놀림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형태 등이 우리 전통 춤의 미학적 정수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은 경기·충청을 중심으로 한 한영숙류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매방류가 문화재로 인정받아 전승되고 있다. 한성준 선생이 집대성해 '벽사류'라고도 불리는 한영숙류는 특히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 발 한 발 내딛는 춤사위가 느리면서도 동작이 커 우아한 멋을 풍긴다.

이번에 정 씨가 한영숙류의 맥을 잇는 보유자로 인정받아 역시 같은 맥을 잇고 있는 이애주(53)씨, 이매방류의 이매방(74)씨를 포함해 승무 예능보유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권형진 기자



사찰의 사계 오롯이 담았다

이병윤 사진전 '이뭐꼬'

노을진 산사의 풍경, 불상, 탑, 사천왕상 등 이병윤(불교사진연합회장) 씨의 사진 속에는 항상 우리에게 낯익은 소재들이 등장한다. 그것들은 대부분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망가진 모습으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하지만 작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궁극은 불교 문화와 문화재의 초탈 원융한 아름다움이다.

10여 년간 불교 문화재를 렌즈에 담아온 작가가 6년만에 두 번째 개인전을 연다. 내년 1월 2~8일 서울 충무로 후지포토살롱에 이어 12~16일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 2층 갤러리에서 잇달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려는 '아름다움'도 그 등안의 작업과 궤를 같이 한다. 전시 주제는 '불(佛)의 세계-이 뭐꼬'. 사찰의 사계를 담은 40여 점의 작품으로 영상 삼매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저마다의 느낌 하나만큼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는 이 씨의 소망이다. (02)2273-5480 권형진 기자

사이버 문화

목아박물관

불교조각 전시실 온듯

목아박물관(http://www.moka.or.kr/kd/home.htm)의 홈페이지를 찾아 불교조각의 향취에 젖어보자.

목아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코너는 전시실 안내다. 이 곳은 단순한 전시실 위치 소개 코너가 아니다. 전시실을 메우고 있는 불교조각 사진을 하나하나 제공하고 있어 직접 가보지 않아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유물관리실에 보관되어 있는 비공개 유물 및 자료 등 쉽게 볼 수 없었던 소장품 일부도 접할 수 있다.

목아박물관이 매달 개설하고 있는 문화학교 커리큘럼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미술강좌 코너에서는 불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에서부터 불상의 종류 및 모시는 전각, 재질에 따른 분류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수인, 육계·백호·삼도 등 불상의 형식, 불상의 옷 등에 대한 강좌도 개설되어 있다.



목아박물관이 위치한 여주는 불교, 예술 등 다양한 문화재가 많은 곳이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신륵사, 고달사지, 명성황후 생가, 영릉 도예촌 등 여주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해 주변 문화재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있다.

또 영어판 서비스를 곁들여 외국인들도 쉽게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꾸민 것도 이 홈페이지의 장점 가운데 하나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문화소식

부다피아

웹카드 서비스 부다피아 카드나라가 27일 오픈, 다양한 불교 웹카드를 네티즌들에게 제공한다.

붓다뉴스·부다피아·마하몰·여시아문 등 4개 사이트에서 선보일 부다피아 카드나라에는 9종 54개의 이미지 카드가 마련되어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웹카드는 연꽃일러스트 모음, 동자카드, 법당단청 이미지 모음, 꽃살문 이미지 모음, 이병윤 사진, 부처일러스트 모음, 기타 불교일러스트 모음, 대행큰스님 법구 모음 등으로 분류되어 제공된다.

정비파 목판화전 조국의 산하와 사찰의 불상 일주문 등을 소재로 여러 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어온 정비파 씨의 다섯목판화전이 1월 5~10일 부산 시청 전시실에서 열린다.

작가가 구도적 자세로 일도일각한 '일주탑' '경주 감은사' '도 운문사 금당암 석등' '지리산 이야기' 등 70여 점의 작품은 자연친화적인 정신세계를 담아 내며 보는 이들을 피안의 세계로 안내한다. 051)853-2021

氣『로박요법』효과가 뛰어납니다!!



반도체 칩을 이용한 새로운 氣 요법

■ 현직의사가 개발하였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단기간 효능 확인

■ 전국병원 한방병원 납품 중

氣는 인체 세포가 전기적 균형을 잃으면 비정상세포가 통증을 유발하는데 음(-)의 氣를 체내에 침투시켜 生氣를 발생,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세포내 응혈을 방출시켜 몸에 氣力과 活力을 넣어 줍니다.



氣로박파스 (1)
종류 : 허리용
수량 : 10개
가격 : 20,000원



氣로박파스 (2)
종류 : 무릎, 기타용
수량 : 10개
가격 : 20,000원



氣메달 (1)
종류 : 건강
수량 : 1개
가격 : 87,000원



氣메달 (2)
종류 : 건강
수량 : 1개
가격 : 130,000원



부착용
종류 : OMC
수량 : 1개
가격 : 24,000원



매트
종류 : 특수매트
수량 : 1개
가격 : 800,000원



종합 세트
가격 : 210,000원



벼에 좋은
토종 홍화씨

갱년기 골다공증, 연골이 약한 분, 퇴행성 노인분, 기타 뼈가 약하신 분
1달 150g 45,000원

* 최신 개발한 과립형은 위장장애가 없고 흡수가 잘 됩니다

■ 몸이 불편하신 스님은 말씀하시면 무보로 봉사해드립니다. - 특약점 영업하실 분 (기공수련자, 수지침, 침술, 한방치료자)모집

※ 특자 : 전화를 주시면 「우리집 주치의 로박요법」 무 Text를 보내드립니다.

韓國氣研究院 02)455-6944 02)453-5851

슬기샘 慧泉 박물관 건립 기금 마련 불사



석혜천『釋慧泉』
'선으로 만나는 불아성경,서두
-들어없어도 부처는 있다
-목탁이야기 에세이 일필송
동일 동문회 회원
-전통 문화각 연구 소장
-다양풍고 멋다산원 유명
영등전화 신한상담실장
-신화명상가 목관화가
1.백의관전 2.명상한화전
3.부처모습전 4.선 관화전
5.노점당전전 6.학변상도전
7.동경도쿄아 초대전
8.동일대전초대작전
-슬기샘 박물관 건립추진

봉운불사기획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화동 29번지
전 화 032)884-9332,
FAX 032)884-9333
은행인 국민은행 예금주 전승희
175-25-0001-318

위 변상도는 지적재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한 복사 도용 판매를 금합니다.

地藏堂 혜천스님의 원력이 담긴 세계최초의 선물상(禪物相) 화두 수행에 결정체인 복덕행 방편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학 변상도 시리즈 친필 선서화 특별 보급안내!

※ 각 사암에서는 불사의 방편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복덕상학 신선대문성회 복덕상회기원
2. 부부상학 이명장수 부부화합 소원성취기원
3. 사업성학 복덕구족 영업상업 사업상회
4. 삼무선학 무사 마음 인천문행기원
5. 기내맥선열회치학 업장소멸 홍법육제 무병소멸기원
6. 음합수학 남녀궁합체험 복덕발문기원
7. 재능상학 수명장수 재능개발 소원성취기원
8. 입원상학 학업소망성취 시험합격기원
9. 삼무선학 사업 영업 번창 제작상회기원
10. 입상재열학 수업 복덕장수 입상목소열원
11. 중상재열학 수업 복덕장수 목은심목소열원
12. 출상재열학 수명복덕장수 출상목소열원
13. 병고멸학
14. 동심수학
15. 질성무학
16. 인연성학
17. 관재멸학
18. 입심동학
19. 선정관학
20. 무사고학
21. 퇴마기학
22. 방생원학
23. 거복귀학
24. 상외50증

* 특별주문제작 연화목탁 학회 가족원문학을 주문으로 가족수예목탁 학회수를 정주어 제작해야 드립니다

· 십달마도의 초대달마도 수십달마도 우십달마도 갑입달마도 완월달마도

· 입월상신월성한호도 호랑이은 옛부터 행과 시련을 물리치는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품에는 선신 또는 신선의 시작 혹 도량의 수호를 일는다

· 천복용신도 무한한 능력에 희원을 빌었을 수호하는 용부호의 하나이며 감상을 돕는다

· 무악천마도 추진력에 상징이며 복원실을 주고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전함. 악사여래불에 딸린 12 신장중의 하나이다.

◇위 수익금은 슬기샘 박물관 건립 기금에 쓰여집니다.

◇ 위 학 변상도 및 수신도는 혜천스님이 참선기도 수행후 직접 그린 작품으로서 다소 규격이 변형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鶴)이란 옛부터 자태가 청초하고 고귀하여 신성한 새로 여겨오며 천년만에 푸른색으로 변하여 장학(蒼鶴)이 되고 다시 천년이 되면 검은 색으로 변하며 현학(玄鶴)이 되는 장생불사의 새로 알려져 있다 불가에서는 성인마나 보살의 화신으로서 악을 구축하고 선으로 인도하는 이적을 베푸는 존재로 표상되었으며 주로 법당 인천장이나 벽면 높은 곳에서 하늘을 날며 부처님 신변에 잡귀가 나타나지 않게 늘 지키고 있다

鶴變相圖 학변상도 (지역별 각 사암 특별 보급처 문의 요망)

* 학(鶴)이라는 특수적인 대상에서 기호와 문자로 변형되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려는 신화(神鶴)로서 일명 학(鶴)변상도(變相圖)라고 이름 하는 것이다 학(鶴)이 주는 주관적인 실에 소망을 이루어주며 격관작으로 자신에게 업장(業障)을 멸(滅)해 줄 수 있다는 상징의 본질인 것이다 따라서 선, 서법적(禪, 書法)에서 보면 전각상형문자(篆刻象形文字)의 언어라고도 한다

2000년 불서흐름

책으로 닦는 깨달음의 길

떠들썩했던 시작이 민망할 정도로 밀레니엄의 첫해가 조용히 저물고 있다. 역시 중요한 건 10년 혹은 천년 단위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상임을 확인하게 한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일상의 수중한 일이 되어야 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으리라.

올 한해 불자들은 무슨 책을 즐겨 보았을까. 베스트셀러가 반드시 좋은 책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통해 불교 대중의 지적 풍향과 수준을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0년 불서시장을 이끈 베스트 불서를 짚어본다.

올 한해 불교 서점가를 뜨겁게 달궜던 책은 없었다. 하지만 스님들이 펴낸 책이 장기간 인기 상한의 위치를 누렸다는 것이 대표적 특징이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스님들의 수행과 그 내면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올 한해가 불황 속에서 시작된 만큼 많은 독자들이 어수선한 마음의 한 자락을 '스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 해법을 찾거나,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불서
불교입문·선방일기·만행 順

금강삼매경론·불교음악사 눈길
작은경전·禪관련서도 호평

불자들의 이러한 심리상태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선방일기〉(여시아문)다. 70년대 초반 겨울, 상원사 선방에서 등 안거한 선객들의 일과를 담은 이 책은, 경제 한파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갈망하는 불자들에게 소욕지족의 삶과 그 가치를 가슴 깊이 각인시켜 '재기의 의지를 담금질하는' 구실을 하였다. 이 책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즐겨 읽을 정도로 일반 출판시장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는 점도 흥미롭다. 한 라디오 방송사는 부처님 오신날 특집 드라마로 이 책을 원작으로 삼기도 했다.

2000년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신 또 한 권의 책은 현각 스님의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열림원)와 원성 스님의 〈풍경〉(이레)을 꼽을 수 있다.

불자들은 왜 이 책들을 선택했을까? 불자들은 사변적 언어와 딱딱한 표현으로 일관한 무거운 책보다는 서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은 수행의 현장에 있는 스님에 기대어 경쟁과 속도의 시대를 버티며, 참나의 존재를 찾은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오두막 편지〉(법정 지음, 이레),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일타스님 지음, 불교시대사) 등 스님이 펴낸 책의 연장선상으로 봐야한다.

그러면 불자들은 '쉽게 읽히는 책'만 선택했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불자들은 신행과 수행의 사표로 불서를 선택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교과서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편집이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많이 팔인 책(불서 전문서점 여시아문 집계)으로 선정된 〈불교입문〉(조계종 출판사)이 그러한 현상의 좋은 예다. 신행과 수행의 모든 것은 상세하게 요약한 이 책의 주 독자층은 불교교양대학생들이지만, 많은 불자들이 이 책을 '신행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이 올해 불교출판 흐름의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다.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생활 속의 기도법〉, 〈불교교리〉, 〈지장신앙·지장기도법〉, 〈부처님 말씀〉 등의 꾸준한 반향도 같은 맥락이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분이당) 등 달라이 라마 관련 서적과 민족사의 작은 경전 시리즈 등 점차 작아지는 책과 선 관련 서적들이 꾸준하게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는 점도 2000년 불교출판계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좋은 글은 시대를 뛰어넘는다. 잊혀졌다가도 다시 떠오르고 세월이 가도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은정희(서울교대) 교수의 '원효 연구 35년'을 담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일지사), 임기중(동국대) 교수가 순수불교가사 원전 108편을 모아 주석한 〈불교가사 원전연구〉(동국대학교 출판부), 무산 스님의 다담선 뿌리 찾기 20년 산물인 〈한국역대고승의 다시〉(명상)를 비롯 박범훈 교수의 〈한국불교음악사연구〉(장경각), 〈한국사찰의 주련과 편액〉(대한불교진흥원) 등의 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 가운데 하나다.

올 한해의 불서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불자들은 딱딱한 책보다는 깊이와 재미 그리고 문학적 향취가 묻어 있는 '내 마음의 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불교출판계는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출판사와 작가, 그리고 독자들 모두는 불서출판의 위기론만 들먹일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든 책과 가까이 하는 생활 문화를 일구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연말연시에 불서를 읽기 위해 불교전문서점을 찾은 불자들.

◇2000 베스트불서 2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불교입문	조계종 출판부	조계종 출판사
2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3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4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5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6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7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8	부처님 말씀	성 열	현 암 사
9	생활 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10	풍경	원 성	이 레
11	법구경(작은경전)	지 현	민 족 사
12	불교교리	조계종 출판부	조계종 출판사
13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 미틀	여시아문
14	금강경 강해	김 용 옥	통 나 무
1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16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분 이 당
17	참선요지	허 운	여시아문
18	방편개시	허 운	여시아문
19	영원한 자유	성 철	장 경 각
20	오계이야기	일 타	효 림

도서 안내:(02)737-0695

조사선 원류 찾는 중국 선기행

지묵스님 지음 **달마와 혜능**



"아무 것도 아닌 선(禪), 그것을 위하여 떠났다." 지묵 스님이 〈달마와 혜능〉(우리)을 쓰게 된 이유다. 이 책이 출간하게 된 계기는 우연이라 할 정도로 작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출가 수행자에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이었다. 일의 전말은 이렇다. 글쓴이가 모 방송사의 '선(禪)' 관련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현지 촬영 이야기 중에 '아무것도 아닌 선'이란 말이 나왔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선은 부처에 대한 반역이다." "선이요, 밥 먹는 이것이 선 아닙니까" "맞아요, 선서를 읽다보면 깨달음의 세계에 든 기분이 들더군요." "선문답이 어렵다고 하지만 별것 아니더군요" 등 선에 대한 편협된 이야기가 글쓴이를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결국 지묵 스님은 탁자에 놓은 물컵을 들고 말문을 열었다. "이것을, 물 컵이라고 하지 말고 물 컵이 아니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한 마디 하십시오." 순간 한사람씩 자리를 털고 나가 버렸다.

사실 위와 같은 분위기의 '구두선(口頭禪)'은 드문 경우가 아니다. 스님은 이러한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선의 원류를 찾아 나선 것이다. 책의 내용은 중국 선종 사찰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오대산 문수성지, 구화산 지장성지를 비롯 달마·혜가·임제·허운 스님 등 선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성도이후 7일간 행적 영화보듯 생생

재연스님 옮김 **싯다르타의 길**



세계적인 불교학자 데이비드 깔루빠나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한 〈싯다르타의 길〉(재연 스님 옮김, 숨)이 우리말로 나왔다.

그 동안 출간된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가 출생과 께달음, 그리고 전법 위주로 다루었다면, 이 책은 부처님의 유년시절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를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부처님 열반이후 수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던 깨달음 이후 7일 동안의 행적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기초자료는 빠알리 경전. 때문에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다소 낯설지만 이것이 이 책을 신선하게 읽히게 한다. 40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이 책의 이야기들은 영화를 보듯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 책의 말미에 수록한 각 이야기들의 출처는 연구자료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치밀하다.

무엇보다 이 책의 백미는 대화 속에 녹아 있는 인도사상이다. 유년 시절의 친구 까빨라를 통해 상캬 학파의 사상을 전하고 있으며, 웃달라까와 야즈냐발캬는 정통 인도사상인 우파니샤드 사상을 알려준다. 게다가 핵심주제에 대한 논의를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이끌어감으로써 인도사상과 불교사상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적잖은 도움을 준다. 값 9천8백원.

김중근 기자

인간·자연·경제 3요소 조화 강조



상생의 불교경영학

"요즘 현대인들은 과도한 경쟁과 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에게 빈곤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지구는 망치더라도 인간을 살리고, 인간은 망치더라도 경제는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웃기는 일이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현대의 경제는 인간이나 자연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경제보다 인간을, 인간보다 자연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눈앞의 이익에 머뭇거리며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류는 자연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인간, 자연, 경제의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는 것은 없을까. 신간 〈상생의 불교 경영학〉(이은래 옮김, 이지북)은 그 묘안을 불교에서 찾고 있다. 글쓴이는 일본 고마자와 대학 불교경제학 연구소 연구원 이노우에 신이치 교수.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사람의 인생 철학이라고 말한다. 그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종류의 옷만 입게 한 삼의(三衣)제도의 한 예만 보더라도 시대를 앞서간 '부처님의 경영학'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에서부터 비롯된 사상 체계가 불교이며, 그것과 경제가 하나로 만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글쓴이는 '왜 불교경제학인가'를 시작으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불교사상', '모든 것을 되살려 내는 불교경제학' 등 10개 부문으로 나눠 독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경제학이 바로 불교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가천도 능력 전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고차원 의 元極學 진여(眞如) 氣 수련원 원장 윤정주 저서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책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

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兇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 중국은왕조의 갑골문의 기록으로부터 3천년이란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선현석학들에 의해 끊임없는 실험을 거쳐 완성된 이 명리학이 왜 현대에 이르러 더욱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가? 마침내 벽에 부딪치고 그 한계를 드러낸 서양사상이 의지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어떠한 과학보다 더욱 과학적이며 어떠한 철학보다 더욱 오묘한 음양오행을 기초로 하여 선천을 파악하고 후천을 예지하는 청산 김성진 선생의「命理玉精」을 읽지않고 어찌 감히 운명을 감정한다 할 수 있겠는가!
화제의 신간


전국 서점 판매중!
정신 김성진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3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승철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섭심부 신국판/양장본/申采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무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무博士 /정가 15,000원
11. 신보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입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운중 편저/정가 15,000원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흘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T.921-8434 F.929-3470

'기우는 석탑' 바로 세워야 한다

불교유적을 조사하는 박물관과 연구소의 수가 급증한 것을 비롯해 올 한 해 동안 불교 문화재에 대한 교계 안팎의 관심은 여느 해와는 달랐다. 물론 지역 문화권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게 대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유물 발견과 재조명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비지정 불교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지만, 정작 국회의 심의 과정이 늦어져 도난이 급증하는 양상도 있었다. 이와 함께 석조 문화재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학계의 주장도 잇따랐다. 〈편집자〉

2000 결산 – 문화재



◇조계종 부설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지표조사를 하는 모습.

석조문화재 보존 '비상'

●… 석조 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관련 학계에서 석조 문화재의 실상을 파악하고,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석조 문화재는 수백 여 년 간 야외에 노출된 탓에,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불교계에서는 석조 문화재의 상당수가 불교문화재라는 데 주목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정부는 최근 국보 제20호인 불국사의 다보탑을 비롯해 국보 제21호인 석가탑과 국보 제112호인 양북면의 감은사지 서탑 등 신라시대 국보 석탑 3기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세웠다. 이들 대부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관단에 따른 것이다.

불교유적 조사 활발

●… 불교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가 활발한 한 해였다. 내용도 사찰 문화재 조사와 폐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등 다양하다.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월정사 성보조사에 이어 화엄사 성보조사에 들어갔고, 용인 지역 폐사지에 대한 지표·시굴조사를 실시했다. 위덕대 박물관 불적조사단도 경남·북 일대와 부산, 울산, 대구지역 폐사지 지표조사에 주력해, 경주와 포항에서 '안계사지'와 '옥명사지'를 새롭게 발견했다. 또한 경주시 모량리 절터에서 국내 최고(最古)의 전탑지를 확인했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원주 법천사지를 조사했다. 전주 및 경주박물관은 지역 소재 사찰 문화재를 조사했고, 공주박물관은 일본 큐슈 지방 소재 백제 유적을 조사했다.

사지 역사성 재조명

●… 황룡사지, 회암사지, 천왕사지 등 주요 사지에 감춰진 역사적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황룡사지 일대를 조사한 경주문화재연구소는 폭 23미터의 대형도로를 발견했다. 이 도로는 6세기 무렵 황룡사 창건과 동시에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회암사 역시 왕실 사찰보다는 왕궁으로써의 위상이 더 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곳의 배수로 시설 등의 배치가 왕궁의 그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또 '왕(王)', '궁(宮)' 등이 새겨진 청기와도 다량 출토됐다. 이외에도 경기도 하남시는 "백제 초기 도읍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단 아래, 천왕사지 발굴에 들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지정문화재 도난

●…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시·군에서는 향토유적조례를 재정하고 있지만, 도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2월 현재 도난된 불교문화재의 수는 20여 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문화재 관계자들은 "사찰 내 방범 시스템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각지대가 많아 도난에 무방비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 관계자들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 틈을 노린 절도범이 극성을 부린 탓도 있고, 시·군에서 만든 '향토유적조례' 역시 처벌 기준이 없는 것에서도 성보 도난의 원인을 찾았다.

성보박물관 잇단 개관

●… 사찰이나 시·군에서 불교문화재를 전시하는 박물관과 전시관을 잇따라 건립했다. 경주 황룡사지 유물 전시관과 불국사 유물 전시관, 석굴암 유물 전시관, 영천 은해사 성보박물관, 동화사 성보박물관, 수덕사 근역성보관, 선암사 성보박물관 등 9개의 유물 전시관이 올해 건립됐거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문화재의 보존은 물론 국내·외국인에게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교문화 우수성 인정

●… 산 전체가 불교 유적인 남산(사적 제311호)을 비롯해 경주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 세계유산위원회(WHC)가 11월 29일 호주의 케언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경주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계는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개발로 인한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남산과 월성, 대릉원, 황룡사, 산성지구 등 5개 지역 864만평 일대의 보존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㉝ 성재의 수덕사·청룡사 편액



◇예산 수덕사 조인정사의 〈수덕사〉 편액.



◇안성 청룡사 〈명부전〉 편액.

수덕사

칠보문 단청 변죽 달아

명부전

전각 비해 규모 작은편

성재 김태석(惺齋 金台錫, 1875~1953)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했던 서예가이자 전각가로 일찍이 중국, 일본 등을 왕래하며 견문을 넓히고 작품 활동도 하였다. 그가 중국에 머물던 38세에는 당시 총통이었던 원세개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국무원 비서직에 있으면서 옥새(玉璽)를 비롯한 수많은 인각(印刻)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그는 15년 동안을 중국에 체류하며 많은 활동을 하였고, 귀국 후에는 '대동한묵회'를 조직하여 전람회를 여는 등 서예와 전각을 통한 후학 양성에 힘썼다.

성재는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를 특히 잘 썼으며, 해서(楷書)는 안진경체를 본받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정학교, 유한익, 강진희, 오세창 등과 함께 근대 전각의 오대가로 꼽히며, 한국 근대의 전각을 현대로 이어준 인물이기도 하다. 성재의 사찰 편액은 예산 수덕사 〈수덕사〉, 안성 청룡사 〈명부전〉, 하동 쌍계사 국사암 〈명부전〉, 〈칠성각〉, 〈용호각〉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해인사 '자통홍제존자사명대사비(慈通弘濟尊者四溟大師碑)'가 그의 글씨이다.

예산 수덕사 청련당 아래쪽, 조인정사에 걸려 있는 〈수덕사〉 편액에는 '불기이천구백칠십이년 칠십이수 성재 김태석(佛紀二千九百七十二年 七十二 惺齋 金台錫)'이라는 관지와 두인을 비롯한 2과의 방인 도서가 있다. 이 편액은 성재가 72세 되던 1946년에 쓴 글씨로, 액판의 크기에 비해 비교적 넓은 칠보문 단청의 변죽을 달고 있다. 이 편액의 글씨는 단정하면서도 조형미가 돋보이는 예서이다.

안성 청룡사 〈명부전〉 편액에는 두인을 비롯하여, 액판 좌측에 '성재(惺齋)'라는 관지와 '김태석인 성재(金台錫印 惺齋)'라는 방인의 도서가 찍혀 있다. 이 편액은 전각에 비해 그 규모가 아주 작은 편인데, 변죽을 이중으로 한 것이 그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편액의 글씨를 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성재가 중국에서 귀국하여 활동하던 1950년을 전후한 때일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청인풍(淸人風)의 유연(柔軟)한 소전(小篆)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월인석보 제15' 등 4건 보물 지정

'조상경' '진언집' 등 부산시 유형문화재

훈민정음으로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불경언해서인 〈월인석보〉 제15가 지난 19일 새롭게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제745-(10)호로 지정한 〈월인석보〉 제15는 조선 세조 5년인 1459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인쇄본으로, 낙장(落張)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여서 15세기 국어국문학 연구는 물론 불교사와 서지학 연구에 있어 귀중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5월 11일 전북 순창 태고종 구암사에서 발견된 후 6개월만에 보물로 지정된 〈월인석보〉 제15는 현재 보물 제745호로 지정된 월인석보 중 빠진 권수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가로 22cm, 세로 36cm 크기로 비단과 종이를 섞어 만든 종이에 인쇄됐다.

직지사에 소장된 가로 23.3cm 세로 9.3cm의 '백지금니금강보문발원합부'는 고려 공민왕 20년인 1371년 비구니 묘지스님과 묘수스님의 시주에 의해 사경된 것으로, 필사 년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있어 그 연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은 일본인 다카하라 히미코의 기증 유물인 고려시대 범종과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 암벽에 새겨진 마애불상 등 2건의 불교문화재에 대해 각각 보물지정 예고를 공고했다.

이 두 문화재는 내년 1월 22일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중 보물지정 결과를 알 수 있다.

한편 부산 내원정사에 보관 중인 불교관련 서적 〈진언집〉 〈조상경〉 〈염불보권문〉 〈묘법연화경〉 등 4종의 서적이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각각 지정됐다.



◇〈월인석보〉 제15.

오종욱 기자

"3세기말 한반도 불교전래"

연세대 사회발전硏 "中 '진서'에 기록"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앞선 3세기 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소장 송복)가 '실존인물 심청을 통해 본 효의 원류탐구'란 주제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관음사 연기설화의 시대적 배경'을 발표한 심청연구팀은 "중국 정사인 〈진서(晋書)〉에서 3세기말에 이미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됐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반도의 불교전래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을 근거로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인 372년에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통해 불상과 불경을 보냄으로써 시작됐고, 백제의 경우 384년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온 데서 유래했다는 게 통설이다.

그러나 연구팀에 따르면 〈진서열전〉의 〈채모전〉에는 당시 불교신자인 황제가 널리 부처님의 신통함을 찬양해 이를 널리 펼 것을 명령했는데 신하들이 즉각적으로 반대 상소를 올리고 있으며, 그 내용은 중국 고유의 경전·법도가 아니며 '불교는 동이와 북적의 오랑캐 땅에 만연한 풍속'이라고 논쟁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황제인 서진 무제의 재위가 265~290년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한반도에 불교가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양고승전〉과 〈해동고승전〉에 등장하는 중국 동진의 도림(314~366) 스님이 고구려 승려에게 편지를 보냈던 기록을 통해서도 불교 전래를 훨씬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고, 심청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옥과현 성덕산 관음사 사적' 중 사찰 창건을 312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타당성 있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석림 제34호 발간

동국대 석림회의 논총집인 〈석림〉 제34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문명대(동국대) 교수의 '한국의 불상 조각', 보광(동국대 교수) 스님의 '석림인의 상' 등 특별 논단과 기고, 이철영(울산과학대) 교수의 '사찰 건축의 수도생활 공간 배치의 시대적 변천 과정', 서치상(동명정보대) 교수의 '통도사 지장암에서 보는 우리 건축의 졸박미' 등의 기획논단이 게재됐다. 이외 '교수논단' '학인논단' 등이 있다.

불화 조사 보고서 발간

문화재청이 〈전국 사찰 소장 불화 조사보고서-마곡사 본·말사 편〉 제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성보문화재연구원이 올 3월부터 11월까지 조계종 6교구 본사 마곡사와 말사에 소장된 불화 181점을 일체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부록으로 '무량사 괘불' '갑사 괘불' '광득사 대웅전 삼세불탱' '마곡사 대광보전 백의관음벽화' 등의 도판 181점이 수록됐다.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근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011 SK Telecom
6.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016 한통프리텔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019 LG Telecom
5. 인터넷채널 ⇨ 7. 종교 ⇨ 불교정보
017 신세기통신
InfoTouch ⇨ 종교 ⇨ 불교정보
018 한통엠닷컴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산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신도간의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속에
정리된 30여 메뉴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등 D/B검색과
매일매일의 불교뉴스, 공연,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총명이 가볍고 자만한 까닭에 오늘 이렇게…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⑬

(12)종승의 극락과 지옥

종승은 자존심이 대단한 승려였다. 스승인 보리달마이외엔 누구도 자기의 웃길에 들지 못한다고 말해 온 터였다. 그런 그가 도견왕에게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으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는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자책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생각했다. 내 나이가 지금 100살, 20년 전인 80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큰소리 치던 내가 아니었던가. 지난 20년 동안은 다행히 보리달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정진함으로써 어떤 행등을 해도 본분에 어긋남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했었는데…. 그런 내가 불교를 부정하고 불법을 폐하려는 도견왕에게 꼼짝도 못했으니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이제 '나'라는 존재는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 무슨 면목으로 스승인 보리달마를 대한단 말인가.

종승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바위 위로 올라갔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었고 바람이 회오리쳤다. 절벽 아래는 안개가 희감겨 밑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종승은 날씨조차도 전생의 억겁이라고 생각했다.

침통한 표정의 얼굴은 차츰 창백하게 변해 갔다. 이윽고 표정에 나타나던 마음의 굴절도 사라지고, 차츰 평안과 고요를 찾은 듯 싶었다.

무슨 면목으로 스승 대할까

종승은 감았던 눈을 떴다.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경건하게 옷깃을 여미고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곤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종승이 눈을 떠 보니 두껍게 이끼가 낀 바위 위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신선같이 생긴 도인이 미소지으며 서 있었다. 어떤 곡절인지는 모르지만 이 도인이 목숨을 구해 준 것이라 짐작했다. 종승은 몸을 일으켜 합장하며 도인에게 말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내가 구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대가 죽지 않은 것일세.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듯 싶으이. 몸을 던졌으나 그대의 옷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이렇게 이끼 낀 바위 위에 떨어졌으니 어찌 죽을 수가 있겠는가. 잠시 기절한 것을 내가 돌봐 준 것일 뿐이네. 한데 그대는 지극한 나이에 왜 그토록 목숨을 버리려고 했는가?"

종승은 자신도 모르게 감동의 열기로 온 몸이 뜨거워 옴을 느꼈다.

"저희 사문(沙門)에 있는 자는 마땅히 법을 바르게 하는 것을 첫째의 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도견왕이 삼보를 훼손하고 불도를 폐하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몸을 버려 책임을 져야 하거늘 도인께서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도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승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들려 줄 게송 하나가 있네. 게송을 들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네."

"원컨대 도인께서는 어리석은 저를 깨우쳐 주시고 남은 삶을 지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신인은 종승에게 한 구절씩 또박또박 게송을 읊어 주었다.

"그대 나이 이미 100살에 이르렀으나 80년 동안은 잘못을 저질렀도다. 부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과 마음 닦아 입도(入道)했도다. 비록 조그만 지혜 갖추었지만 너와 나를 가리는 일 또한 많구나. 만나 본 여러 현인들에게 이제껏 참다운 존경심을 가져 본 일이 없도다. 20년 쌓은 공덕인데 마음은 아직도 맑아지지 않았구나. 총명이 가볍고 자만한 까닭에 오늘 여기에 이르렀도다. 왕을 만나고도 불경(不敬)했으니 이런 결과가 온 것은 당연하구나. 이제부터라도 소홀하고 나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지혜 얻으리라. 모든 성인들은 한결같이 마음 속에 있고, 여래 역시 네 속에 있음을 알지어다."

게송을 다 읊고 나자 도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며시 사라졌다. 엎드려 듣고 있던 종승은 그것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은 채 합장의 예를 올렸다. 종승은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다.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은 정적이 그를 에워쌌다.

종승을 찾아 산 속을 헤매던 사신들은 멀리 절벽 밑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스님 한 명을 발견했다. 틀림없이 종승이라고 여긴 사신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좌선하고 있는 이가 종승인 것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왕의 성지(聖旨)를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종승이 속히 돌아와 왕궁에서 부처를 모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종승은 뜻밖의 성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음이 흔들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종승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기가 해야 할 바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윽고 왕궁으로 가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계율을 스승으로 삼고 죽을 때까지 이 바위를 벗삼아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굳게 마음먹었다. 종승은 차분한 어조로 사신에게 말했다.

계율을 스승으로 삼고

"대왕의 크신 뜻에 미치지 못하여 소승은 심히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는 산 속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부디 대신께서는 돌아가 대왕께 전해 주십시오. 나라 안에는 현자(賢者)가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왕숙이신 보리달마 조사는 6종파의 모든 문중이 스승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바라제도 법이 대단히 뛰어난 고승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대불조를 받들고 삼보를 널리 펼침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 복을 누리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승은 말을 마치자 눈을 감고 입정에 들어갔다. 그의 의연한 자세는 마치 절벽 위에 서 있는 한 그루 푸른 소나무를 보는 것 같았다. 제속을 초월한 듯한 범상치 않은 기운에 사신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붙이지 못했다.

사신들은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종승의 생존을 확인한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사신들은 이 소식이라도 속히 전하기 위해 총총히 숲 속을 벗어났다. 사신들이 왕궁으로 들어설 무렵 보리달마는 대전으로 도견왕을 찾았다. 밥 먹는 것도 잊고 경전 공부에 열중하는 조카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보리달마가 들어서자 도견왕은 황급히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다. 보리달마는 환하게 웃으며 왕의 마음 속을 살폈다.

"공부가 대단하시군요. 한데 사신이 입산한 지 이미 며칠이 지났는데 종승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도견왕은 숙부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추측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는 우물대면서 말했다.

"아직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숙부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보리달마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내 짐작으로는 종승은 이번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도견왕은 그 소리에 적이 실망했다. 어떻게 해서든 종승의 면전에서 잘못을 빌지 않고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다. 도견왕은 애원하듯 보리달마에게 매달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요?"

"한 번 불러선 오지 않지만 두 번 부르면 반드시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보리달마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문밖에서 사신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견왕은 땀 식힐 여유도 없이 곧장 대전으로 들어서는 사신에게 물었다.

"그대는 종승 대사를 보았는가?"

"신이 틀림없이 만나 만났습니다. 그 분은…."

신하가 채 말을 잇기도 전에 보리달마가 웃으면서 대신 이었다.

"그가 산을 내려오려고 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종승 대사는 산중에서 은거할 결심이십니다. 결코 산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

도견왕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달마 숙부께서 일을 헤아리는 차원이 얼마나 깊은 지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숙부가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종승을 초청하기로 했다. 이번엔 왕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

7일 뒤에 출발하기로 날짜를 잡고 그 동안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일렀다.

보리달마는 이쯤 해서 청봉산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도견왕에게 작별의 말을 했다.

"왕께서 이처럼 덕성이 있으시니, 마땅히 선과(善果)를 얻을 것이오. 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왕의 건강이오. 머지 않아 병이 생길지도 모르니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오."

보리달마가 떠난 뒤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도견왕은 병으로 쓰러졌다. 주변에선 불법 공부에 너무 열중하여 침식을 잊은 결과 그렇게 되었다고 수근댔다. 심지어는 종승 대사의 일로 자책과 상심을 거듭한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왕의 병은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궁성 안은 발칵 뒤집혔다. 어의가 아무리 치료해도 오히려 병세는 악화될 뿐이었다.

왕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

답답한 황태자와 신하들은 백방으로 명의를 수소문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문득 보리달마가 떠나면서 걱정하던 말이 생각났다. 보리달마가 길흉을 미리 알았다면 흉을 길로 돌리는 방법도 알 것이 아니겠는가. 급히 사신을 청봉산으로 보내 위급한 상황을 알렸다. 보리달마는 염려하던 일이 생긴 것을 못내 안타까워 했다. 그는 서산으로 지는 노을빛을 바라보았다. 스산하게 불어 오는 산바람은 마치 도견왕의 신음소리인양 귓가를 스쳤다. 보리달마는 왕이 왜 병이 났는지를 꿰뚫고 있었다. 국왕의 몸으로 전비(前非)를 뉘우치고 근심하다가 병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고귀한 품덕인가.

보리달마의 머리 속에 도견왕의 모습이 떠올랐다. 간절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마음에 와 닿았다. 보리달마는 바람을 가르며 왕궁으로 들어갔다. 도견왕은 용상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숨도 고르지 못하고 창백한 얼굴이 중환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보리달마가 온 것을 보고 왕은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대로 쓰러졌다. 달마는 서둘러 왕을 부축했다.

"조카, 좀 어떻소?"

"저…."

도견왕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거의 절망적인 용태였다. 마침 때맞춰 사신이 들어와 아뢰었다.

"종승 대사가 대왕의 부름을 받아 입궁했습니다. 그리고 바라제 대법사도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종승과 바라제는 보리달마가 임금의 병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즉시 무릎을 꿇고 큰 절로 예를 갖추었다. 그리고 다시 허리굽혀 물었다.

"조사님, 어떤 방법으로 국왕의 고통을 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리달마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황태자의 태도를 봐야 하느니라. 황태자가 목욕 재계한 후 향을 올려 지극정성으로 국왕의 죄를 빌고, 두루 은혜를 베풀며 삼보를 받들게 되면 병은 자연히 나을 것이니라."

황태자는 보리달마가 말한 준엄한 인과율의 처방에 그대로 따랐다.



"차라리 죽음 택하기로 결심
절벽위 회오리바람이 불었다
종승의 얼굴은 차츰 창백하게…"



폭탄세일 돌침대 좋은건 아시죠!
리빙 1004 250만원 → 149만원
사군자 330만원 → 199만원
돌침대 대중화 선언!
돌침대는 특권층 전유물이 아닙니다.
건강을 사겠습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낸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원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 는
선택받은 귀하만의 것입니다.
리빙스톤
☎ 02)424-9427
02)2203-7821
화조
101 싱글보료
목단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의 효능…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평상(平床) 제작 전문(휴식, 작업다이),
자동온도 조절기능, 사무용 기구 주문 제작 납품


◇포항 구룡포 불암사에서의 일출행렬.

업장 씻어내고 '새소망 발원'

전국사찰 신사년 해넘이·해맞이 법회 다채

새해 첫 아침, 절에서 해 맞으며 모두가 행복한 불국토로 나아가자.

제행무상(諸行無常)의 한 해를 진심으로 참회하는 해넘이 법회와 진정한 불자로 거듭남을 서원하는 해맞이 법회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사바세계를 염원해 보자.

경진년의 묵은 때를 털어내고 새 원력으로 신사년 새해를 맞기 위한 원단 해맞이 법회가 철야정진 기도와 1080배, 범종 타종 및 촛불놀이 성지순례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몇 년간 계속된 경제난으로 실의에 빠진 불자들은 산사에서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희망찬 새해를 발원할 수 있다.

낙산사 석굴암 보리암 등 동해안과 남해안에 위치한 사찰들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유명한 해맞이 명소가 되었다. 예전처럼 화려한 행사는 없지만 조촐한 가운데 자신을 되돌아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전국 주요 사찰에서는 12월26일부터 새해 1월2일까지 성도재일주간 기도법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31일 저녁 연등과 촛불을 밝히고 철야정진기도를 하며 범종 타종, 해맞이 법회 등을 봉행하면서 어느해 보다 차분한 새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올 해의 마지막 해를 가장 늦게까지 볼 수 있는 서·남해쪽 사찰들은 해넘이 법회를 통해 묵은 해를 회향하면서 새 해를 맞는다.

◇해맞이 법회하는 곳

주 최	특 징	연 락 처
양양 낙산사	의상대서 해맞이	(033)672-2448
속초 보광사	촛불놀이	(033)632-9800
울릉도 금강원	불공, 합동법회	(054)791-2465
울주 석남사	제야·점등법회	(052)264-8900
남해 보리암	철야 기도	(055)862-6115
해남 미황사	땅끝 사자봉 일출	(061)535-3521
해남 대흥사	노승봉서 해맞이	(061)534-5502
공주 갑사	봉화대 점화, 문화행사	(041)857-8981
서울 봉원사	성도절 철야정진	(02)392-3008
서울 삼보사	철야정진	(02)352-6406
경주 불국사	석굴암 철야정진	(054)746-1472
제주 보문사	용머리 해맞이 불공	(064)794-3088
제주 약천사	1080배 참회정진	(064)738-5000
제주 관음사포교당	연등공양	(064)722-2829
하동 청소년수련원	금오산 정상서 기원법회	(055)883-8156
전국염불만일회	건봉사 낙산사 참배	(02)732-1206
불교방송	간월암 등 3사 순례	(02)705-5301
전북불교회관	심포해변서 소원성취기도	(063)277-3497

약천사 1080배 철야참회 정진

갑 사 봉화·타종·문화행사

석굴암 제야·점등 신년맞이

낙산사 의상대 해맞이 법회


◇간월암의 해넘이 장면.

전남 해남 미황사는 31일 저녁 마을 주민들과 함께 봉화대에 봉화를 피우며 해넘이를 한 뒤 땅끝 사자봉에서 일출을 맞이할 예정이고, 해남 대둔사는 31일 철야기도를 봉행하고 노승봉서 해맞이 법회를 개최한다. 제주 관음사포교당도 26일부터 새해 1월2일까지 성도재일주간을 맞아 연등공양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전북불교회관은 새해 첫날 김제 심포해변에서 신사년 소원성취 기원법회를 갖고 금산사에서 철야정진을 한 후 새해 오후3시 회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갖는다.

해맞이 법회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울릉도의 진각종 금강원은 31일 밤 11시부터 아침까지 새해맞이 불공을 올리고 합동 해맞이 법회를 갖는다. 제주 보문사는 31일 저녁 9시부터 철야용맹정진에 들어가 재야 타종을 한 후 새해 첫날 인근 용머리해안에서 해맞이 불공을 올린다. 특히 제주 약천사는 31일 저녁 새해맞이 1080배 참회정진법회를 갖고 송악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갖는다.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인 경남 울주 석남사와 경주 석굴암은 31일 밤 제야·점등법회를 갖고 다음날 아침 해맞이법회를 가질 계획이며, 일출의 명소인 양양 낙산사도 31일 자정에 타종을 한 뒤 새해 아침 7시 일출에 맞춰 의상대에서 해맞이법회를 개최한다. 속초 보광사도 31일 저녁 경내에서 캠프 파이어와 촛불놀이를 한 뒤 다음날 아침 동해에서 해맞이를 할 계획이다.

계룡산 갑사는 31일 오후 6시 예불을 시작으로 '신사년 새해맞이 삼불봉 일출 등반 및 성도절 철야 용맹정진법회'를 봉행하고 이어 밤에는 봉화점화와 문화행사, 자정 타종의식을 갖는다.

이밖에 서울 봉원사와 삼보사는 새해 1월 2일 성도절을 기념해 새해 첫날부터 철야정진 기도법회를 갖는다. 불교방송은 31일부터 1박2일간 서산 간월암, 진천 보탑사, 음성 미타사로 새해맞이 성지순례를, 전국염불만일회는 건봉사 낙산사 참배를 떠난다. 하동청소년수련원은 31일 금오산 정상에 올라가 새해 일출을 보면서 소원성취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주부 신행담

사경의 공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결혼이다. 하지만 나는 어리석게도 처음했던 결혼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첫 남편의 성격이 다혈질인데다가 나도 아직 미성숙한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해심도 많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충돌이 잦아졌고 마음의 상처도 커져 5년을 살다가 결국에는 합의 이혼까지 가는 파경을 맞게 됐다.

이후 나는 절대로 결혼 같은건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던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남편 역시 결혼에 실패한 이혼남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잘 알아서인지 처음에는 존중해 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나 고부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혼녀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마구 욕설을 퍼부며 시집살이를 시켰다. 그래도 두 번째는 실패할 수 없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참고 넘겼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시어머니의 학대는 심해졌다.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날이면 찾아와서 '내 아들의 신세를 너 때문에 망쳤다느니' 하면서 욕을 해댔다.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또다시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빠져 가고 있을 때 사촌언니에게 고민을 털어 놓자, 독실한 불교신자 였던 언니는 나에게 사경의 공덕에 대해서 일러 주었다.

사경을 집에서 열심히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름모를 힘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자신도 고부갈등으로 힘들어 〈반야심경〉 〈금강경〉 등을 사경하며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위로해 주었다.

다음날 당장 나는 종로 조계사 근처에 있는 불서 백화점에 가서 〈반야심경〉 사경집을 사왔다. '마하반야바라밀다…' 한문으로 돼 있는 반야심경의 글자 한자 한자를 10번씩 정성을 다해 써내려 갔다. 밥이나 설거지를 하다가도 틈만 나면 사경에 몰두했다.

무엇인가에 몰두하다보니 고통도 사라져 갔다. 1달이 넘어 책 한권을 다 사경하자 같은 책을 다시 구입해


그림 · 이준석

"역경 이겨낸다" 자신감 생겨

사경을 했다. 이렇게 6개월에 걸쳐 〈반야심경〉만 7권을 사경했다. 7개월째로 접어드는 밤에 스탠드를 켜놓고 사경을 하면서 문득 어떤 역경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남을 느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마음은 점점 편해졌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원래 저렇게 사신 분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자'는 생각으로 더욱더 잘해 드리려고 노력했다.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했던지, 명소 절에 나가시던 어머니께서 하루는 집에 들렀다가 내가 사경하는 모습을 보자 좋아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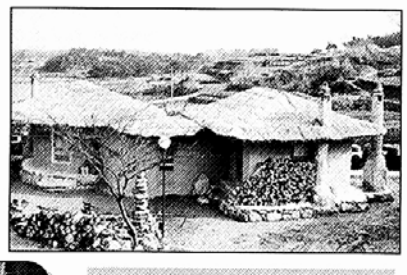
아직도 시어머님과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을 단순히 주어진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경의 공덕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사경에 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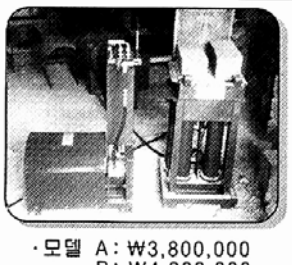
장화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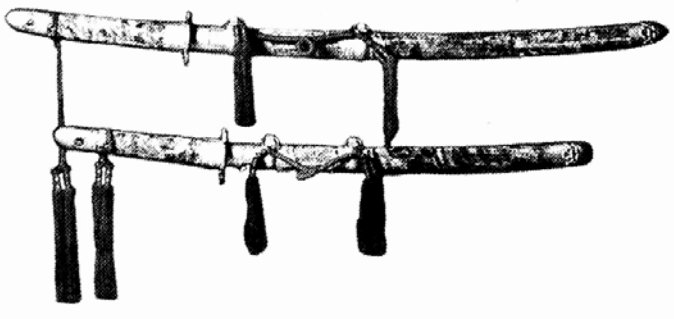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희망과 포부를 나래에 실어 무지개 핀 하늘에 꿈을 드리우는 검입니다.





《《 검을 주고 받는 마음이란...

○ 부모님께 바치는 검의 의미 :
넓고 길은 자애로운 마음이시여!
악한 질병 자르시어 무병장수하소서!
○ 형제에게 드리는 검의 의미 :
우애의 정 깊이 간직하시고 금가는 마음 자르소서!
○ 친구에게 전하는 검의 의미 :
벗이여! 우리의 우정 변하는 마음 자르로서!
○ 자손에게 내리는 검의 의미 :
모든 풍파에도 좌절하지 말고 악한 유혹을 자르며
굳건히 제자리를 지켜 나가거라.
○ 제자가 스승에게 드리는 검의 의미 :
항상 의롭게 빛나는 정신 깊이 보존하시고 약해지는 마음 자르로서!
○ 스승이 제자에게 내리는 검의 의미 :
혼탁한 마음 자르고 밝은 지혜로 큰 세상에 우뚝서라!

부모, 형제, 친구에게 전하는 검은 수족과도 같은 이들에게 못난 생각을 스스로 자르게 하는 것이요, 자식에게 내리는 검은 인생사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부모의 빛이어라

삼 정 도 도 검
본사·공장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99-1
TEL : 032) 677-0085 (代) 032) 674-0081~3
FAX : 032) 677-0084

스님! 불자님께 알립니다.

빈도는 산중초막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는 스님입니다. 수십년 동안 생약을 연구 개발하여 왔으며 현재는 최신시설과 공법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생약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익이 있게 되었습니다. 빈도가 부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소유하고 싶지 않음에 즈음하여 필요한 스님 불자님께 아래 생약제품을 무료로 보시하겠습니다.

무료로 보시하는 생약 입니다.

영지버섯 환 · 용량 : 5개월 분 · 소비자가격 35만원
영생불로초라하여 현대의학에서도 입증하고 KBS, MBC등에 방영. 대한 약학회 진세계 석학 들이 임상 실험한 것입니다.
치매 예방 및 치료 기력 보강, 간해독, 고혈압, 저혈압, 당뇨등에 필요한 제품

강원 인진쑥 환 · 용량 : 6개월 분 · 소비자가격 36만원
간과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배변을 도움고 소화를 촉진시킨다. 식욕을 증진시키고 건강과 활력을 줍니다. 여성들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드립니다.

홍화씨 환 · 용량 : 6개월 분 · 소비자가격 35만원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하고 남·녀 비만제거 방지,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한다. 갱년기 및 노년기에 폐를 튼튼하게 한다.

오령 환 · 용량 : 6개월 분 · 소비자가격 35만원
현대의학에서도 해결 못하는 생약으로 두통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진귀한 생약입니다. 국내 대학 한방 의료진이 입증하고 KBS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에 방영된 부작용과 내성이 전혀 없는 두통치료 제품입니다.

만령단 환 · 용량 : 6개월 분 · 소비자가격 120만원
산중 사찰에서만 전수 내려오는 최고의 비법 생약입니다. 옛말에 불치의 병은 만종류 생약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에도 못고치는 불치의 각종병 원균에 꼭 필요한 생약입니다. (예:암종류, 치매, 에이즈, 각종 불치병)생약 100여 종류로 밀도가 정밀하게 혼합하여 만든 생약입니다.

스님, 불자님 부담없이 연락 주십시요. 정성껏 보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행정당국의 허가 및 합격 심험을 거쳐 최신 자동시설로 생산되었으며 2년간 변질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고급 포장 되었습니다.
- 본제품 중 1인 1품목에 한하고 300분께만 선착순 드립니다.
- 어려운 영세 불자 및 스님께는 언제든지 무료로 보시합니다. (영세민 증명 : 승려증 시본 첨부)
- 본 제품은 무료로 보시하오니 국가에 납입하는 세금 10% (부가세) 우편 우송료 2,5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예 : 복권당첨시 세액 20~30% 공제)
- 필요한 분은 아래 사서함(주소)으로 주소, 성명, 제품명, 전화등을 기입하신 후 우편 연락주십시요.
- 세금 및 우편 소포 금액은 아래 은행으로 송금

농협 204065-52-076301 예금주 : 이 금 열 새마을 금고 4109-03-007720-1 예금주 : 이금열
보내실 곳 : 서울 청량 우체국 사서함 181호

한국 간호 의료 봉사단 031-528-4822 017-737-4821

현대불교신문사 구독문의 0二-七三七-八八八一

안으로 향해야 참 자기 맛볼 수 있어

물질·정신 둘 아닌 도리

문 예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모두 글자로만 이해하고 살았고, 내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상이 높았었습니다. 스님 말씀을 신문지상에서 접하고도 한참을 문자로만 읽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정신적 성장도 없이 내 마음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헤매는 걸 보고 내가 하고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말씀을 생활에서 정말 적용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풀려나가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맛을 조금이나마 보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나마 마음공부를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님을 알고 높은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답 이렇게 해나가려는 분들을 보면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세상 이치가 도라고 생각하시고 정신계와 물질계를 혼합해서 공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말입니다.

요만한 것 하나도 다 지구에 권리가 있고 부처님한테 권리가 있고 부처님 법에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공법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바깥으로 보이게 일을 하니까 바깥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합니다. 내 생명력이 아니라면 바깥이고 안이고 간에 움죽거릴 수가 있을까요? 생명력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불성입니다. 그 생명력이 바로 자기 에너지 주장자요, 불성이요, 바로 자기가 자기를 구하는 이름이죠.

모두들 선을 한다 하면 화두를 받아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바로 화두예요. 그래서 과거 자기, 현재 자기라고 방편상 말을 했습니다. 현재 자기는 과거 자기를 찾아야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을 보고 듣고 만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저 주인공이라고 방편으로 씁니다마는 주인이면서 공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친근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과거 자기가 현재 자기와 둘이 아닌 줄을 안다면 그때서는 세상 천지가 다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이 세상 모두를 둘 아니게 할 수 있게 항상 응신으로 화해서 나투어 줍니다. 지장으로 나투어 주고, 관세음으로 나투어 주고, 약사로 나투어 주고, 지신으로 나투어 주고, 용신으로 나투어 주고, 항상 이렇게 찰나찰나 화해서 응해주니까 응신이죠.

그러니 모든 걸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놓고 가시면 진짜로 믿는 게 되고, 진짜로 자기 아닌 자기를 맛볼 수 있죠. 그럼으로써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죽고 사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공했다는 도리를 알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활하지 못하고 정말 참 보배의 맛은 알지 못하고 가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내가 생명력이 없다면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세상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거기로 인해서 다 통신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요만한 티끌만큼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안으로 일임해서 맡겨놓고 자유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 떼어서 나가고 싶어

문 세상 어느 곳에도 섞여있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잡게 된 후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그저 방황 속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오직 주인공뿐인 걸 무엇이 이토록 저를 힘들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지 저는 자꾸만 지쳐갑니다. 한 발짝 떼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끝이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 나의 이 몸이 어디에서 왔느냐? 내 몸뚱이 속에 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한데 합쳐서 운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수 억겁을 거쳐오면서 입력된 세포들의 의식이 하나하나 풀려 나와서 이 몸이라는 껍데기가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산다, 내가 한다, 내가 먹는다.' 하고 내가, 내가, 내가, 라고 말들을 하는데 정말 이 도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을 못할 겁니다.

학생들이 호랑이 탈바가지 쓰고선 놀죠? 사람이 뛰니까 바깥의 그 탈바가지는 덩달아 따라서 뛰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나를 본래 이끌어 가는 나의 참나, 나의 부(父)이자 영원한 스승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나의 근본에 다 맡겨놓고 자유스럽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다 보면 내 안에 분명히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된다면 하나하나 실험을 해나가면서 체험을 하게되고, 그렇게 체험을 해서 감응이 된다면 나의 근본과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 억겁을 거치는 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보이는 모습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이 마음마저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참다운 사람의 행동을 하고 진정한 자비를 실행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니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힘들다 내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그 자리에 다시 돌려놓아서, 힘들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모든 것을 하게 하며 이끌고 가는 나의 근본을 진실하게 발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초하루·보름의 의미

문 예로부터 절에 가지 않던 분들도 초하루, 보름은 절에 가서 보시도 하고 절을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날은 '법계에서 총 점검하는 날'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일요일날이 초하루, 보름이 되야 갈 수 있지만, 평일이면 가지 못하고 축원만 올리는 때도 있거든요. 일요일이라도 공무나 개인적인 피치못할 사유로 못 갈 때는 '가지 못했다', '게을렀다'는 것에 걸려서, 다음날 선원에 가서 보시를 하기도 하고 주인공 자리에 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못 갈 때가 있지만요. 절에서 하는 행사에는 꼭 가는 것이 좋은지, 참다운 의미를 되새겨서 올바른 공부로 정진코자 하오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절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주와 직결이 되고 수레바퀴처럼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그 근본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가설이 돼 있구요. 그러니 어느 누구든 자기 마음으로 알면 통신이 되는 법이지, 남이 모른다고 해서 통신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통신처입니다. 우주의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가 한생각 내는 것에 의해서 전부 통신이 되고, 한마음으로 직결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과 더불어 한데 합친 한마음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바 없이 지켜보는데, 남이 지켜보는 것 보다도 여러분 마음에서 아는 그 자체가 그대로 더불어 한 마음에 즉각즉각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거짓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그저 주인공 뿌리만이 알 수 있고, 뿌리만이 다스릴 수 있고, 뿌리만이 해결할 수 있고, 번뇌를 녹일 수가 있고, 영계성, 세균성 또는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 현실을 상응하면서 모든 거를 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성을 가지고 거짓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있어 바로 이 마음 씀씀이와 행동 하나, 말 한마디까지도, 귀로 듣는 것도 조심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서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남의 일에 참견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음이니 정성을 안 들이고 보시를 안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부처님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서 '내 몸도 여래의 집이요, 도량의 부처님 자리도 만중생과 한자리하는 소중한 곳이니, 이 집을 운영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테니까, 그저 초하루 보름에 내가 축원을 올리면서 정성을 드려야겠다' 이게 바로 남의 집이 아니라 내 부처님의 집이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것이 더불어 한마음의 법당이 되는 것이고, 내 몸이 바로 극치적인 법당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네 집도 법당인 것입니다. 모두가 법당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모두가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어찌 '이건 부처가 아니야, 이건 형상이야' 이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도 또한 나의 몸이나 똑같은 건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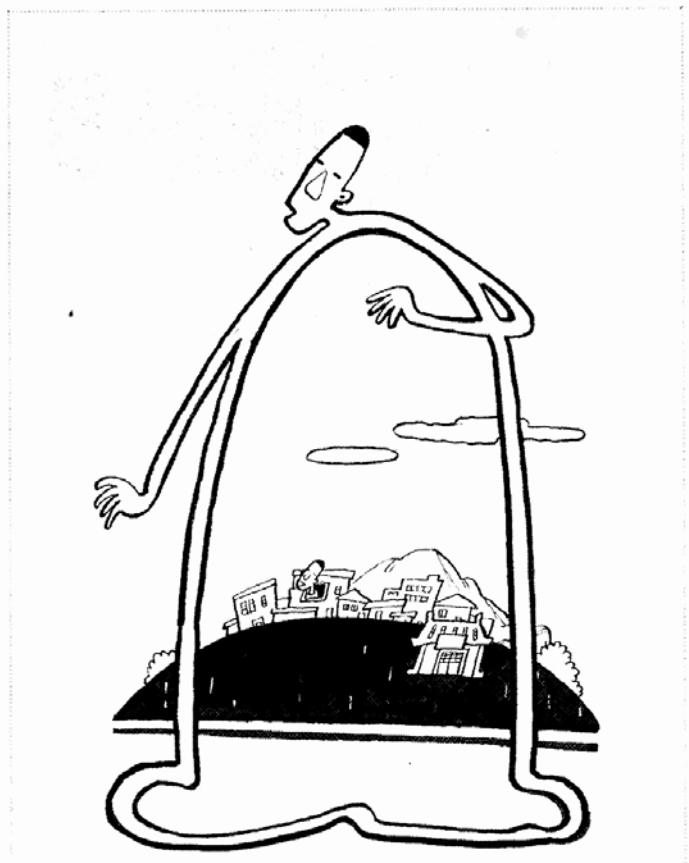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과거자기-현재자기 둘 아닌 줄 알면
세상천지가 다 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세상 모두 둘 아니게 나투어 줍니다

그리고 우주를 싸고 있는 부처님의 마음이 거기 서리고 있는 이상 어찌 그것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마음이 엄숙해야 되고 항상, 내가 혼자 앉아 있다 하더라도, 하다 못해 변소에 갔을 때도 엄숙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재빨리 가볍게 내뱉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좋아도 스무드하게 아주 언짢아도 스무드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자비이며 지혜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인연 외면하지 말고 가는 인연 잡아끌지 않으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나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극하게 실천하고 가세요. 고정된 마음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진실하게 가지시고, 활달하게 생각하고 뛰어 넘으세요, 매사에 다 그렇게요.

21일 기도중 하루 걸렀는데…

문 어느 스님께서 쓰신 기도법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1일을 기한으로 삼고, 밤마다 자기 전에 향 한 자루를 피워 놓고 광명진언을 외우면서 영가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 한 다음,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서 마음의 평정을 주십사 하고 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한 8일 동안은 빼 먹지 않고 꼬박 꼬박 기도했고, 마음의 평정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젯밤, 나름대로 바쁜 한 주를 보낸 후 긴장이 풀려서인지, 그만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자고 말았습니다. 21일 기도 중 하루를 빼 먹은 것이 되는 건지요. 21일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은 날짜만큼만 정성 들여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부처님 법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바로 도(道)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어떤 것을 나누어서 이것은 부처님 법이고 이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주부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시간 맞춰 기도를 해야 만이 신상이 풀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기도할 때는 지구가 돌아가고 기도 안 할 때는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염주를 목에 걸고 손에 들고만 다녔지 염주가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염주를 돌렸다 놨다, 돌렸다 놨다 한다면 그것은 시공이 끊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한 발 딛고 한 발 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염주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진리인 까닭에 그대로 도이며, 참선이며, 모든 것에 어긋나지 않는 여여함입니다. 그런데 생활은 따로 놓고 법당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대 성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신부터 알라고요. 네가 태초요, 네가 바로 부처요, 네가 있으니 상대성이 생긴 것이다. 세상이 벌어진 것도 나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안 계시다면 모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영원한 근본 자체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내 한생각에 일체만법이 들고 나는 도리를 상세히 아실 겁니다. 이 길이라 함은 시발점과 종점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로 여여해서 여래라고 한 것입니다.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릴 수 있도록, 스스로 나는 업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고가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다는 생각도 말고 모든 것을 용광로에다가 놓듯이 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금은 금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이요, 은은 은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이요, 차원대로 자기가 짓는 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나온 자리에다 되돌려 놓는 공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처를 따로 정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이 바로 기도처이고 내 생각 하나하나 나오는 것을 나오게 한 근본에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곳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기도 아닌 참 기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어디에 있나요

문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요, 저의 부모님께서는 주인공이 너의 뿌리이니 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주인공에다가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저에게 자꾸 믿으라고만 하시니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믿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주인공을 믿어야 하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답 스님이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요즘은 학교에서 벼워서 잘 알겠지만, 이 세상에 네가 태어나려면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태어났다고 배웠겠지? 그런데 엄마와 아빠의 정자 난자가 결부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수없이 살아 나온 너의 과거 생명력이 한데 합쳐져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란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 그리고 과거 너의 생명력,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야.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잉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의 네 모습은 반드시 과거 자신의 근본인 주인공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산다, 내가 공부한다, 내가 먹는다.' 하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신의 근본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의 마음과 둘이 아니요, 또한 부처님의 몸과 둘이 아닌데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한다면 수 없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너를 이끌어 온 너의 진짜 자기를 무시하는 거야.

너의 주인공은 부처님의 마음과 둘이 아니기에 에너지 통이나 같아. 그래서 너의 근본의 능력이 본래 충만하다는 것을 믿고 마음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장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인공을 믿지 않는다면 저 나무들이 뿌리를 믿지 않는 거와 같다는 거지.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와 같애. 저 나무들이 뿌리가 잘라진다면, 뿌리가 없다면 어떻게 살까? 그거와 같아. 그러니까 절대적이야. 수 백년이 가도 그건 절대적이야. 그래서 근본을 불성이라고 하고 자불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맡겨 놓고 편안히 살라고 하는 거란다.

너도 느끼겠지만, 특히 요즘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렇고, 길거리를 지나갈 때도 그렇고, 안 좋은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가 됐어. 그래서 항상 자기 주인공을 믿고 다녀야만이 자기가 급할 때 보디가드가 돼줄 수 있어. 내 안의

☞ 20면으로 계속

거꾸로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모든 것 나온자리에 되놓고 편히 살라

☞ 19면에서 계속

근본, 주인공에 모든 것을 믿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모두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이끌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너의 영원한 친구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마음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꼭 그렇게 해

남 앞에 서면 떨리고 긴장 돼

문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면 무척 떨리고 긴장이 되어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가르침 주십시오.

답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해나간다면 떨리지도 않고 차분하게 매사 것을 해나갈 수 있을 텐데도, 자신의 근본을 믿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대를 의식하고 내가 잘못하면 어쩌나 하고 생각으로 붙잡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는 것이지요.

나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수 억겁을 통해서 자신을 이끌어온, 자기 생명력이 바로 자기 주인공예요. 그러니깐 진짜로 자신의 근본을 믿으세요. 그리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모든 거를 전폐하고, 지금 현실의 모든 걸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관하는 겁니다. 이건 제 뿌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던가 그럴 때는,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나와 동떨어진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주인공, 당신만이 떨리지 않고 긴장하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진실하게 관하세요. 내 안의 근본과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집중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대중 앞에만 서면 떨리고 두렵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하고 마음으로 자꾸 붙들고 있지 마시고, 나의 근본을 믿는 마음을 키우세요.

이것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본다면, 내 안에서 다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도 먹고 싶은 대로 자연스럽게 이거 먹고 저거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도 몇 차례를 먹고 마시고 하면서도 내가 소화를 잘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맡겨 놓는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자고, 또 화장실에 갈 때는 가서 시원하게 처리를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함이 없이 잘들 하고 가면서도 '내가 해야한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고 막아서서는 애탄지탄 하고 사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내 몸 안에도 수 없는 나 아닌 나의 의식들이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신다면, 어떤 것이든 일체와 한마음으로 연결된 나의 근본 뿌리를 믿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믿는 다면 그렇게 마음으로 조급하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근본, 에너지 주장자를 진짜로 믿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냥 주저없이 행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무한한 능력이 본래 갖추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근본을 믿는 마음이 확고해질테니까요. 그렇게 근본을 믿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면, 아마 어디에 내놔도 겁내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될 겁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하는지요

문 어느덧 30에 다가서는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결혼과 동반자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결혼이란 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독신을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즉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여태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더욱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큰사랑 실천을 위한 수행자들처럼 말입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마음공부는 출가를 했든 안했든 그걸 떠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가를 하는 것은 가정을 버려야 하고, 부모 형제에 대한 애착을 다 버려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와서는 나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철 살다 가는 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생사윤회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죽고 사는 데만 걸리지 않는다면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죠? 안 그렇습니까?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 그런데 살아 나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갈 자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게 생사 윤회를 활랑 다 치워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하는 것보다도, 우리 몸뚱이가 공해서 없는데, 세상도 공해서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오기는 어디로 왔으며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철 나는 데에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더 얽매여서 사는 수도 있고, 비록 속가에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도리를 열심히 추구해서 보이지 않게 가족과 조상들까지 모두 건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진실히 믿고 관하면 해결 안될 문제없어

결혼하려면 사랑·자비 스스로 우러나야

그렇다고 이상에 맞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얼른 쉽게 말해서 '저 사람 참 안됐다, 안됐으니까 내가 희생하더라도 결혼을 해줘야지.' 이런 결혼은 안되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비가 돼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살 수 있나를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면에서 허락을 받아야 이끌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허락을 안 하는 사람은, 조건도 좋고 다 괜찮은데도 천상 안 된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나를 속박하고, 그거 뭐, 평화스럽지도 못하고, 또 쇠사슬로 묶어놓는 격이니까 속박 받기 싫으니까 아예 결혼할 필요도 없다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아주 괴팍하게 돌아가는 셈이죠. 그런데 괴팍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삶의 근본을 조금조금, 그래도 살아가면서 알아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를 행하고 살아간다면 결혼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를 떠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고, 내가 지금 내딛는 발자국만 진실하게 떼어놓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보배가 나에게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근본에다 맡겨놓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

문 하루를 생활하는 중에도 습이 올라오면 스님 말씀을 잡고 관하고 관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편안한 마음이 들면서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도 '비워야 할 때가 되면 비워지겠지, 주인공이 우리 식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하고 관하고 있었더니 정말 일주일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남편공장 한쪽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스님 이 도리를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답 진리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항상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만남도 고정되지 않고, 보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듣는 것, 가고 오는 것, 먹는 것 전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는 바로 찰나 전이고 미래는 찰나 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연방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찰나 전 찰나 후가 지금 돌아가는 가운데 잘하고 못하고, 잘되고 못되고를 따지면서 대상을 두고 살아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살림살이죠.

예를 들어서 '상점을 하나 내는 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딜 얻어야 되는 가는 상식입니다. 어떤 거든지 그 용도에 따라서 가게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가게를 얻되 물건들이 썩지 않고 잘 보관될 수 있는지, 잘 팔릴 수 있는지 등등의 문제를 잘 살펴서 책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이 둘이 아닌 가운데서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봐서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를 계산을 하지 말고 못 버는 거 잘 버는 거를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만이 우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요량이 생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도 없이 빚을 내서 가게를 한들 이자로 다 빠지지 뭐가 남습니까? 먹고 사는 건 거기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선은 좀 고되더라도 끌고 다니며 뭐라도 팔든지 하면서 경험을 자꾸 쌓아 나가면서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모두 각자에게 잠재된 것은 누가 갖다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어놓은 것은 여러분이 녹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가 말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끊어야만 하겠습니까? 물질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 지은 거니까 마음으로 녹여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해라, 기복으로 나가지 마라' 하고 끝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고 맡길 곳은 한 곳, 자기 근본 주인공밖에는 없습니다. 살면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처절하다 할지라도 주인공을 붙들고 울고, 사는것이 서럽고 비참해서 눈물 흘릴 때도 주인공을 부여잡고 우십시오. 그 길만이 이 생에서 실타래처럼 꼬인 팔자와 운명을 뒤바꿔 놓는 길입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생활이 그대로 진리를 실천하는 도량임을 알고 지극하게 주인공을 둘 아니게 찾는 다면 일체제불이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딸들이 혼기 놓치고 있어요

문 제게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좋은 인연이 없는지 점점 혼기를 놓치고 있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딸들을 위해서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그걸 절더러 묻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하게끔 하세요. 그래야 활력소가 돼요. 부모가 그런 걸 걱정을 하고 자꾸 염려를 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들은 생각을 하다가도 그냥 굉개쳐버리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하다가도 시들해지면 안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들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활력소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일이 되고,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인연이 되고,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러는 거지 어디 누가 갖다줍니까?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임신해서 어린애를 가지게 되면 정자 난자로 인해서 그 아기의 모습을 형성시키죠. 그런데 태어날 아기가 전자의 원소를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까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을 믿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사람이 말하고, 에너지를 쓰고, 움쭉거리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불성이에요, 자성불 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가진 현저 자기가 과거의 불성을 믿어 야죠. 그게 에너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내면 에너지가 활력소가 되죠.

그러니까 팔자니 운명이니 인연이니 하고 밖으로 끄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부터 먼저 알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자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지 누가 이끌어 갑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인연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인연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 관하는 거를 요령 있게 잘 하세요. 용도에 따라 병이 들면 약사가 되는 거니까, 병이 났으면 관해야죠. 또 뭐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도 관하고 말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믿고 관한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말고 유순하게 마음을 쓰세요, 유순하게, 강하게 쓰지 말고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친근하게 자꾸 해요. 당신 주인공밖에는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단지 좋은 인연을 만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멋진 부처님 심부름을 하게 될 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天蕷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춤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7-0047

모집
제6기 불심호스피스 · 간병과정

불교복지보건대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불심 호스피스 및 간병봉사 전문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식 및 간병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가족의 건강관리는 물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 육 내 용

■마음, 만 생명의 근원(마음개발)
■산모간호와 애기 돌보기
■기초간호 실습
■말기 임종환자와의 의사소통
■음악과 건강
■한의학 이론과 한방간호
■생명의 의지와 가치
■인간의 이해 및 봉사자의 자세
■물리치료 및 재활요법
■만성질환과 간호
■임종간호와 영적간호
■건강과 질병(노인간호)
■심신이완요법(발반사요법)- 3회
■거동이 불편한 환자간호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말기환자간호 및 통증관리
■호스피스 역사와 철학
■건강증진법
■경락 이론 및 맛사지
■병원견학 및 실습
■불교호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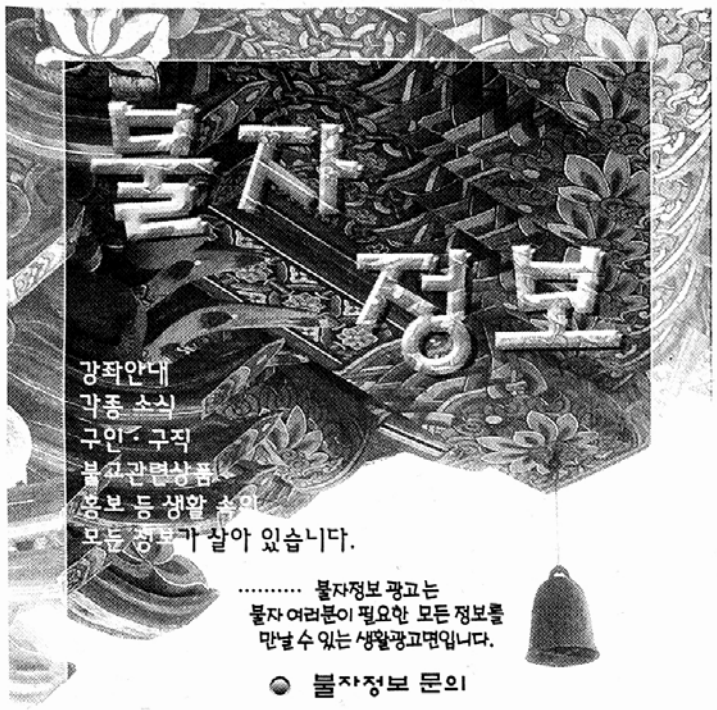
강 사 진 스님, 의대 · 간호학과 교수 및 최고실무 경험자

개 강 일 : 2001년 1월 9일 (화요일)
강의시간 : 2001년 1월 9일(화)~4월 6일(금)
강의시간 : 매주 화 · 금 (오후 2~5시)

대 상 : 19세이상 ~ 60세까지의 남 · 녀
수 강 료 : 월 5만원(교재비 포함)
특 전 : · 수료증 수여 · 봉사활동 지원
· 유급활동을 위한 지원 가능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학 장 혜도스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3-5 대야빌딩 4층

문의 및 접수
051) 462-5670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 · 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김 창 본
011) 545-7252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깨침 건강 자유
마음을 마음대로
삶을 온전히 누리기
www.now here truth.com
(읽기만 해도 일체의 미혹이 해소됩니다)
016-206-1001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강사 : 엄윤문 원장 (명학비해 外2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2)752-9013

청운역리 학원

男女철학원생모집
과 목 풍수, 사주, 작명, 궁합, 관상, 부적
과 정 초급반, 고급반, 개원반, 자격증반
강 사 원장직강(사주비전外 10여권 저술)
사주 · 감정 의뢰하실분(3만원입금후 전화요)
계좌번호 기업은행012-027395-01-017달미사
근달마사 포교원 달마스님
(051)328-5551 (051)312-4804
(02)999-5551 · 999-4804

구갑염주, 합장주 구갑은 장수와 행운을 뜻합니다.
· 108 염주 150,000원 고급기공 케이스포함
· 매듭합장주 30,000(10mm)
서울판매처 길상원 (02)722-4435 (조계사 앞)
지방 - 전화를 주시면 물건을 보내드리고 대금은 후불로 받습니다. (구갑사)
02)444-2822
017)208-2822, 018)293-2823

포교원 안내
- 양천구 신정 4동 111번 종점 위
- 법당 : 약 15평, 방 2개, 세면장, 거실 겸 주방
- 보증금 : 천만원 월 40만원
- 권리금 : 답사후 결정

02)2601-7759
016)280-1007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소원성취/특수작명 · 개 명 · 신생아 작명 · 상 호
- 운명이 확 바뀌는 개명(改名)비법 -
◆ 사업부진, 삼재예방, 부부불화, 교통사고 예방
◆ 시험합격, 결혼성혼, 금전문제, 매매성사
신년운세, 성명 감정 2만원, 전화로 예약하면 3일안에 집에서 받아 볼 수있습니다.
(053) 982-4976 · 011)813-3697 **지장선원**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판매 합니다. (직접가공함)
≪ 흑단염주, 108주 : 6천원
≪ 합장주 (매듭) : 천 오백원
≪ 일천주 (케이스 포함) : 6만원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번지
덕림산방 : 박 정후
연락처 : 061-337-4879
011-610-4879

영가 천도
대한불교 조계종
성거사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근처)
041) 567-6820

40대 비구스님
조용한 암자
관리하여 드립니다.
▷명리학 능통◁
011)879-3217

급 신속한 소식 기다립니다.
· 공양주 2명
· 부전스님 1명
011)661-9119

공양주 모십니다.
- 60세 미만 -
▷신림동 약수사◁
02) 877-7514

행 자 모 집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조계종)
www.TVbuddha.co.kr
- 우리나라 최대의 7층 대법당, 최첨단 시설
- 21C 세계불교를 이끌 의식있는 수행자 양성
- 노동보다는 수행과 교육위주 - 모든 지원
- 불교발전의 획기적 모델 / 한 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행자 전용교육장 / 남 · 여 행자원(위탁교육가능)

대 구 (053) 474-8228 정규교리반, 통신반, 인터넷반 - 학생모집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충북 증평 -
011)486-4408
043)838-3562

안 내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신도 중 보살님)
· 법패를 가르키는 강사입니다. 연락바랍니다.
031)865-4893
011)661-9119

배우자 구함
◎ 女 51세 (자녀 없음)
◎ 대구, 경북 거주자 원함
◎ 전직 공무원, 미모 겸비
– 불자의 만남
불연 결혼 연구원 –
053)982-6778
011)9353-6006

행자 모집
만 19세이상
38세미만
학력 : 고졸이상
042)583-5214

公 告
· 주민등록번호 : 5000428-1542913 · 이 름 : 이 후 성
· 법 명 : 호 산 광주광역시 남구 박림동 광덕사
上記人은 本宗 종헌 108조 1항 종법 4장 15조 2항 및 4항에 의거하여 除名을 公告 함.
2000년 12월 15일
무량본종 총무원장 이령관 덕왕사 이혜정(혜연)

탈중공고
· 법 명 : 혜 성 · 이 름 : 황 옥 희
· 승 적 번 호 : 8-03 · 주민등록번호 : 620212-2462713
위 승려는 귀종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없어 2000년 12월 15일자로 탈종함을 공고 함
2000년 12월 17일 혜 성 (황옥희)

사찰 안내
- 건물 : 1층 법당 2층 요사채, 도로변 인접
- 가액 : 3천(전세)
· 가격절충 가능
· 월세 전화 상담
018)557-8078

사찰 안내
- 위치 : 수유 4동
- 부지 : 대지 60평 건물 20평
- 가액 : 전세 4천만원 (즉시 입주가능)

※ 김원도 사찰에서 여생을 기도하면서 보낼 보살님은 연락 바랍니다.
011)335-015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보문산 옆
- 가액 : 전세 3천 시설비와 물품은 답사 후 절충
- 시설완비
1층 - 공양간 20평 방 1칸
2층 - 법당, 산신각, 방 2칸, 37평

011)430-3344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 부지 : 118평 - 법당 : 18평
- 요사채 : 25평 - 가액 : 6천 5백
- 청평 800평 1억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완도군
- 가액 : 2천만원
- 인법당 : 17평, 방 3칸

061)553-196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 (버스 정류소 8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전세 1억 5천)

016)651-1800
011)870-1463

하우스(토굴) 장기임대
■ 위치 : 경기 용인 외대 ■ 전세 : 4천만원
■ 대지 : 150평 전답 300평 사용가능
■ 건물 : 법당 요사 욕실 주방 특수제작 (50평)
■ 용도 : 선방 화실 도예 연구실
■ 특징 : 자연 암반 1급 약수터 잣나무 숲과 등산로 멀리 남한산성 바라다 보이며 마을과 1Km떨어져 있어 동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터임. 대중교통은 서울근교에서 최고임 즉시 입주 가능함.
연락처 011) 888-053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위치 : 충주	• 위치 : 부산
• 법당 : 11평	• 법당 : 22평	• 법당 : 23평
• 요사 : 25평	• 요사 : 50평	• 요사 : 35평
• 부지 : 425평	• 부지 : 350평	• 부지 : 200평
• 가액 : 2억 8천	• 가액 : 8천 5백	• 가액 : 4억 5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양도 · 인도 할 분
○ 군위 우보 IC에서 10분거리
○ 대지 169평 토담집 3채
○ 양도가 3,500만원
※ 1년 사시면 반드시 福터
- 마당 넓고 뒷山 명당지
마을 맨 끝집 휴양지, 기도터



○ 군위, 고로 인각사 부근
○ 대지 151평 밭 724평은 집앞 100M떨어져 있음
○ 암반, 계곡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
○ 황토집 2채 - 불때면 3일간 따뜻
○ 양도가 3,900만원

사찰, 창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광역시 근교
- 부 지 : 1,000평
- 법 당 : 30평 (목조, 단청완료)
- 요 사 : 40평 (2동)

※ 주변은 소나무산으로 둘러 쌓인 청정 기도포교 도량임
※ 부산역 기점 김해쪽 1시간내 거리임
- 양도가 : 5억

- 위 치 : 경남 진주시 근교
- 대 지 : 6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2동 80평

※ 70년 전통의 역시 깊은 포교 도량임 신도수 많음
- 양도가 : 3억 3천 (분할 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 양지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주시 운천동
- 평수 : 65평, 방3개, 주방, 샤워실
- 특징 : 시설 A급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41-3195

사찰(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 부지 : 임야 9,500평 대지 300평
- 건물 : 조립식 · 방가로 · 흙집
- 가액 : 1억 (답사 후 절충가능)

※새로 설립할 사찰부지로 최적이며 특별공양가로 모시겠음
011)9077-0687

사찰(급)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 대지 : 60평
- 건물 : 1층 36평 (요사) 2층 25평 (법당)

※ 주택가 뒤산밑 위치, 차량진입 가능 교통 편리, 50여년의 연혁으로 특히 법당 잘 모셔져 있음. 급한 개인사정에 속히 양도코저 함
011)234-5967

사찰(터) · 납골당안내
- 장소 : 원주시 문막면 비두리
- 평수 : 63,000평
- 가액 : 평당 4천원

좌청룡 우백호 큰 사찰터나 납골당 유력지. 산세좋고 물이 많이 흐르는 천연의 대지입니다.
011)286-2680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약 600평
- 법당 : 약 16평, 산신각 : 4평
- 요사채 : 약 35평, 현대식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어울어진 청정지역의 기도 정진할도량으로 아주 좋음. 교통편리

043)832-4785

사찰(급) 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2층 독채 48평 기름보일러
- 구조 : 법당1, 방2, 부엌, 화장실, 샤워장
- 조건 : 보증금(시설비) 총 2천6백[월 45만원]

※ 보증금 없이(선세) 1년에 840만원도 가능(월70)
053)255-662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명일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3층 30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보증금 1,500 월 50만원
- 시설비 : 절충

02)481-4483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소재
- 부지 : 320평(종교부지)
- 법당 : 40평(목조, 단청) - 요사 : 60평
- 가액 : 11억 2천만원
- 특징 : 도심속의 전통사찰로 기도와 포교도량으로 아주 좋음.

※ 전국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53)964-0455

좋은 인연입시다. 서울 02)326-1060
동진불사 대구 053)655-1062 · 1063
휴대폰 018-334-9021

포교당 안내
- 위치 : 미아 3거리
- 평수 : 46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일체 무료

02)941-3195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25×10×8m) 코너
- 건평 : 120평
- 불기구 5천만 무상 제공 (포교원 최적)
- 용자 포함 매 5억 2천

사정상 급매
031)454-1133
011)386-6467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 시장 내에 3층
- 평수 : 35평 10년 됐음
- 가액 : 5천만원 전세

02)2618-0767
011)753-0768

포교원 안내
- 위치 : 수원시 연무동 274-14
- 법당 (25평) 요사 총 45평
- 가액 :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포함)
011)9760-3520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함양 용추 계곡 옛남집 1채, 화장실, 전기, 전화 약 5,100평 도로에서 7분거리
- 특징 : 물좋고 폭포 산세좋고 함양 남덕유산, 거창 가막산 산천 지리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좋은 앞과 뒤가 한일자형 교통편리 함. 거창에서 안의 용추사까지 하루 13번 운행.

055)962-0082/963-33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송상현 동상옆 진경경찰서 입구
- 건평 130평 법당 70평 방 5개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특징 : 시설 일체 완비 양도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 법회가능
055)326-0671
011)843-5672

'붓다뉴스' 사이버 상담 '인기'

일간인터넷신문 붓다뉴스닷컴(buddhanews.com)이 지난 6월 오픈과 함께 개설한 신행상담코너에 불자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사이버 공간의 신행 길잡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사찰에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등 사찰예절에 대한 문의와 함께 삼천배의 의미, 참선, 염불 등 수행방법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아 불교 입문자를 위한 사이버 신행상담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인터넷 상에서 불교를 처음 접했다는 유세일(회사원·서울시 양천구 목동)씨는 "불교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으로 붓다뉴스닷컴 상담코너에 들어왔는데 질문을 하면 즉시 답변이 올라와 불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지금은 수계도 받고 절에도 열심히 나가는 진짜 불자가 됐다"고 말했다.

신행 경력이 많은 불자들의 상담도 많았다. 이들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차이점, 원시불교의 선악관, 교·선종의 차이점 등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자신의 궁금증을 상담을 통해 해소하길 원했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싶다는 불자들이 봉사나 후원단체를 소개해 달라는 내용도 있어 상담이 불교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실천행으로 연결시켜주는 구실도 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이같은 상담은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려주면서 신행의 구체적



◇서동석 사이버법사가 인터넷 신행상담에 응하고 있다.

청소년·초심자 등 사찰예절·수행법 물어

신속한 답변…봉사단체 실천행 안내도

인 안내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밝힌 박주연군은 "사이버 법사님의 답변을 듣고 불교에 호감을 가지게 됐다"며 "부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불자들이 상담코너를 통해 질문한 내용은 불교용어 및 교리문의, 기도법, 사찰구조, 생활속에서 느끼는 갈등, 유사종교에 대한 문의 등으로 이용자층도 초등학생부터 60대 어르신까지 다양했다. 특히 교계 일부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상담코너가 관리부재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과 달리 붓다뉴스닷컴은 전담 사이버 법사를 두고 초심자와 불심 깊은 불자, 무종교인들에게도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자상하게 풀어주고 있어 인터넷 포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붓다뉴스닷컴에서 사이버 상담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총지종 복지재단 서동석씨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이버 공간이 또다른 신행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됐다"며 "앞으로 사찰이나 종단에서 사이버 포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붓다뉴스닷컴은 이같은 상담사례를 분석해 조만간 책으로 묶어 초심자는 물론 신심 깊은 불자들에게 신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조계종 '케이블카' 반대

한라산·미륵산등 9곳…"수행환경 크게 훼손"

조계종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림훼손의 주요 원인인 케이블카 설치 반대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 19일 제주 한라산, 통영 미륵산 등 9개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통해 "문화관광부는 관광수단으로서의 케이블카 설치 홍보를 중지할 것과 환경부는 케이블카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조사하여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막는 주무부서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통영시 미륵산을 비롯 지리산, 월출산, 해남 두륜산, 울산 신불산, 밀양 얼음골, 남해 금산, 산천 각산, 한라산 등 모두 9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등 지자체들의 경제적인 이익추구 앞에 소중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산야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의 수행환경 역시 크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통영시가 추진중인 '미륵도 관광특구 사업계획'의 경우,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 사업으로 통영 미륵산의 생태계와 유서깊은 용화사와 미래사의 사찰환경이 크게 위험에 처해있다는 게 조계종의 우려다. 해발 461m의 산에 관광용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산 정상에 조망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이 계획은 국비 22억 및 도비 3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35억을 들여 관광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영시는 해발 440m지점까지 수평거리 1,990m, 선로거리 2,040m에 이르는 자동순환식 곤돌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개의 대형 쇠말뚝을 산허리에 박게 된다.

김재경 기자

장경사 송전탑 노선 바꾼다

한전 계획변경 합의

전통사찰인 장경사 인근을 지나는 고압송전로 건설계획이 6개월여만에 불교계와 지역주민의 노력끝에 노선 변경으로 마무리됐다.〈본지 293호 22면 기사 참조〉

경기도 용인 장경사와 용인시 학일리 주민들은 지난 15일 한국전력 관계자와 만나 장경사와 학일리 인근을 지나는 34만5천V 신안성-신용인간 고압송전로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노선을 400m 떨어진 축령산 서편 능선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또 학일리, 장경사, 송죽골 인근에는 향후 어떠한 송전선로도 건설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노선변경과 향후 송전선로 건설 공사 후 발생하는 문제는 주민과 한국전력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노선은 장경사로부터 400여m 떨어진 곳에 건설하기로 해, 장경사와 학일리에서는 산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게 된다.

장경사 주지 정휴스님은 20일 "불교계는 물론 지역주민이 뜻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환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박봉쪼개 노인 위안잔치

광주서부서 불자모임

경찰 불교신도들이 박봉을 쪼개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열쳐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 불자모임인 서불회(회장 임희철 경사)는 16일 서구 담배인삼공사 예식장에서 외로운 어르신 120명을 초청, 영정사진 무료촬영과 음성 공양 등 송년 위안잔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과 무각사 주지 광민, 법륜사 주지 월인스님, 정동채 국회의원, 이정일 서구청장, 임학우 서부경찰서장,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단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임희철 서불회 회장은 "회원들의 박봉을 조금씩만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장기기증운동등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성탄절 무르익는 '종교화합'

범어사·삼광사 주지 천주교 성당 방문

부산 범어사·삼광사 주지스님들이 잇달아 천주교 부산교구청을 방문해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등 종교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은 20일 부산 남천동 천주교 부산교구청을 방문, 정명조 부산교구장을 만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5월 부처님 오신날 정명조 주교 일행이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법어사를 방문한데 이어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종교간 화합과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만남이 되었다.

이날 성오스님은 설록차를 선물로 가져와 크리스마스를 축하했고 정명조 부산 교구장은 불교작가가 만든 화로와 수도회 수녀들이 조각한 초를 선물했다.〈사진〉

한편 전태종 삼광사 주지 덕수스님은 21일 부산



대청동 부산교구청 가톨릭센타를 방문, 송기인 신부에게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삼광사 총무 이갈지 스님, 이종화 신도회 부회장등이 동석한 이날 만남에서는 종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생의 길을 모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 덕수 스님은 25일 천주교 부산교구 주교좌성당에서 정명조 주교 집전으로 열리는 크리스마스미사에 참석 축하메시지를 낭독했다. 이에 대해 정명조 주교는 "부산에서 불교계 인사가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중앙승가대 신입생 모집

종립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종범)는 2001학년도 신, 편입생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다'군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중앙승가대학교는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4개과에 총 122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27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웃종단 스님도 해당되며 종단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가능. (02)921-1910

14교구 신도회장 박수관씨



제14교구 신도회장에 박수관씨〈사진〉가 선출됐다. 박수관 범어사신도회장은 지난 14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린 제14교구 본말사 대의원 총회에서 제14교구 신도회장에 추대됐다. 박 회장은 부산 시민을 위한 불교문화회관이나 불교병원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고종

선암사 주지에 지허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제24대 주지에 정지허스님〈사진〉이 선출됐다. 15일 선암사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지에 선출된 지허스님은 "총림으로서 종단 수행풍토를 조성하고 이끌어가는 수사찰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면서 "선원과 강원을 활성화시키고 분실된 탱화의 복원불사, 설선당과 창파당 등 퇴색한 당우 복원, 성보박물관 개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허스님은 1941년生으로 56년 선암사에서 만우스님을 은사로 득도, 60년 선암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했다. 해인사 동도사 용연사 선암사 등에서 수행하고 선암사 제16대 및 21대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정수원장, 중앙선원장, 중앙종회의원, 선암사 박물관장 등을 맡고 있다.

총무원 사회부장 설운스님





총무원장 종연스님은 20일 총무원 사회부장에 백설운 스님(기원정사 주지·사진왼쪽)을, 사회국장에 이혜각스님(파주 약수암 주지·사진 오른쪽)을 임명 발령했다.

설운스님은 1946년 전남 여천 生으로 61년 선암사에서 순철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66년 선암사 강원을 수료했으며 대흥사 주지, 도봉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혜각스님은 1953년생으로 77년 선암사에서 덕암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82년 영화사에서 덕암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수지했으며 83년 선암사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보현도량 회장, 태고종 종무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제10대 중앙종회 의원이다

진각종

원명정사등 중앙이사 선임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대표이사 혜명)는 19일 통리원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문화사회부 원명국장, 포교부 호당국장, 경전심인당 주교 관전정사 등 3명을 중앙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이사회는 또 2001년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청소년지도자 육성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사업 △청소년 연구 출판 교육 상담 및 조사사업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사업 등을 새해 중점 사업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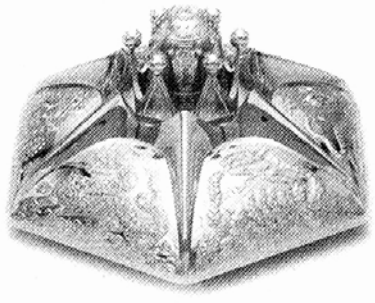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이보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etet.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기(氣)란 : 현실이다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 방이라 한다.

◀기(氣)의 중요성▶
기(氣)란 현실이다
기(氣)가 약하면 액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氣)가 강하면 강자가 될 수있고
기(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을 것이다.

※ 육기방에 효험은 좋다는 분들이 많다.

◆사용처◆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구입처◆ 사찰, 암자, 철악관

※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 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나 기적(奇蹟)이나 하는 소리가 많다.◆

◆육기방 수호신장(六氣方 守護神將)◆

좌청룡(靑龍) : 천하 4방중에 좌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좌청룡이라 불리워진다. 풍수의 학설에 따르면 청룡에서 발생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우백호(白虎) : 천하 4방주에 우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우백호라 불리워진다. 우백호의 기세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청룡이 남성이라면 백호는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남주작(朱作) : 천하 4방주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남주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주작의 기세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북현무(玄武) : 천하 4방주에 북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북현무라 불리워진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된다.

천하(天下)대장 : 천하의 신(神)을 관장하고

지하(地下)대장 : 지하의 신(神)을 관장한다.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찬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공립학교서도 종교편향 교육

안양 동안고 교사 '교내합창제를 찬송가 대회 처럼'

안성 대덕초 교사 '이차돈은 백혈병환자' 등 불교모독

영주지역 6개 사립학교가 정규교육시간에 예배를 보아오다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데 이어 최근 공립학교인 안양 동안고와 안성 대덕초등학교에서도 종교편향적인 교육행위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양 동안고교 합창단은 15일 제2회 교내 합창제에서 총 9곡 중 7곡의 찬송가를 합창하여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학생들이 합창한 찬송가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 '이 땅에 평화를 이루자' '만백성아 기뻐하라' '주 찬양' 등이다.

이날 합창제에 참가한 합창단 학생들과 졸업생, 어머니합창단은 지도교사 김충기씨가 선곡한 성가곡을 배워서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인 어머니합창단원은 "어머니 합창단이 찬송가 1곡을 학생들과 연습했었지만, 학생들의 합창곡이 거의 성가곡으로 채워진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창을 지도한 김충기 교사는 "외도나 저의가 없었기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종교인으로서 교회음악이 발전돼 있어 성가곡을 가르쳐 발표했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안양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교사에게 종교적 성향도 없고 특별한 저의가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교사는 고교시절부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찬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크리스챤 고등학생들의 합창모임인 기드온(성경에 나오는 인물)합창단 13기 출신으로, 88년에는 기드온합창단의 지휘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무종교인으로 순수하게 음악적인 입장에서 찬송가를 선곡했다는 학교측과 김교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안성시 대덕초등학교 5학년 변성희 교사도 최근 학생들에게 불교를 모독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해 불자학생들이 종교적 충격을 받고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변교사는 스님의 발우공양을 '돼지의 식사'에 비유하고, 의상대사가 중국에 유학간 이유를 '벼슬하기 위해서'라고 학생들에게 왜곡하여 설명했다. 또 신라불교를 공인키 위해 이차돈 성사가 순교하자 흰 피가 나온 것에 대해 '백혈병에 걸리면 흰 피가 나온다'는 왜곡된 불교관련 내용과 의학지식을 학생들에게 교육시켰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6조 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편향 교육에 대해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대표 양산, 원혜스님)는 자체조사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 안양시와 안성시, 경기도교육청, 교육부에 진상조사 및 교사 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종편위 실무자 윤승환씨(조계종 사회부)는 "학교측과 해당 교육청의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단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종교인들과 환경·사회단체 대표자들은 19일부터 조계사에서 '새만금간척사업 반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새만금 간척 예산편성 중단"

종교인 등 단식농성

종교·환경·사회단체 대표들이 19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수경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대표스님과 문규현 신부, 최열 환경운동연합 등 종교·환경·사회단체대표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환경재앙을 초래할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계사 종무소 2층 회의실에 농성장을 설치한 이들은 단식농성 돌입 선언문에서 "간척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세계 최대의 환경파괴, 생명파괴에 낭비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아바타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동역사 손인국·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납골탑 높이제한도 삭제"

장안사 주지스님, 복지부에 요청

사찰 납골시설 면적제한으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령 시행안'에 사찰 납골시설 건립을 막는 또다른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298호 1·3면 기사참조>

일산 장안사 주지 병진스님은 "30평 면적제한 조항 외에 납골탑의 높이를 2m로 제한한 것과, 화장장·납골묘·납골탑·납골당내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은 면적제한조항과 마찬가지로 불교계의 납골시설 건립을 저해하는 조항"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 두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병진스님은 또 "이미 납골시설을 운영하는 여러 사찰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필요하다면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납골시설을 운영하는 사찰의 관계자들은 이 두가지 조항이 환경오염을 막고 국토이용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정부방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해인골프장 반대"

조계종·환경단체 등

서울고법에 진정서

다음달 19일 가야산 해인골프장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가운데 해인골프장 건설 저지 움직임이 조계종을 비롯 환경·시민·사회단체의 대거 동참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조계종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각계 각층 인사 일동' 명의로 진정서를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제4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전국 5백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에게 해인골프장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운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 170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 606명이 동참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은 지난 1월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백지화됐으나 사업주의 항소로 내년 1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재경 기자



좌선삼매에… 방학을 맞아 겨울 어린이·학생수련회가 전국 대다수 사찰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지난 22일 무불선원 주최로 서산 부석사에서 열린 수련회에서는 중학생 40여명이 참가, 좌선삼매에 빠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체험, 이해의 첫걸음"

7대종교 '이웃종교 성지순례'

불교·개신교·천주교·유교·원불교·천도교·민족종교협의회 등 6대 종단과 협의체 대표들이 공동으로 이웃 종교의 성지와 유적지를 순례하며 상호간 이해와 교류를 도모한 행사가 열렸다.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주최로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성지순례에는 이번 순례에는 태경·혜성스님(동국대 학인), 김종수 신부, 윤병조·김성복 목사, 이성원 교무, 신현석 성균관 홍보국장, 천도교 중앙총부 오훈동씨, 김재완 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등 각 종교의 중견 성직자와 예비성직자 및 대학생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종교 성지나 유적지를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한편 종교별 의식도 직접 체험했다. 방문지는 충북 보은 법주사를 비롯해 경기 화성 제암리 순교지, 전남 장성 필암서원, 전북 익산 원불교 익산성지, 전북 정읍 천도교 황토현 전적지, 충남 당진 해미솔뫼성지, 전북 김제 증산성지 등.

참가자들은 방문지에서 불교의 예불, 개신교의 예배, 유교의 석전대제, 원불교의 좌선, 천도교의 기도, 천주교 미사 등 의식을 직접 체험했으며, 매일밤 2~3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시간도 가졌다.

19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진행된 법주사 일정은 저녁 예불, 토론 및 강의, 법주사 경내 순례 등으로 진행됐다.

불교측 행사준비를 맡은 양경술 계장은 "직접 보고 듣는 체험이야말로 종교간 이해를 위한 진정한 첫걸음이 되었다"며 "참가자들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노숙자에 불교 심성프로 효과"

한국 JTS 워크숍

사찰 참배나 명상 프로그램 등 불교계의 실직노숙자 심성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JTS(이사장 법륜스님)가 19일 서울 강남 정토회관에서 개최한 '실업자 및 실직노숙자 집단상담수행 결과 워크숍'에서 정흥희 부산보현의집 실장은 "사찰 참배 및 명상 등의 실직노숙자 심성프로그램을 통한 자기 마음의 정화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보현의집 실직노숙자 30명중 5명은 매일 일과가 끝나면 광명선원에서 기도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쉼터에 입소하게 되지만, 그 문제는 오직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불교 심성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기연 정토수련원 법사도 "진행자는 어떤 효과를 거두겠다는 기대를 하지 말고 실직자의 절망감과 불안감을 서로 느끼는 것으로 목표를 삼을 때 오히려 심성수련의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주원 경불련 아침을여는집 실장은 노숙자 연극공연과 귀농체험을 예로 들며 문화적 재활프로그램과 노동의 의미를 습득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연극공연 참여 노숙인 중 20%가 자활에 성공했다"면서 "다양한 노동·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창조성을 일깨워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대불련 회장에 이승배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는 17일 조계사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제 38년차 대불련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이승배씨(충남대 정밀공업화학과 3년·사진)을 선임했다.

서울 지부를 비롯해 전국 각 지부에서 올라온 대학생 불자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된 이승배 회장은 "학내 포교의 활성화와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중앙은 물론 지역 대학생 포교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또 "올 6월 이후 중단된 대불련 인터넷 방송국 복구와 홈페이지에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시키는 등 인터넷 포교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부설기관 2개 설립"

재가연대 내년계획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가 '참여불교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참여불교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재가연대는 16일 오후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중앙위원회 및 송년의밤 행사를 열고,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에서 '참여불교 재가연대'(약칭은 기존 재가연대 그대로)로 단체명칭을 변경하는 등 창립 2기를 준비하는 중단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재가연대는 주요 사업으로 '종단 자정 감시 지원센터', '참여불교 아카데미' 등 부설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달라이 라마 방한성사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며 천주교 개신교의 주요 종교NGO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종교계 자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복지시설에 지원금

조계종 총무원·복지재단

조계종 총무원과 사회복지재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19일 가톨릭이 운영하는 서울시립양로원을 방문,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종교화합과 자비행을 펼쳤다.

또 백련도 해병부대 군법당, 평택 자비동산, 원주 시립복지원, 분경 모전사회복지관, 서울 홍파양로원, 불자약사회 등에도 각각 3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명우 기자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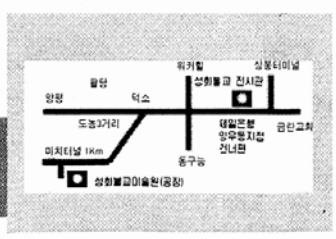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주·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며 시대를 담는 그릇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하면 건축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현대가람은 굳이 '한옥 기와집'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대가람의 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축가 김개천씨의 담양 정토사.

시대·대중 담아야 좋은 사찰

가람의 장면들 40 <끝>

현대가람 조건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불교건축을 공부한다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좌절이다.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위대한 가람들에 파묻히면, 늘상 새로운 영감과 계달음의 기쁨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현재 새롭게 세워지는 사찰 건축들을 바라보면 애처로움과 함께, 그처럼 찬란한 유산을 받았으면서도 왜 이처럼 유치하고 추악한 건축밖에는 할 수 없는가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된다.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며, 시대를 담는 그릇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하면 건축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그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인습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일컬어 '시대착오'라 한다. 현재의 불교건축, 특히 도시속에 건립되는 포교당이나 도시사찰이 바로 시대착오적 건축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몇 해 전, 매우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근교에서 작은 선원을 열고 계신 젊은 스님인데 자신의 선원을 현대적으로 건축하고 싶으니 설계를 의뢰한다는 것이다. 항상 불교건축의 현대화를 염원하던 필자는 너무 좋은 기회라 정말 열심히 설계에 임했다. 스님과 밤새 현대화에 대해 토론도 했고, 대지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최선의 안을 구상했다. 드디어 야심적인 설계안을 공개하는 날, 스님은 무척 당황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현대화'란 한옥 기와집을 약간 변형한 정도였지, 이처럼 콘크리트조의 새로운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들어진 설계안과 생각이 너무 좋아서 설득되고 있는 중이니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했다.

기대에 부푼 기다림 끝에 며칠 후에 드디어 연락이 왔다. 그러나, 큰스님께 여쭈었더니 '절집이란 자고로 기와집이어야 해'라고 크게 꾸지람을 들어 어쩔 수 없이 취소한다는 통고였다. 현재 그 자리에는 100평 정도되는 거대한 한옥 법당이 주변 자연을 압도하며 서있다. 1300년 전, 신라의 국력을 모아 창조한 경주 석굴암의 예를 보자. 석굴암의 구조기법이나 공간형식은, 당시로서는 가장 현대적이며 국제적인 최첨단의 하이테크 건축이었다. 역사상 그러한 예가 없는 이질적이며 이국적인 형식이었다. 그러나 석굴암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불교건축이요, 한국적 전통이 되었다. 석굴암의 건축가인 김대성이 적당히 과거의 전통을 받아들여 그렇고 그런 기와집들을 지었다면, 지금과 같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유산이 되었겠는가? 석굴암은 오늘도 '전통은 늘상 새로운 시도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경법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다.

현대 가람은 세가지 조건, 즉 도시성, 현대성, 종교적 예술성을 가져야 한다. 도시 속의 가람은 넓은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과거의 건축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땅값이 비싸 대지는 협소하며, 앞뒤로는 고층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도시가람은 필연적으로 고층화 고밀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대 가람은 현대적 재료와 공법, 현대 미학을 받아들여서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건축을 보여야 한다. 한식 기와집에 대한 집요한 애착은 불교 자체를 시대착오적이고 늙은 종교로 인식시킬 우려까지 있다. 청년층에 불교가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교건축은 세속건축과는 다른 불교적 예술성을 가져야하는데, 벽면에 불상을 조각한다거나 단청을 칠하는 정도의 상징성은 역시 시대착오적이며, 현대적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가람을 장엄한다는 것은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 중생들에게 예술적 감흥을 일으켜 불심을 계달게하는 것이다. 첨단 매스미디어와 이미지에 익숙한 일반 시민들을 감동시킬 건축은 무엇인가? 대부분 불자들과 스님들이 고집하는 한옥 기와집은 1~2세기 전의 것이다.

기와·단청 집착 시대착오

도시·현대·예술성 '열쇠'

불문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교계의 결단과 의지가 우선 있어야 하고, 능력있고 진지한 전문건축가들이 참여해야 가능하다. 뛰어난 건축가들이 설계한 교회건물은 부지기수인데, 왜 불교건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가? 필자가 아는 한, 서울 능인선원(건축가 황일인)이나 담양의 정토사(건축가 김개천) 정도가 전부이다. 매년 적어도 예닐곱개의 교회들이 그해의 건축상을 수상하고 있는데, 심지어 강원도 산골에 세워진 작은 시골교회마저도 건축가들의 순례지가 되고 있는게, 불교 가람은 몇 개나 일반사회에 내놓을 수 있을까?

부처님의 진리는 영원하지만, 대중에게는 방편에 맞는 설법을 하셨다. 한국 가람건축의 위대함은 바로 시대마다 그 때를 호흡하는 건축을 발전시켜온 점이다. 그 위대한 전통이 현재는 단절되어 있다. 현대적 방편에 닿는 가람건축은 언제나 가능한가?



◇선운사 대웅보전 창방. 두마리의 물고기가 물결 파도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불교조형물에 나타난 전통문양

자/연/문/양

구름-내세 암시…범종 등 새겨

불 - 깨달음·지혜의 빛 시사

물결-끊임없고 걸림없는 수행



◇용주사 법당 천장의 비천상. 구름문양이 조각돼 있다.

불단 장엄…자유·신성 상징

구름문양, 물결문양, 화(火)문양 등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한 문양들은 주로 동물과 식물, 부처, 보살의 모습 등과 함께 어우러져 표현된다. 비천상에 나타난 구름문양이나, 대웅전 불단의 전면에 표현된 구름문양, 물결문양 등은 불전의 신성함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구름

자연문양 가운데 구름문양은 불교조형물뿐 아니라 고분벽화를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두루 찰할 수 있다. 구름이 장식문양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항상 움직이며, 고정되지 않는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름은 환상적 경지나 내세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졌고, 예로부터 수많은 신화와 전설 속에 이를 형상화한 문양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취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광배에는 화염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구름문양은 범종에 주로 나타난다. 신라종에는 천의를 너울거리며 꼬리가 긴 꽃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악기를 다루고 있는 비천상과 함께 어울리고, 고려종에는 꼬리구름 위에 놓인 연꽃자리에 홀로 앉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이 표현돼 있다. 또 불교 사물(四物)인 법고와 운판에도 구름문양이 있다.

▲불

불상의 머리나 몸체 뒤쪽에 있는 원형 또는 배 모양의 장식물인 광배는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화한 것이다. 부처님이 발산하는 일체의 빛은 깨달음의 정신적 에너지이며 지혜의 상이다. 이 빛은 미망의 어두움을 파하고 자리를 드러내는 광명이며, 항상 시방세계를 빈틈없이 비추는 무량광이다.

이 불상의 두광에 위로 솟는 불꽃을 표현한 화문양이 나타난다. 화염은 빛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광배에 화염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이다. 국립부여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입상, 서산마애삼존불상 등의 광배에 화문양이 표현돼 있다.

▲물결

흉배문양이나 십장생도 등에서 도식화된 물결문양을 찰할 수 있다. 물결문은 낭수(浪水), 입수(立水), 와수(臥水)의 세 형식을 갖추고 있다. 낭수는 수면위로 튀어 오르는 물방울을 표현한 것이며, 입수는 무지개와 비슷한 모습이고, 와수는 물고기 비늘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남장사 극락보전 내벽의 이백기경도에서도 물결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 이백이 고래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자연스레 흐르는 물결모양을 표현했다. 불교 사물 가운데 하나로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목어(木魚)에서 와수 형식의 물결문양을 발견할 수 있다.

이은자 기자

인터넷 불교쇼핑 마하몰 연말연시 특선 상품전 www.mahamall.co.kr 02)732-1522

● 108 나한단주

산목승이씨를 조각한 100% 수공에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 玉 건강벨트

내용물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벗데리
(휴대용 구입시)
가격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 삼보죽염 세트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600g / 가격 105,000원

● 죽 비

부리죽비(대) 30,000원
부리죽비(중) 25,000원
부리죽비(소) 20,000원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죽비세트 53,000원
(부리大, 부리小, 일반형)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0대 이상 들어가며(일반형 이상)
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 신행수첩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천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 참배기를 요약기록
색상 회색겉장 / 가격 25,000원

● 연꽃 불자시계


◎ 특별사은품 (탁상시계 + 6입목어염주)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푼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성용 여성용 각각
119,000원

● 만다라 옥침

앉은에 쉬고 움직여 주면 손바닥에 경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고혈압,중풍,치매 등 고질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격 30,000원

● 합천 전통 한과

한과 종가구 (2.7kg) 150,000원
한과 바구니大 (1.8kg) 80,000원
한과 바구니中 (1.1kg) 60,000원
한과 오동나무 (1.8kg) 50,000원
한과 진지방 2호(0.9kg) 22,000원
한과 진지방 3호 (1kg) 33,000원
한과 진지방 4호(1.5kg) 45,000원
경남 합천의 해인사 법경스님가 남남하게 올리는 가야산 자락에서 자라난 찹쌀과, 깨 등등 청정 원료를 사용하여 현대인의 건강과 입맛에 맞게 재현해낸 우리 전통의 과자입니다

● 경 상

재질 : ASH(느릅나무) 원전원목
규격 : 72cm (가로) ×34cm(세로) ×32cm(높이)
가격 85,000원

● 사이버 에밀레 종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배명진 교수가 첨단 공학 기술로 개발 성공한 원음 모음은 신종의 종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
정사각틀 에밀레종 210,000원
팔각틀 에밀레종 250,000원

● 옴 문양 실크스카프

소재 : 100% 실크(트윌) / 색상 : 아이보리, 네이비
규격 : 90 Cm × 90 Cm / 가격 30,000원

● 참선명상방석

입 반 30,000원
숯기반 35,000원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 백화향 선물세트

백화향 + 신자단함 + 천연목향 + 향꽂이
가격 : 50,000원

● 와 발 우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가격
4합 60,000원 (무게 2.7kg)
2합 30,000원 (무게 1kg)

● 왕사성의 비극

부처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에게 전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동가에서는 노는 아이보다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제하는 것이다
비디오 (1시간35분)
책 포함 가격 : 20,000원